독자에게는 기쁨을 업체에게는 만족을

신세대 게임챔프

특별부록

게임코믹 폭소 스화2, 마법검의 전설(3회)

슈퍼컴보이 가이아 환상기, 한국프로야구

수퍼 알라딘보이 환타시스타

애니비전 패트레이버 2

'94 3

용호의 권 2 필살기 완전 수록

책속의 책 1/PC게임 완전 소개서

집중공략/검은 태양, 해병 특공대

기대신작/고고우리별—지구전설 2999—, 작은마녀

IBM—PC 뉴소프트/황비홍, 우주전함 스타쉽, 이스 Ⅱ 스페셜, 가브리엘 나이트, 광개토대왕, 전륜기병 자카토, 유럽의 에이스, 이스하의 전설2, 게임메이커, 램피지

PC게임 하우스/패밀리 프로덕션, 트윈시스템

책속의 책 2/인기 아케이드 게임 완전 소개서

집중공략/용호의 권2, 라이덴2

II

Ys

SPECIAL

(주) 한도흥산 (02) 594-6874 〒 100-111 서울·중구 충무로 1가 C.P.O. BOX 1057

베스트 게임

「완전 공략집」

'94 3월호 특별부록

'94 3

게임코믹

슈퍼컴보이

수퍼 알라딘보이

책속의 책1 ● IBM-PC 게임 완전 소개서

책속의 책 2 ● 인기 아케이드 게임 완전 소개서

가이아 환상기

슈퍼컴보이	현지 발매일	93/12/27	장르	액션 롤플레잉	화면외국어 수준	일본어 중
	제작사	에닉스	용량	16M	대상 연령	고교생 이상
	현지 발매가	9,800엔	기타	백업 배터리	게임 난이도	ⒶBC DEF

프롤로그

백조좌의 방향에 따라 일정주기로 날아오는 거대한 혜성. 그 강렬한 빛은 태초부터 생물의 진화에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고대 문명에서는 그 힘을 이용해 여러가지 생명이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가축이 만들어 지고, 탈 것이 되는 동물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병기가 되는 마물들이 만들어질 때 인류는 전멸의 위기를 넘겼다…

인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빛과 암흑의 전사를 만들어 내어, 그들의 용감한 행동으로 마물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

모험시 이 점만은 주의!!

1. 주변의 무언가가 변했는지(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살펴라.
2.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라.
3. 여러가지 모든 경우를 시험해 보아라. 의외의 결과도 많다.
4. 주위의 적을 남기지 마라! 길도 따라 생
5. 결코 포기하지 말자. 승리는 눈앞에 있을 지도 모른다!

모험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아 환상기는 보통의 게임보다는 조작이 조금 복잡하다. 모두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진행이 괴로워지므로 기본부터 마스터하자!

앞으로 차차 얻어가는 필살기들의 커맨드들은 그때그때 설명하겠다.

十키	이동. 재빨리 두번 입력하면 대쉬
셀렉트,X	아이템 선택화면을 불러낸다
A	공격. 공격모션에서 진행방향으로 다시한번 방향키를 입력하면 2단 점프 공격이 가능하다. 위력도 더 세다
B	아이템 사용. 모든 아이템은 자신이 사용해야 한다. 알아두자
START	게임 일시 중지. 적이 있는 에리어에서는 그 에리어에 남아있는 적, 보석상자, 암흑의 공간(세이브 하는 곳)의 수와 위치를 표시 해준다.
L/R	방어. 적의 탄환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것으로 먼곳에 있는 젬이나 물건을 당길 수도 있다

기본 커맨드

이 게임은 이스 I을 디자인 한 팀이 게임 디자인을 맡아, 시나리오와 이벤트의 진행이 조금(?) 특이하다. 시나리오 위주의 진행이 아니라 수수께끼 해결위주의 진행이므로 게임의 주 내용이자 난관은 이 트릭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가 문제이다.

일본어를 모르면 다른 사소한 문제에 막히기 쉬우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단! 트릭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플레이 할 가치가 없으므로 힌트만 주겠다. 아마 이 공략이 있다면 클리어는 누구나 문제 없을 것이다.

타이틀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여행을 시작한다(지난번에 하던 곳부터 다시하기)
- ♥여행기록을 지운다(세이브 데이타 지우기)
- ♥여행기록을 복사한다(세이브 데이타 복사하기)
- ♥사운드/버튼 변경(사운드의 모노/스테레오 설정과 키 설정)

모험에 들어가서 !

사우스 케이프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다."

저마다 놀 생각으로 가득찬 아이들은 하나둘 학교(교회)를 빠져 나간다.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템은 결국 발길을 아지트로 향한다. 방과후에 친구끼리 모여 밤늦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일과다.

해변에 있는 아지트에 갔더니 이미 아이들은 모여있었다. 갑자기 에릭이 새삼스럽게 초능력을 다시 보여달라고 해 다시한번 물건을 당기는 초능력을 보여준다(좌측에 있는 석상같은 것을 L/R버튼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된다). 또 카드를 뽑는 묘기(?)도 보여주게 된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뽑으라고 하는데 4장이 다이아 에이스이므로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럼 에릭 옆자리에 앉자.

이얏! 보시다시피 템은 초능력자다

다이아 몬드의 에이스를 찾아라. 하지만 초능력자인 템은 어느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에드워드성의 공주가 이 마을에 왔다고 하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분은 보석 수집사 젬. 붉은 보석을 모아 오면 아이템과 바꿀 수 있다. 변장의 천재라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집에 돌아오니 전혀 본적이 없는 여자가 와있다. 그녀는 템을 어디선가 본 것같다고 하지만…

갑자기 병사들이 오더니 여자를 데려간다. 에드워드성의 공주라나….

공주를 병사들이 강제로 데려간다

다음날 템의 집에 에드워드 성에서부터 온 편지가 온다. 수정의 반지를 가져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의 반지는 템은 물론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들은 적도, 본적도 없는 물건이다.

국왕에게서 온 편지.

드디어 마을을 나갈 수 있다

나가기 전엔 세이브를…

에드워드 성

일단 그냥 성에 가서 왕을 만나자. 단, 이때 성 맨 위층의 공주를 만나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 없다.

왕은 다짜고짜 반지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없는 걸 어떡해? 그러자 왕이 템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일단 공주를 만나고 오자. 공주는 자기를 데리고 도망가 달라고 부탁해 온다

왕이 식사중이라며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너무 제멋대로다. 너무해!

감옥에 갇혀 시간을 보내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배가 고파 그 맛있던 아주머니의 파이마저 그리워질 때… 어디서 들려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뒤로하고 아버지는 미스테리 돌을 찾아 여행을 떠나라 한다.

카렌의 애완동물 피기가 옥문 열쇠를 가지고 오므로 문을 열고 탈출하자(이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피기가 열쇠를 가져 온다. 꼭 아이템으로 장비한 후 B버튼을!

지하수로를 통해 성을 탈출해야 한다. 일단 처음이므로 적은 약하지만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적은 꼭 없애야 한다는 것!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갈 수 있는 길이 바뀐다

가다보면 녹슨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보통방법으로는 안 눌린다. 그럼? 위쪽에 떨어지는 구멍이 있는데…

흠흠… 내힘으로 안되면 다른 힘을 빌려야지! 중력을 이용해서…

이런 길이라면 리치가 긴 프리던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되겠지

또, 그 다음엔 스위치가 양쪽에 두개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두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길이

열린다고 한다. 템을 누군가가 도와주러 오므로1,2,3을 셀 때 타이밍을 맞춰서 스위치를 누르자.

머리위에 숫자가 보일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자

리리와의 만남. 아주머니에게 부탁받아서 도와주러 왔다고 한다.

이토리 족의 마을

수로를 통과하면 아까 목소리만 들렸던 리리를 만날 수 있다. 같이 사우스 케이프 마을에 돌아가 보면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보이는 것은 단지 청부살인 업자의 마크뿐. 걱정이 되어 리리와 함께 이토리 족의 마을로 간다. 로라의 멜로디를 불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리리가 상황을 설명해 준다. 흠흠…

로라의 멜로디를 피리로 불면 마을이 나타난다

카렌을 데리고 성을 나가자

이곳에서 먹을 걸 가져가자고 한다. 긴 여행에는 먹을게 있어야!

이토리 족의 마을에 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준다. 모두 무사하셨군…

이 마을의 촌장을 만나면 이 마을 아래의 동굴에 신상이 하나 숨겨져 있다며 찾으라 한다. 일단 마을 북동쪽의 암흑공간에서 사이코 대쉬를 얻자.

이곳에서 힘차게 달음박질을!

장로님은 꽃밭에. 꽃밭에는 꽃들이! (아닌가?)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무사히 잘 계시는 군

사이코 대쉬를 얻는다

기술 설명

사이코 대쉬 : 힘을 모은 후 적에게 부딪힌다. 하지만 공격방법으로는 별 소용이 없고 진짜 중요한 역할은 장애물과 숨겨진 벽을 부술 수 있다는 것. 사용방법은 A버튼으로 녹색점멸이 급해질 때까지 힘을 모았다가 놓으면 된다. 보고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

사이코 대쉬를 얻었으면 신상이 있다는 동굴로 가자. 동굴어딘가에 피리로 치면 소리가 다른 곳이 있다.

이 언저리가 수상한데…

신상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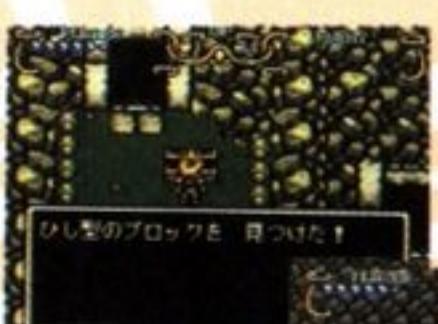
달의 종족의 마을

이 마을에 사는 달의 종족은 모습은 비록 이상해도 옛날엔 인간이었다고 한다. 마을의 남서쪽에 가면 달의 종족이 우릴 시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40초내에 모든 적을 물리치는 것. 시간은 많으므로 여유있게 적을 물리치자. 그러면 두번째 석상을 얻을 수 있다.

달의 종족이라! 꼭 귀신같이 생겼다. 그래도 옛날엔 인간이었다던데…

제한시간 40초!

잉카유적

미스테리 돌을 얻기위해 이곳에 도착한 리리와 템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카렌. 자기를 떼어 놓고 어딜가느냐고 앙칼지게 이야기 한다. 리리와 카렌이 남기로 하고 템 혼자서 유적안으로 들어가는데….

카렌이 몰래 따라왔다. 이런… 곤란하게 됐군

이곳의 진행은, 일단은 라라이의 절벽을 타고 진행된다. 조금 진행해 적을 물리치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식이다. 계속 전진하다 보면 절벽으로 나가서 길이 막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바람의 멜로디"를 얻을 수 있다.

이곳으로 오는 도중 암흑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프리던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바람의 멜로디를 얻었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힌트는 프리던의 리치는 템보다 훨씬 길다는 것이다.

이 구멍에 무언가가 들어갈 것 같지?

블럭을 찾았다. 그럼 끼울 곳을 찾아라

이곳은 4개의 발판을 한꺼번에 밟아야 한다. 이곳의 적은 죽이라고 있는게 아니라네!

프리던이라면 이 정도 거리는 문제없이 닿는다

바람의 멜로디를 얻었다

(조용히 피리를 불어라 바람에 속삭이듯!)

바닥이 황금색인 방에 오면 바람의 멜로디를 불어라(물론 템인 상태에서). 그러면 어느한 바닥이 빛난다. 그 바닥위에서 시간을 한참! 보내라. 그럼 길이 열린다(이 트릭은 정말 너무 악질이라 그냥 밝힌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석상들이 모두 적으로 변한다

시간은 금이 아니다. 만만디의 살기다다 보면…(헛소리)

이런 곳에 신상을 놓자

보스, 쉽다. 그것뿐

보스와 만난다 해도 걱정하지말라. 프리던의 모습이라면 그냥 마구 다가가 싸워도 질 수도 없을 정도로 쉽기 때문이다. 라라이의 절벽을 나왔다면 유적 어딘가에 특이한 제단같은 것이 둘 있을 것이다. 그곳에 잉카의 상 둘을 놓으면 기다리던 출구가 보일 것이다.

꽃의 도시 프리지아

템은 꿈을 꾼다. 황금배는 지금 원래의 보금자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템을 보고 왕이라고 한다. 또 나의 명령으로 석상을 소중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 석상은 무얼까? 그리고 템이 왕이라니? 이런 꿈은 왜 꾸는 것일까? 의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잉카의 황금선… 템은 꿈을 꾼다

날보고 ··· 좋군

꿈속에서 꾼 꿈. 템은 어머니를 만나지만…

황금배는 모두 부서지고 템은 카랜과 함께 뗏목을 타고 표류한다. 몇일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가운데 일행은 점점 배가 고파진다.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는 템에게 카랜은 물고기가 불쌍한데도 어떻게 잡아먹느냐며 심술부리지만 카랜도 굶주림에는 굴복한다. 조금은 어른다워졌을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A버튼으로 공격. 그다음 먹어라. 카랜에게 줄때는 A버튼으로 잡은다음 안먹으면 된다.

노예가 도망쳤다고 한다. 가르쳐 주면 붉은 보석을 하나 줄텐데!

노예시장. 전에 편지를 쓴 사람이 여기 있다

여관에 가면 헤어졌던 리리와 로브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에릭이 보이질 않는다. 지붕을 타고 다니다 보면 에릭이 도망치던 노예를 도와주다 잡혀갔다고 한다. 화면 좌측 끝집에 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노예상인은 이미 도망치고 없고, 에릭을 구해내게 된다.

에릭을 구하자. 문이 안 열려 부수는 수밖에…

왕비는 실제 이런모습이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도와달라는 편지가 들어 있다

상어들이다. 다행히 배가 안고픈 모양이다

꽃 날리는 도시 프리지아. 보기엔 역시 아름답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그늘도 있는 법. 도시 뒤편엔 빈민촌과 노예시장이 있다(노예시장은 지붕에서 떨어져서 갈 수 있다).

참고로 이곳의 노예상인은 도망친 노예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 붉은 보석을 주겠다는데, 도망친 노예는 안에서 문을 잠군 집1층에 있다. 그 집은 지붕으로 들어 갈 수 있다.

그 노예를 노예상인에게 다시 넘길 것인지 아닐지는 당신 마음이다.

로브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에릭은 많은 노예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팔려갔다고 한다. 그 노예들을 구해주러 가자.

다이아몬드 광산

다이아 몬드광산에 들어가면 채찍을 맞는 노예(?)가 보인다. 옆의 적을 물리치고 쇠구슬을 부수면 그 노예는 해방되는 것이다. 이곳에는 8명의 노예가 잡혀있는데, 십자모양의 위치에서 4개의 스위치를 전부 누르면 가운데에서 길이 열린다.

사진에 보이는 입구는 네개의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열린다

중간의 암흑공간에서는 프리던의 다크 프레이어를 얻을 수 있다.

기술설명

다크 프레이어 : 멀리있는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사이코대쉬와 사용법이 동일. 스위치도 누를 수 있다.

더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면 벽에 가까이 서 보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머리가 휘날릴 것이다. 그 뜻은 – 말안해도 알 것이다.

가다보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곳 위쪽에 적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녀석을 프리던의 다크프레이어로 물리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여기서 다크프레이어로 건너편의 적을 없애 자. 길이 생길 것이다

이곳에 서면 바람에 머리가 휘날린다. 동굴 속에 바람이 불어?

노예를 구해 주면 리프트의 열쇠를 준다

사무스라는 노예가 "추억의 멜로디"를 주며 바람의 멜로디를 달라고 한다. 기념으로 말이다. 리프트의 열쇠를 얻었으면 리프트를 타러 가자. 리프트를 타고 가면 길이 3갈래로 나뉘는데, 가운데 길은 두개의 열쇠로 잠겨 있다. 좌,우의 길에서 각각 하나씩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 힌트를 주자면 왼쪽은 묘지인데,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 힌트이다.

이녀석은 왜 혼자 떨어져 있을까?

추억의 멜로디를 얻었다

리프트를 타고– 아래가 까마득하다

닐의 오두막

기억상실의 로브가 문제가 된다. 로브의 상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디 갈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기억상실? 옛날 기억이 없어? 그럼 추억도 없겠군. 흠흠…

로브의 기억상실이 나으면 사촌인 닐의 오두막으로 향한다.

닐은 자신이 발명한 여러가지 발명품을 보여준다(특이하게 생긴 것들을 이것저것 살펴보면 된다). 미스테리 돌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나스카 평원으로 향한다.

돌이 놓인 법칙을 따라가면 이곳에 돌이 하나 놓여있어야 할 …

달의 종족의 공중정원으로 워프된 템. 이곳에 있는 달의 종족은 4개의 크리스탈 볼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일단 4갈래의 길 중 트릭이 시계방향순으로 어려워지므로 참고해서 진행하자.

첫번째와 두번째의 크리스탈 볼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곳은 앞뒤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뒷면이 들어간 곳은 앞면에서 나와있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좌우가 반대가 된다는 점이다. 이것만 주의하면 쉽다. 보이는 모든 적을 없애고 길을 찾아 나아가면 된다. 찾은 크리스탈볼은 가운데의 블럭중 구멍이 뚫린 곳에 쓰자.

단 두번째 크리스탈은 프리던의 힘이 필요하게 된다. 이곳 어딘가에서 프리던으로 변신해야만 하는데, 프리던으로 변신할 수 있는 암흑공간은 다른 크리스탈볼이 있는 곳에 있으니 알아둘 것.

닐의 오두막. 여러가지 신기한 발명품이 많다

나스카의 지상그림을 살펴보던 일행은 그림주위에 널려있는 돌들의 위치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한다(이곳에서도 이사람 저사람 이야기나 하면 된다). 그러던 중 템은 한쪽 구석에서 또 달의 종족을 보게 되는데….

프리던의 리치를 이용하자. 프리던은 멀리 있는 것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이 암흑의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세번째와 네번째 크리스탈볼을 얻는 법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된다. 일단 아까도 말한 앞,뒤의 관계를 생각한후 뒷면에서 찾을 수 있는 밟으면 소리가 나는 블럭을 밟아야 한다는 것. 단, 잠시 밟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레이더에 잡히

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기사상도 물리칠 수는 없지만 칼은 부술 수 있다는 것이다. 칼을 부수면 기사상이 다시 돌이 되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힌트다.

겁내지 마라! 저 보스에게 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기사상도 칼을 잃으면 하나의 돌에 불과하다

떨어지는 템. 닐이 템을 받으려 하다 실수했다

크리스탈 4개를 다 모으면 보스로의 길이 열린다. 프리던으로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잘 날아가지만… 결국 이런꼴이 된다

흡혈귀의 해저궁전

흡혈귀의 관. 잘 조사 해 보자

미스테리 돌을 얻은 후 닐의 비행기를 타고가던 일행은 비행기가 부서지는 바람에 바다에 추락한다. 일행이 떨어진 곳은 흡혈귀의 지하 궁전이었다. 이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해골들은 닿아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거기다 사람들은 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어딘가에 관이 세개 있다. 그 관중 하나에는 이상한 돌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선가 정화석을 피의 샘에 던져달라는 말이 들려온다. 이 부탁을 들어주면 무대륙으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여기가 피의 샘.

이 녀석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두 석상의 시선이 교차하는 곳

이것은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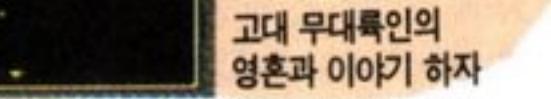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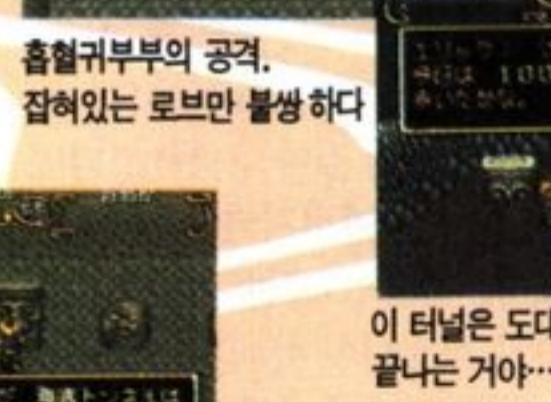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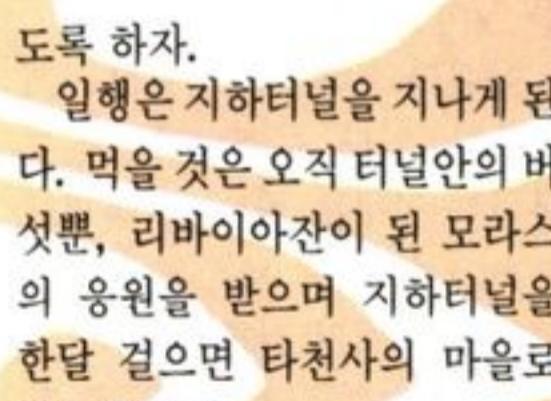
무대륙

무대륙에서는 두개의 라무상을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수로에 물이 차있어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곳부터 착실히 뒤지자.

도중에 있는 사람 얼굴상은 모두 보물상자를 노려보고 있다. 두개씩 있으니까 x,y좌표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의 두 석상은 아무것도 보고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수수께끼일까? 해보면 알테지만… 이 트릭은 두번이나 등장한다.

기원의 상을 얻었으면 기원의 방에 있는 제단에 두자. 그럼 물이 빠지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도중 파란색의 언덕은 올라 갈 수 없는데 이것은 주위에서 반동을 얻을 수 있는 물체를 이용해 올라가자. 또, 이곳의 어딘가에 있는 암흑 공간에서는 사이코 대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벽에 나 있는 낮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공격수단이다.

라무상이 들어 있는 라무의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인가 보다. 고램이 둘씩이나 지키고 있다니

기술설명

사이코 대쉬 : 대쉬중에 A버튼을 누르면 된다.

라무의 상 두개를 찾았다면 흡혈귀 부부를 물리치자. 그중 한명을 물리치면 나머지 한명이 화를 내며 보브가 묶여 있는 폭탄에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 이 시간이 지나면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시간은 너무나 충분하므로 조급하게 하지말도록 하자.

일행은 지하터널을 지나게 된다. 먹을 것은 오직 터널안의 버섯뿐, 리바이아잔이 된 모라스의 응원을 받으며 지하터널을 한달 걸으면 타천사의 마을로 나오게 된다.

이곳에 두개의 라무 상을 놓자. 길이 열릴 것이니라 (너무 무게잡았나?).

반동을 이용하라. 간단한 트릭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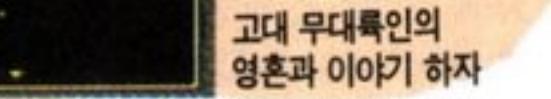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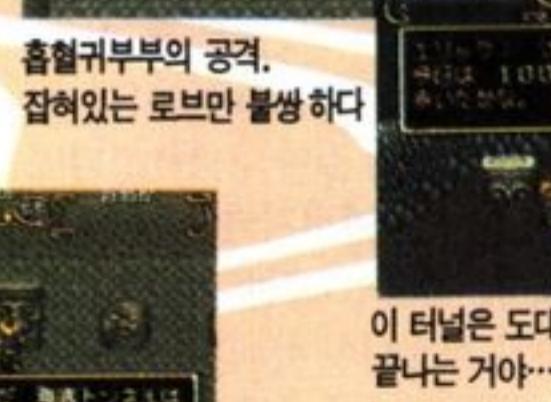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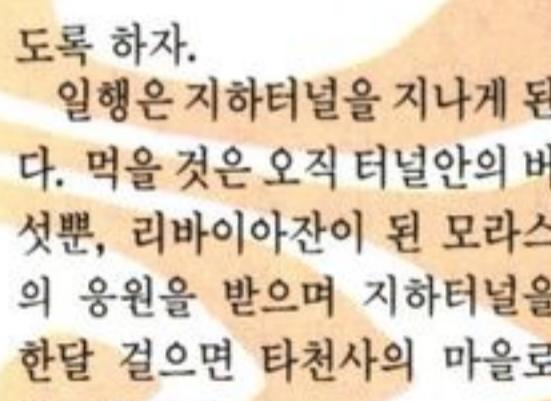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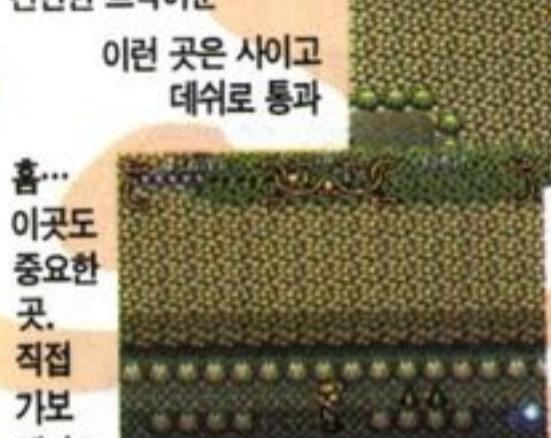
이런 곳은 사이코 대쉬로 통과

흠… 이곳도 중요한 곳. 직접 가보게나!

이 스위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 온다

흡혈귀부부의 공격. 잡혀있는 로브만 불쌍하다

이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고대 무대륙인의 영혼과 이야기 하자

타천사의 마을

일행은 타천사(=악마)의 마을에 도착. 로브가 리리의 생일에 무엇을 선물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데… 당신의 대답은 역시 당신에게 달려있다. 갑작스런 키스? 흠…

리리가 템에게 다정스레 굴자 삐쳐 어디론가 가버리는 카렌. 음…

로브는 리리의 생일에 무얼 선물할까 물어본다

몸을 쉬고 있는데 카랜이 어디론가 가버린 후 사라진다. 템은 카랜이 이쉬타라는 화가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랜을 찾아나선다.

이쉬타의 화실은 상당히 가기 힘들다. 일단, 이쉬타의 화실로 통하는 입구를 찾는다. 여기서부터가 어렵다. 계속해서 내려가다보면 여러 갈래로 길이 갈리는데, 그중 갑자기 어두운 통로가 나타날 것이다. 이곳 어딘가에 뚫리는 길이 있다. 찾는 법은 이미 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몇번을 비밀통

이쉬타의 화실로 가는 문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인다. 갑자기 나오 적에게 주의

로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가기도 힘든 통로가 나오는데, 이곳을 재주껏 통과하면 거의 다온 것이다.

모두 4번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모두 한 방의 모습을 외운 다음 다음 방에서 다른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처음과 다음은 확실히 기억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방 힌트는, "눈에 안보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에 가려서 안보이는 부분이 다르다. 네번째 방의 힌트는, …. "다른 곳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힌트다.

카랜을 다시 찾으면 이쉬타는 템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느니 뜻모를 이야기만 하면서 자신이 그림이 되어 버린다. 일행은 닐의 제안에 따라 오타미아로 향한다.

이쉬타의 수수께끼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수상도시 오타미아

이곳에는 템의 아버지와 함께 바벨탑에 갔다 행방불명되었던 로브의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기억상실증인지 제정신이 아니다.

밤에 리리의 생일을 축하하며 카랜 특제 케익을 나누어 먹는다. 로브는 리리에게 은밀히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말이 충격이었는지 리리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다음날 로브도 어디로 갔는지 안보인다.

이곳에 카랜의 일기가 감추어져 있다. 읽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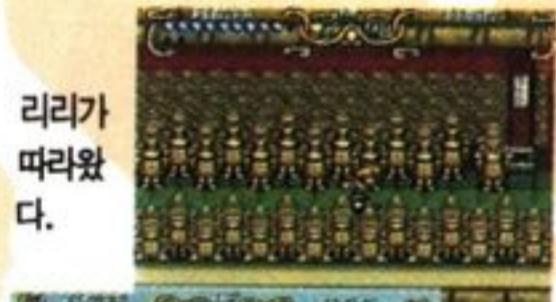
로브의 아버지는 정신이 이상해져 있다

리리의 생일! 케이크가 먹음직스럽군

로브는 용감히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 문제의 편지 하나가 이벤트의 진행을 좌우하는 것이다! 하하하…(엄청 허탈하군)

이곳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을것 같아 이야기 하면 로브의 행방은 템이 가지고 있다. 템의 아이템 중에 로브의 편지가 있을 것이다. 로브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찾으러 만리장성에 갔다 오겠다고 썼지만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가다보면 로브가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주울 수 있다

리리가 따라왔다.

사진에 보이는 스위치를 누르면 인형들이 적이 된다.

만리장성

리리와 함께 로브를 찾아 나선다. 이곳은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레이더를 잘 확인하면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스위치에 주의하자. 스위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다 보면 언덕 때문에 결국 갈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도중에 얻었을 암흑의 힘 "스핀대쉬"를 쓰면 언덕을 넘어 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프리던으로 갈 수 있는 곳과 템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확실히 구별되므로 역할 분담이 중요해 진다.

기술설명

스핀대쉬 : 회전해서 적을 물리친다. 잠시 무적이 되는 것과 같다. 또 이 상태에서 언덕을 그냥 올라갈 수 있다. 방법은 사이코파워를 모은후 A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L/R버튼을 연타하면 된다. 조금 어려운가?

중간에 나오는 보스를 물리치면 미스테리 돌을 또하나 얻게 된다. 로브를 만나면 그는 만병통치약을 얻었다고 하지만 이미 로브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다.

보스. 공격찬스를 놓치지 말자

로브와 리리와 다시 만났다. 리리도 로브가 싫지 않은 모양이다

템은 초능력(?)으로 어느 잔에 독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큐레이라는 낙타같은 동물이 필요하다. 그 돈을 벌기위해 러시안 글래스(러시안 룰렛?)를 하러 가는 템. 연잎은 도박장 오른쪽에서 기다리면 온다

죽은 러시안 글래스 선수의 부인이 큐레이 네마리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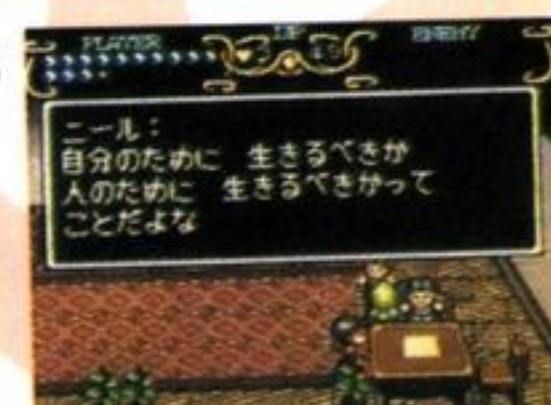
대도시 아우로

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아우로. 이 게임에서 가장 큰 도시다. 닐의 부모님은 아우로 최대의 부호인데… 무언가 수상하지는 않은지?

줄서기를 생활화합시다!

이 분이 아우로에서 가장 돈 많은 닐의 아버지

프리던의 힘을 올려주는 아이템이다

이곳의 한 가게에서는 생명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팔고 있다고 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 가게에서는 정말 공짜로(닐 아버지의 후원(?)으로) 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데… 들어가려면 역시 줄을 서야겠지? 우리는 문화국민!

이 마을의 두 할아버지 예술가가 전설의 티어 포트를 구해달라고 부탁해 산의 성역으로 가게 된다.

할아버지들이 부탁을 한다

산의 성역

이곳은… 한마디로 넓다. 하지만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롤플래잉 게임할 때 던전을 뒤진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면 될 것이다. 알아둘 것은 버섯의 물방울(キノコのしずく)는 줄기가 끊긴 곳같은 데서 사용하면 길이 생긴다. 몇번을 그러다 보면 티어포트를 얻을 수 있다. 언덕과 같은 곳은 템의 스핀대쉬로 지나가자.

버섯의 물방울을 쓰면 길이 생긴다

이런 곳은 스핀대쉬로 지나간다

티어포트를 손에 넣고 아우로에 돌아가면 할아버지들이 마물의 느낌이 난다며 의심나는 사람이 있으면 티어포트를 써보라고 한다.

닐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티어포트를 사용해 보자). 결국 닐은 아우로에 남게 된다.

티어포트를 찾았다

닐의 부모님은 달의 종족이 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주민 마을

세사람은 도중 이마을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습격해와 일행은 잡혀먹힐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때 갑자기 카랜의 애완동물 피기가 희생를 해, 일행은 먹힐 위험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식인종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들도 먹을게 있었으면 인간을 먹으려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잡아먹힐 위기에서 희생한 피기. 템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

돌이 되어 있는 아가씨들

어스퀘이크는 잠시동안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앙코르 와트

이곳은 대단히 넓다. 정말 넓다. 적도 그냥은 안죽는 녀석이 처음부터 나타난다. 이 목늘어

이곳에 모험자의 일기가 있다. 읽어보면 중요한 정보가…

나는 녀석들은 일단 머리를 집중공격해 없앤 후, 본체를 공격해야 쓰러트릴 수 있다. 또 빠른 움직임으로 템을 괴롭히는 벌레들도 짜증스럽다.

이곳에서는 사이코 슬라이더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보이는 적을 모두 물리치면 길은 반드시 열리므로 쉽게 포기하지말자. 여기까지 왔다면 어렵사리 중심부로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길을 지나가려 하면 길을 막으며 회전하는 돌 거인은 그냥은 쓰러트릴 수 없다. 중간에 얻게 되는 어스퀘이크를 잘 써야 통과할 수 있다. 또, 중간에 얻는 흑수정의 안경은 빛이 강해 눈이 부실 때 쓰면 된다.

눈이 부셔 지형을 알 수 없다

흑수정의 안경이 떨어져 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닥에 반짝이는 물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라고? 20세기 아닌가?

기술설명

어스퀘이크 : 높은 곳에서 떨어질때 a 버튼을 누른다.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다(음! 이상하군). 그는 고곤의 꽃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것은 원주민 마을에 있던 돌이 된 사람에게 쓰는 아이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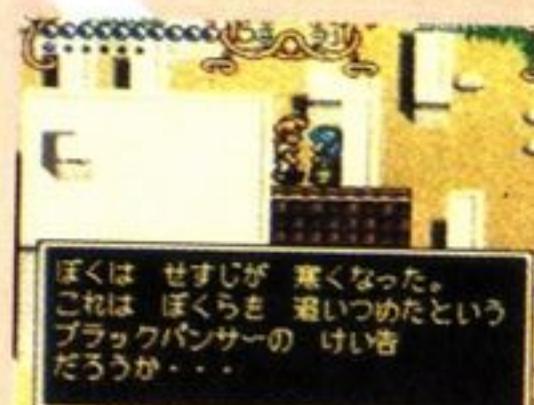
수수께끼의 존재. 그는 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돌이 된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들자

두더쥐 게임 같다. 이기면 붉은 보석을 얻을 수 있다. 이 마을에는 이런 게임이 많다

블랙 팬서의 경고장을 전해주는 아가씨. 아가씨도 겁에 질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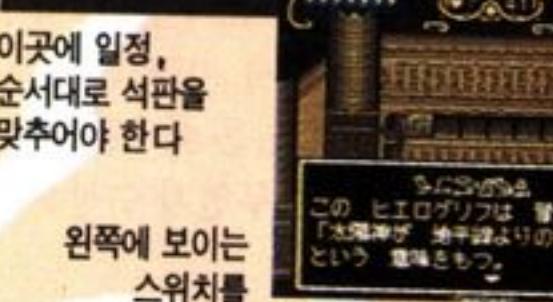
피라미드

피라미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없는 정신만이다. 살아있는 템이나 프리던은 불가능. 암흑의 공간에서 또 변신 할 수 있는 궁극의 전사 샤드만이 피라미드의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들어간 후는 문제가 달라지지만… 어쨌건 일단은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셰도우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셰도우의 특수능력. 이런 곳을 지나갈 수 있다

다. 샤드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여섯개의 석판을 스타트 지점에 있는 벽에서 사용하자.

보스인 피라미드의 여왕을 물리치면 또하나의 미스테리 돌을 얻을 수 있다.

이곳에 일정, 순서대로 석판을 맞추어야 한다

왼쪽에 보이는 스위치를 밟으면 길이 바뀐다

블랙 팬서가 카랜을 납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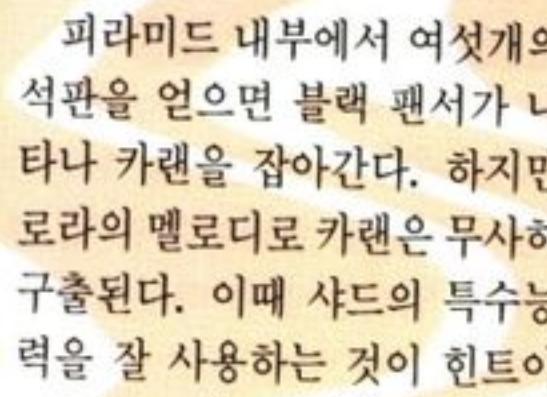
사막의 마을 다오

빌과 로라에게서 소포(?)가 온다. 아버지의 편지도 얻게 된다. 서서히 모험은 마지막으로 향하고… 처음에 등장했던 청부살인 단체 블랙펜서에게서 경고장까지 날아온다. 자! 힘내자!

이곳에서 피라밋에 관한 정보를 들어두어야만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

템에게 많은 편지가 와 있다

다시 만난 닐. 사업을 확장하러 왔나?

피라미드 내부로 워프!

피라미드 내부에서 여섯개의 석판을 얻으면 블랙 팬서가 나타나 카랜을 잡아간다. 하지만 로라의 멜로디로 카랜은 무사히 구출된다. 이때 샤드의 특수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힌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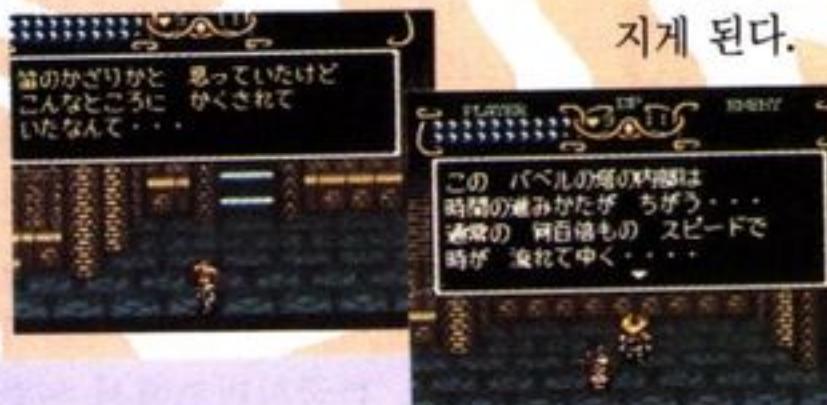
로라의 멜로디를 불면…. 이렇게 된다.

피라미드의 여왕. 조금은 어렵지만 별 문제 없다

바벨탑

갑자기 템이 가지고 있던 피리 안에서 그 문제의 수정의 반지가 발견된다. 이것이 바벨탑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인 것이다. 그럼 처음 에드워드성의 왕이 이 반지를 원했던 것도, 반지를 안가져왔다고 심한 대우를 한 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피리가 발견된 곳. 피리에서 수정의 반지가 떨어진다. 이것이 있어야 바벨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바벨탑 내부는 시간개념 조금 다르다

수정의 반지를 쓴 후 카랜과 함께(이번에도 또 몰래 따라왔다) 위로 올라가자. 지금까지 싸워 이긴 보스들과 한번씩 다시 싸우게 된다. 힘겹게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면 드디어 일행은 마지막 무대인 혜성으로…! 그리고 모든 비밀은 여기서 밝혀지게 된다.

혜성으로!

지금까지 죽었던 영혼들이 모여있다.

한국프로야구

국내 최초 한글화 슈퍼컴보이 게임

슈퍼컴보이	현 지 발매일	94/2/초순	장르	스포츠	화면외국어 수 준	한 글
	제작사	현대전자	용량	미정	대 상 연 령	국교생 이 상
	국 내 발매가	99,000원	기타	컨티뉴 방식	게 임 난이도	AB© DEF

국내 최초로 탄생한 슈퍼컴보이 한글게임 「한국 프로야구」가 드디어 기나긴 제작기간을 거쳐 우리들의 눈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더구나 한국 프로야구 협회(KBO)의 승인을 거쳐 국내 8개 구단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선수들이 현실감 넘치는 데이타를 갖추고 총출동하였다!

박진감 넘치는 3차원 화면!

이 공략은 이돌컵과 이혼다가 공동 분석해서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게임지 사상 최고의 기자들에 의한 공동 저서라는 점에 큰 의미를 많이 두고 싶다 (그래 많이 둬라).

모드설명

페넌트레이스

이 모드는 한국프로야구의 공식전과 같은 시합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 126 게임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시합수의 반을 치루고 나면 올스타전이 시작된다. 페넌트레이스가 끝나면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며 상위의 4팀이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목표로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의 경기를 한다.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우승을 축하하는 회면이 나타나며 코리안 리그는 끝난다.

팀을 선택하자

개막전

원래 개막전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게임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모드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선택해서 단 한번의 승부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모드의 선택

올스타전

페넌트레이스의 경기를 1/2 소화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올스타전 모드에 들어가지만, 이 모드를 선택하면 팀을 동군, 서군으로 나누어 대전할 수 있다. 이 모드에서는 자유롭게 선수들을 선택할 수 있고, 수비위치에 따라 선발할 수 있는 선수는 결정되어 있다.

주자가 수비수를 따라가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올스타전의 화면

청백전

진짜 프로야구에서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연습을 마치고 나서 자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청백전이라고 한다. 이 모드도 마찬가지로 한 팀을 투수 4명, 야수 8명으로 나눠 경기를 한다. 아무튼 진짜 야구랑 똑같다니깐!

WATCH 모드라면 관전도 가능!

편집

이 화면 모드로 들어가면 국

편집화면

내에 있지 않은 새로운 팀 4팀이 보인다. 현대 팀도 보이고 폭스라고 써있는 팀도 보인다. 이 화면에서는 새로 추가된 4팀을 기존의 팀과 바꾸는 모든 팀들의 선수명, 타석, 투구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페넌트성적

이 화면에서는

일정표 : 페넌트레이스의 일정을 보여준다.

팀순위성적 : 페넌트레이스 기간동안 팀 승률, 순위 등을 보여준다.

팀개인성적 : 페넌트레이스 중 팀 별 선수의 개인성적을 보여준다.

부문개인성적: 개인 타격 성적 등을 보여준다.

팀순위성적

	시합	승	패	무	승률	차
1롯	1	1	0	0	1.00	——
태	1	1	0	0	1.00	0
LG	1	1	0	0	1.00	0
4한	1	0	0	1	.000	0.5
해	1	0	0	1	.000	0.5
쌍	1	0	1	0	.000	1.0
삼	1	0	1	0	.000	1.0
OB	1	0	1	0	.000	1.0

타율 .250 방어율 0.00 홈 0

팀순위를 알아보자

옵션

이 모드로 들어오면 게임의 설정을 바꿀 수 있다.

공격시의 키조작 방법

배팅

십자 버튼으로 타자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배팅위치를 정하고 A버튼을 눌러서 스윙한다. 스윙중에 십자 버튼을 위로 누르면 업스윙, 밑으로 누르면 다운 스윙을 한다. 업 스윙일 경우는 볼이 바운드되어 나가므로 루상의 주자를 진루시킬 때 쓰면 편리하다. 다운 스윙일 때는 볼이 공중에 붕 뜨므로 3루에 주자가 있으면 희생플라이로 득점을 올릴 수 있다.

흔히 다운 스윙을 할 경우 공을 끌어 올려 치기 때문에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은 장채근, 이순철 같은 선수들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므로 많이 시도하면… 피본다.

공포의 헛스윙!

타임!

배터리 화면에서 투구전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타임이라는 콜 사인과 함께 일시정지 상태가 되며 한번 더 누르면 원래상태로 된다. 또한 동시에 투수및 타자의 개인성적이 나타나며 타석지정, 선수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게임의 진행

페넌트레이스

페넌트레이스 모드에서는 10 게임 이상의 복수시합을 치룬 다음 플레이오프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게임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프로야구에서는 컨디션 표시가 윈도우로 되기 때문에 간단히 누가 지쳐있는지, 누가 최고조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친 선수는 다음 시합까지 쉬게하고 최고조 상태인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감독이 되어 이번 시합의 상대보다 다음 시합이 더 어렵다고 판단되면 컨디션이 안좋은 선수를 골라 내보내는 고육지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맡고 있는 팀의 선수가 모두 지친 상태이면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무리시키고 능력이 높은 선수를 배양하도록!

개막전, 올스타전, 청백전의 진행

대략적인 것은 페넌트레이스와 같으나 올스타전에서는 페넌트레이스와 달리 엘리트 선수들을 기용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선수들의 체력에는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기량을 펼쳐보시라!

멤버설정

대전 상대가 골라지고 나면 스타팅 멤버를 고르는 화면에 돌입한다. 여기서는 처음에 등장시킬 선수의 순서나 교체 등을 할 수 있으며 선수들의 각종 데이타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경기중에도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편집모드

모드 셀렉트 화면에서 「편집」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모드에서는 1팀에 25명분의 데이타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타는 야수 8명, 후보 9명, 투수 8명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수비시의 키조작 방법

구장의 크기도 수비 방식의 포인트가 되므로 신중하게!

피칭시

피칭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한국프로야구에서는 피칭 조작을 두번에 나누어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익히는 길이 좋은 공을 던지는 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마운드에 서면 우선 L/R 버튼으로 투수를 좌우로 이동시켜 던질 위치를 정한다.

이때는 타자가 왼손 잡이인지 오른손 잡이인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위치를 정하고나면 1차조작에 들어간다. 1차조작은 와인드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입력되어 틈을 두지말고 끝나야한다. 이 조작이 빨리 끝나야 2차조작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조작에서는 투구할 코스를 정하게 된다. 코스 지정은 십자 버튼을 포수위치에 갖다댄 것과 같으며 위로 올리면 공이 위로,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깔리게 된다. 1차조작이 끝나면 곧바로 2차조작에 들어가야 하는데 와인드업하는 시간과 공이 글러브에 빨려들기까지의 시간이 여기에 모두 포함.

만약 1차조작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은 플레이어가 마음먹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견제구

송구할 루를 정하고 B 버튼으로 송구를 한다. 송구할 루를 정하지 않고 던질 경우에는 1루로 던진다.

야수조작

한국프로야구 게임은 3차원 입체 화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통상의 야구 게임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플레이해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공이 떠오르면 땅볼일 경우 그대로 화면이 공을 따라 확대되며(마치 중계방송 같다) 근처의 수비수를 조작해서 볼을 잡아야 한다.

만약 볼이 일정 높이 이상 떠오르면 화면은 통상 야구게임의 다이아몬드로 바뀌면서 지면의 수비수를 조작해서 볼을 캣치하게 된다. 아뭏든 이 시점에서는 원근감을 잘 파악하여 수비수를 공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공을 던져라

때로는 야수의 위치를 바꿔도 효과가 있다

각팀의 소개

삼성라이온즈

작년 시즌의 코리안 시리즈에서 해태 타이거즈에게 아깝게 우승을 넘겨준 일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프로 야구의 명문팀이다. 이 게임에서는 기존의 유명한 이 만수, 김 성래 선수는 물론 신인 최고의 강타자인 양 준혁 선수도 들어있다.

해태타이거즈

한국프로야구의 명실공히 최정상. 김성한, 이순철 등의 무너지지 않는 거포, 무등산폭격기 선동열 등의 초호화 구성원을 맞아 이길 수 있는 팀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당신이 이끄는 팀이라면 이길 수 있을지도?

OB 베어즈

수도 서울 야구의 막내둥이. 만년 하위였던 곰들이었지만 작년 한 해에는 서울의 자존심을 지킨 윤 동균 감독이 이끄는 끈기 있는 팀. 박철순 선수의 인내와 끈기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OB의 특징은 야수진이 탄탄하다는데 있다. 상대팀의 공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도록!

쌍방울 레이더스

꼴찌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도 이제는 게임에까지 승화되어 아름답게 피어난다? 전주 야구의 자존심을 우습게 보지마라! 투수진, 야수진, 타구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하게 여겨지는 팀이지만 당신의 천재적인 두뇌로 이 팀을 훌륭하게 이끌어나간다면 그것도 게임의 재미가 아닐지?

한화 이글즈

장 종훈, 이 강돈, 이 정훈 등 한국 최고의 타자들이 즐비한 한화 이글즈. 올 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팀 이름도 바뀌었다. 그러나 이 팀은 타격해 비해 투수진이 조금 약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다. 이 팀 정도의 조건이면 여러분들에게 축배를 들게 해줄 것이다.

LG 트윈스

이 팀은 국내 유일의 자율야구, 자율스런 분위기로 역시 94년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이광환 감독이 이끄는 이 팀은 투수력과 타력이 가장 잘 조화되어 있는 팀이다. 자! 서울의 자존심! LG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태평양 돌핀스

인천 야구의 자존심. 하지만 서울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서울 팀에게 팬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팀성적마저 부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포의 언더드로 투수 박정현도 있고 군데군데 3할대를 보유하고 있는 타자들도 매력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조합으로 승부할지?

롯데 자이언츠

부산의 명문팀. 80년대 초반 공포의 왼손 투수 최동원을 등에 업고 상위권을 군림했던 야구계의 거두(?)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들어 팀색이 많이 퇴색했다가 작년부터 박동희의 출현으로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는 팀. 역시 박동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선수들의 게임 한마당!!

이 게임은 총 7개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7개의 모드 중에서 실제 자신이 게임을 진행하는 모드는 패넌트 레이스, 개막전, 올스타전 3개의 모드뿐이다. 각 모드 마다 독특하고 특이한 재미는 있으나, 스포츠 게임임으로 전체를 공략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챔프에서는 최고의 게임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혼다와 이 돌컴이 직접 올스타전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둘이 직접 게임을 한 것을 드라마틱하게 엮은 것이다.

이제 야구 상황과 똑같은 게임

혼다와 돌컴은 먼저 옵션 모드로 가서 수비를 수동으로 하고, 바람도 있게 하고 애러도 있게 하고 무승부는 없게 하는 등 현재 한국 프로 야구 룰을 그대로 따라 게임을 진행시켰다.

서로의 승리를 다짐하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서군(이 돌컴 기자 조작)의 용사들!

앗! 그러나 투수가 던지는 볼이 초구부터 데드 볼이 되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더블 스틸을 하는 장면! 화면 오른 쪽 끝에 보이는 모자는 주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직구를 받아친 서군 선수들! 날아가는 공의 모습이 그림자로 보인다

이 게임은 단지 본능적인 게임 감각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상대방이 다음에는 무엇을 던질 것인가? 또 언제 도루를 할 것인가? 다음 타자의 상태는 어떤가 등 실제 여러분은 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야구 감독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또 수동 조작이 되었을 때에는 수비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언제 타이밍을 맞추어 점프를 할 것인가? 혹은 언제 다이빙을 할 것인가가 이 게임을 잘하는 요령이다.

친 타구가 거의 돌컴 군 감독의 수비수들에게 완벽하게 걸리고 만다

다음 공격 때 도루를 하는 모습! 도루를 할 때는 언제나 다이빙을 하는 것이 좋다

공이 날아가는 모습과 주자들이 뛰는 모습들이 모자로 잘표현되어 있다

현재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잔치 한마당!!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옛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의 신인 강타자인 양 준혁 선수 등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게임이 제작되어 관람 모드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실제 야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한다.

또 실제 야구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다. 예를들어 견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든가, 바람의 영향으로 타구의 방향이 바뀐다던가 하는 상황들이 잘연출되어 있다. 또 프로 야구 선수들의 독특하고 특이한 타격 폼이 실제와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 폼만 보더라도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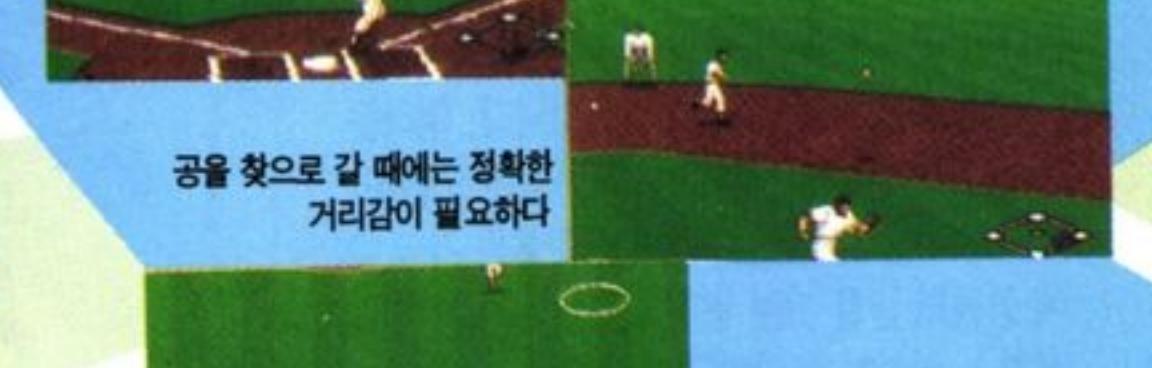
마치 TV를 보는 것같은 화면 연출! 현재는 견제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한국 최고의 투수인 선 동렬 선수! 물론 가장 최근 데이타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다

김 성한 선수의 오리 궁딩이 타법! 어! 이것 너무 똑같네!

맨 뒤에 보이는 현대 전자의 모습. 이렇게 갈끔한 화면에 한글이 나타나다니

국내 제작 게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픽과 사운드!!

타자가 친 공이 원금감이 잘 처리되어 날라

공을 찾으로 갈 때에는 정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큽니다! 뒤로 뒤로! 에! 홈런이에요! 홈런을 쳤을 때에는 잔치 분위기가 연출된다

공이 운동장 밖으로 나갈을 때에도 역시 컴퓨터 조작 선수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뛴다

지금 시간을 보시라! 10 정각! 스포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대 LG의 경기는 LG 트윈스의 9대 0 완봉으로 끝났습니다

음. 오늘 홈런이 두방이나 나왔군! 엉! 아나운서! 지금 뭐하니? 잠을 자다니

그 날 경기 내용이 일간 스포츠 야구란 처럼 잘 정리되어 나온다!

누구나 이 게임을 접한 사람은 한글을 통해서 나오는 자막과 사운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실 경기장의 시원한 잔디 상태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으로 본 잠실 경기장은 실제 상황 보다도 더욱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다.

슈퍼컴보이 한글 팩

「한국프로야구」 발매기념 축하 대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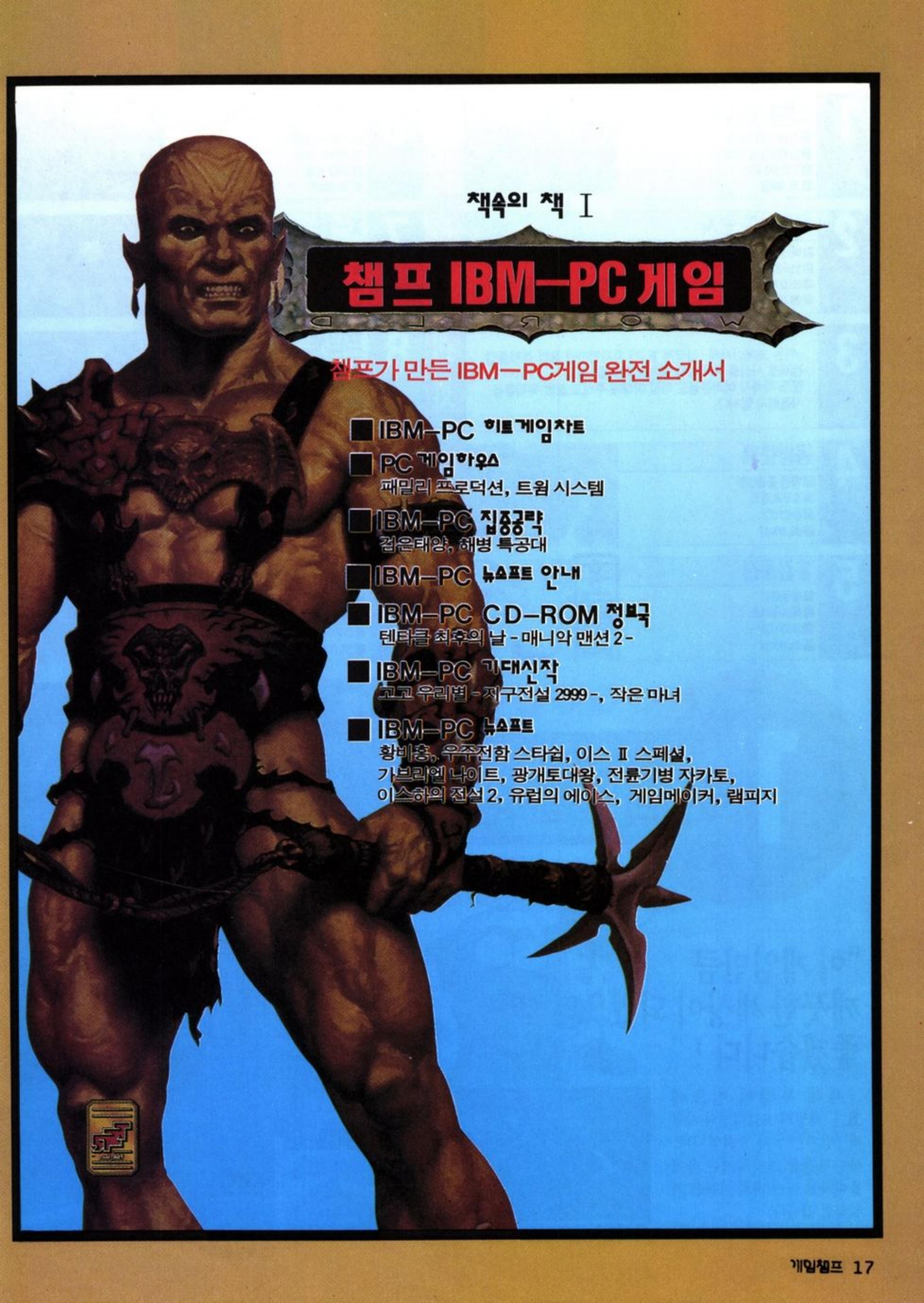
혼다와 돌컴의 쇼킹 선물!!!

안녕하세요!! 혼다와 돌컴입니다. 여러분 방학 중에 건강하신지요! 저희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게임챔프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그런 명작으로 남기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국내 최초로 한글 게임이 개발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슈퍼컴보이 타기 특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각각 슈퍼컴보이 5대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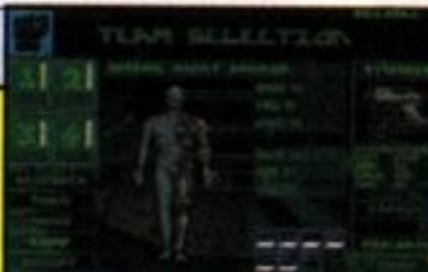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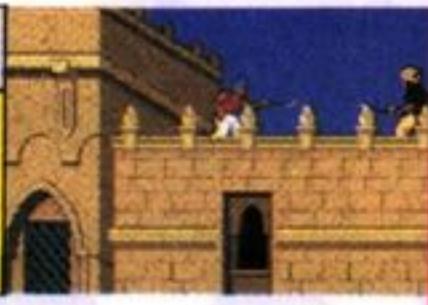
문제 : 한국 프로 야구에 등장하는 구장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잠실 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간 : 1994년 2월 15일까지
발표 : 게임챔프 4월호
방법:부록에 있는 애독자엽서에 정답을 기입하세요.
보낼 곳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16—2 지산빌딩 3층
게임챔프 이 혼다 앞
협찬 : 현대전자

책속의 책 Ⅰ

챔프 IBM-PC 게임

챔프가 만든 IBM-PC게임 완전 소개서

IBM-PC 히트게임차트

1 신디케이트
■전략시뮬레이션
■일렉트로닉 아츠
■3.5인치 5장
■35,000원

2 페르시아 왕자
■액션
■브로드번드
■2HD 5장
■29,000원

3
3위는 코에이사의 「삼국지 Ⅲ」가 차지했지만 불법 복제품인 관계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챔프 애독자 여러분들도 이점 이해해 주시고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지 맙시다.

4 동방불패
■액션 롤플레잉
■소프트월드
■2HD 9장
■33,000원

5 홍길동전
■롤플레잉
■에이플러스
■2HD 6장
■33,000원

6 스트라이크 코맨더
■비행 시뮬레이션
■루카스 아츠
■2HD 10장
■35,000원

7 X-윙
■슈팅 시뮬레이션
■루카스 아츠
■2HD 6장
■35,000원

8 프린세스 메이커
■육성 시뮬레이션
■가이낙스
■2HD 7장
■39,000원

9 아파차차
■슈팅
■미리내 소프트웨어
■2HD 4장
■28,000원

10 오성과 한음
■퍼즐 아케이드
■에이 플러스
■2HD 4장
■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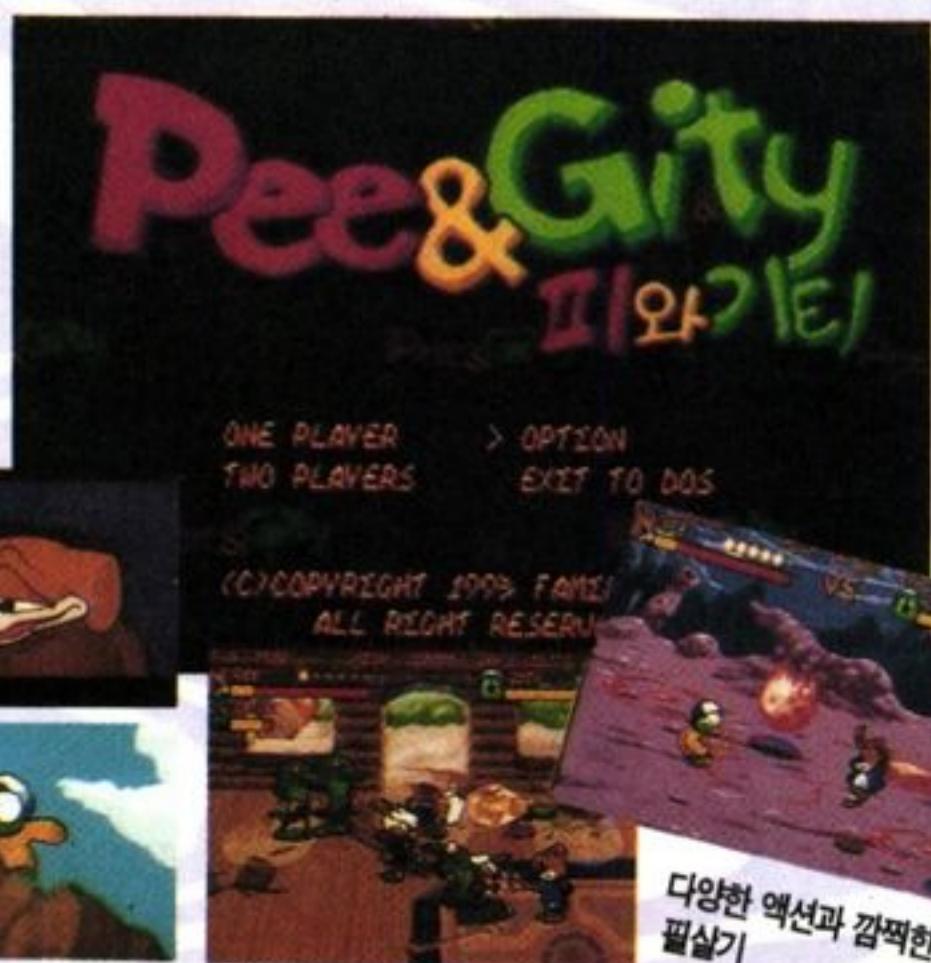
1 PC 게임하우스 패밀리 프로덕션

패미리 프로덕션 가족들

"이 게임만큼 깨끗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패밀리 프로덕션의 자칭 제 1인자(?) 차 승회입니다. 복수무정을 기억하시는 유저들이라면 아마 저희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꼭 깨물어 주고 싶은 캐릭터!

2인 동시 플레이

다양한 액션과 깜찍한 필살기

1중, 2중 스크롤 및 확대 모드

새로이 변신한 적캐릭터 군단!

1994년 2월 7일! 역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 2인용 액션 게임 「피와 기티」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렇게 세수도 안하고 나왔습니다! 5개월 여에 걸친 작업 끝에 게임은 거의 완성되었고, 현재는 비주얼 연결 작업중이예요. 총 5스테이지이고 각 스테이지마다 보스 에어리어를 포함하여 4, 5, 4, 2, 1곳 씩의 에어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SKC 소프트랜드를 통해 유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슈팅 게임 「일루션 브레이즈 —스테레오 어택—」을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1년 전부터 계획중인 던전형 롤플레잉 게임 「카르마」도 4월 경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루션 브레이즈 스테레오 어택—

3차원 비주얼/2인 동시 플레이/8가지 특수 무기 다중 스크롤/스테이지 셀렉트 시스템/서추얼 사운드

카르마

던전형 3차원 뷰 방식의 숙련치와 필살기, 타격 감도 등으로 현실감있는 전투 시스템을 자랑한다

문의처 : 패밀리 프로덕션 (032-872-8033)

2 PC 게임하우스 트윔 시스템

"세상은 내것이요 !! (The World Is Mine)"

트윔시스템(02-704-8946)

죄송합니다! 지난 추석을 목표로 개발했던 액션 어드벤처 게임 「파더 월드」가 예상치 못했던 버그의 출현으로 고전한 끝에 2월 초순 발매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슈팅 일변도의 국내 게임 수준을 과감히 탈피해서! 아작을 내고! 뽕을 빼고! 고선명도의 그래픽과 컴퓨터 사운드가 지원되는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 「파더 월드」로 여러분을 감히! 초대하겠습니다!

2222년 8월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우주 전쟁의 여파로 인한 오존층 파괴도 거의 복구되었다. 이 해는 에이즈 백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우장천 박사의 100주년되는 날이기도 했다.

전쟁도 사라지고 핵무기도 모두 폐기해 버려서 평화롭기만 하던 대한민국 서울… 그러던 어느날, 여의도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여의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과 비행기는 실종되고 통신도 두절되어 버렸다. 대통령은 여의도를 봉쇄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여의도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

이때, TV 채널을 타고 자이누스라는 자가 나타나 블랙홀의 힘을 가장 잘 받는 곳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으며, 조만간 전세계의 인간들이 자신을 숭배하게될 것이라 말하고 사라진다.

대통령의 지시로 조병호 박사를 비롯한 조사팀이 출발하지만 2시간 만에 짧은 구조 요청을 보내고 통신이 두절된다.

조박사의 아들 양민은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2인승 아트버기에 몸을 싣고 여의도로 향한다. 아트버기가 여의도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붉은 노을이 빌딩 허리에 기울고 있었다.

트윔 시스템에는 젊은 혈기가 넘쳐 흐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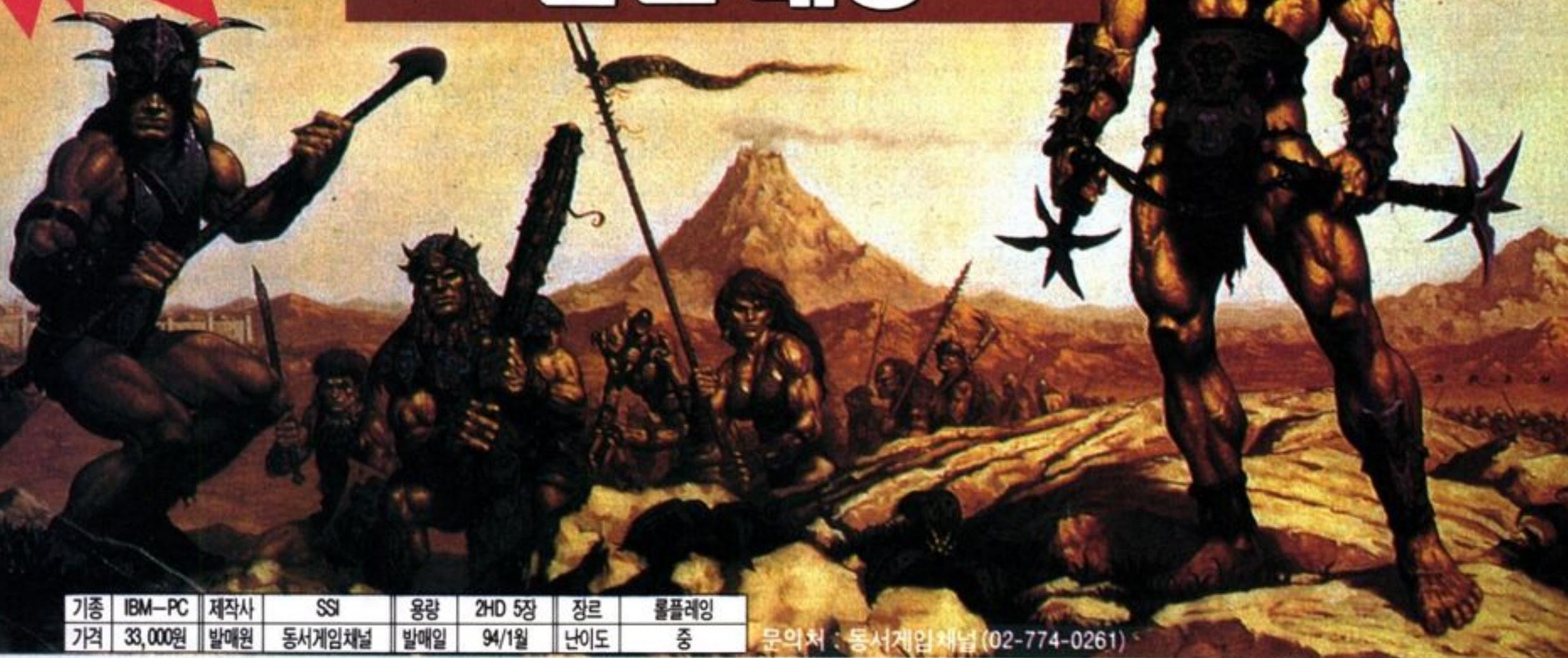
파더월드 게임 사양

/286 이상 기종/조작 : 키보드/VGA 256칼라/2HD 6장 /애드립, 사운드 블라스터 호환 음악카드 /35,000원

주인공 양민의 날카로운 눈매!

그러나 적 캐릭터도 만만치 않다!

IBM-PC 집중공략

DARK·SUN WORLD 검은 태양

기종	IBM-PC	제작사	SSI	용량	2HD 5장	장르	롤플레잉
가격	33,000원	발매원	동서게임채널	발매일	94/1월	난이도	중

문의처 : 동서게임채널(02-774-0261)

액션 롤플레잉의 상승세를 타고 어드벤스드 던전 앤 드래곤(Advanced Dungeons & Dragons)의 2번째 시리즈로서 등장한 필드형 실시간(Real-Time) 롤플레잉 게임 검은 태양이 서서히 그 저주스러운 광채를 토하기 시작한다 !

아다스(Athas)의 이야기

수천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평화를 구가하던 행성 「아다스」. 그러나 사악한 마법사들은 행성 생명의 근원을 끌어내어 자신들의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이용하려는 음모를 꾀한다. 그들은 찬란하던 태양을 미친 듯 타오르는 검은 불덩이로 만들어 버렸고, 그로 인해 바다는 모두 증발해서 거대한 진흙 구덩이만 남게 되었다.

엄청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아다스의 생명체들은 괴물로 변해가거나 마법사에 의해 세뇌되어 생존자들을 괴롭혔다. 결국 아다스에는 철저한 통제만이 지배하는 도시 템플라(Templars)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광란의 종교조직 템플라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By order of the Mighty and Omnipotent King Tectuktitlay, all slaves fit to carry a sword shall fight in the arena. Death shall be the gladiators' payment for weak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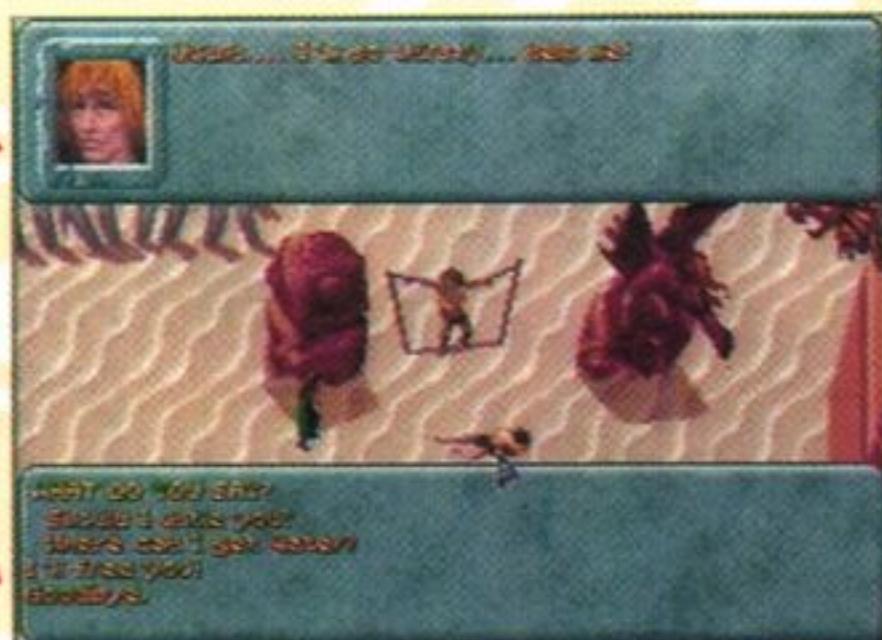
Let the games begin!

왕의 편지

그 참혹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일부가 탈출하여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황무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각난 땅(Shattered Land)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은 택턱티틀레이(Tectuktitlay) 왕이 다스리는 드래지(Draj)라는 도시 주위에 있었다.

게임에 앞서 주의사항 !

이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여한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 역시 여러가지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서너가지가 있어서, 결과는 같지만 대화의 내용이나 행동에 따라 스토리 전개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벤트는 해결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험치의 획득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이벤트를 겪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 설명하게 되는 게임의 줄거리는 필자가 "엿장수 맘대로" 플레이 한 과정이고 엔딩을 보기 위해 필요한 이벤트들을 주로 다루었으므로 굳

이 똑같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맵 이동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지도를 그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 이 게임은 메뉴 아이콘 방식이기 때문에 메뉴 사용법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게임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명령을 키 하나로 내릴 수 있는 핫키(Hot Key)들을 익히는 것도 「검은 태양」 박사가 되는 지름길이다.

핫 키를 익히자!

1. 인물 작성

게임을 실행시킨 후 바로 「START GAME」을 선택하면 이미 구성된 인물들로 플레이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을 만드는 편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주메뉴에서 「CREATE CHARACTERS」를 선택하고 비어있는 인물 슬롯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자.

주메뉴

2. 종족과 성별

인물의 사진이나 인물 아이콘을 클릭(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름)하면 종족과 성별이 바뀌는데 종족마다 각각 능력(힘, 지능 등)의 초기 최대치에서 차이가 나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다르므로 신경써서 선택하자.

보통 종족은 성별에 따른 능력차이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뮬즈(Muls)라는 종족은 남자만의 종족이고, 트리 크렌(Thri-Kren)은 여자만의 종족이다.(여자라기보다 괴물!)

사마귀처럼 생긴 트리크렌

3. 직업

이 게임에서는 최대 3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승려 전사나, 도둑 검사같은 …) 그러나 겸직할 수 없는 직업도 있으니(승려와 성직자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여러번 시험해 보고 결정하자. 각 직업에는 필요로 하는 능력치들이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야만 선택할 수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쓸 수 없는 아이템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4. 마법 영역

마법사(Preserver)나 초능력자(Psionicist)들은 그들이 구사하는 마법의 영역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영역을 선택하자.

5. 주사위

인물의 능력 수치를 무작위로 결정해 준다.

6. 능력 수치

각 능력치는 마우스의 버튼으로 조절하며 전부 최대치로 올릴 수도 있다.

7. 성격

인물의 성격은 사람들과의 대화나 마법 아이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데 보통 착한 쪽을 많이 고르게 될 것이다.

인물작성 화면

8. 마법

이 게임의 마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직업 종류에 따라 다섯 등급씩의 마법과 초능력들이 있는데 자신이 쓰기 좋은 것만 어느 정도 익히면 되고, 필요에 따라 매뉴얼을 참고해 가면서 플레이하면 된다. 일정한 경험치가 모여서 레벨이 오르면 새로운 마법들이 저절로 습득되는데 마법사나 성직자는 지능이 높아야 고급마법을 익힐 수 있다.

다양한 마법을 습득하라!

자유를 위한 여행의 시작!

격투장에서의 일과

격투장에 들어가는 주인공

주인공 일행은 석투장(Arena)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나운서가 지금 다른 투사들이 싸우고 있다며 그들의 전투가 끝나면 싸우라고 명령한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몇마리의 괴물이 나오는데 첫 전투이니 만큼 마법도 써가면서 가볍게 끝내자.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으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동료도 있을 것이다.

너무 잘 싸우면 다른 괴물을 덤으로(?) 더 내보내 준다. 격투가 끝나면 관중이 돈을 던지는데 집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자. 아나운서가 말을 걸 때 대답하지 않으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더 싸우고 싶다면 아나운서에게 시비를 걸자. 싸울 상대는 얼마든지 있다. 격투장 오른쪽에 묶여있는 사람이 물을 달라는데 물이 없으니 다음 기회에…

아나운서… 바보같은 놈!

격투장에서의 대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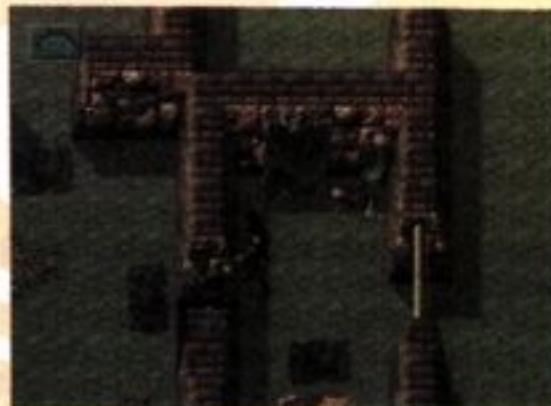
감옥에 들어가면 간수장인 컬작(Kurzak)이 감방으로 안내해 주는데 말을 걸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준다. 감방으로 들어가면 웬 사람이 통로를 후다닥 뛰어간다. 이름은 트러스티(Trustee)인데 감방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트러스티도 약간 맛이 갔다 !

특히 디노스(Dinos)에 대해 물으면 만나고 싶냐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열쇠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한다. 남쪽에 있는 잠긴 문을 열어주고 또 후다닥 뛰어간다.(바보인가?) 디노스는 요리사로 꽤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 감방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니 다 들어보도록 하자.

디노스의 방

이제 감방을 시찰하는 기분으로 왼쪽 위부터 훑어 내려가자. 문이 닫힌 방이 있는데 노크를 하면 열린다. "역시… 매너가 좋군!"하며 들어가면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옆방에서 누가 뛰어 넘어와 공격을 한다. 한방에 보내버리고 왼쪽 위를 보면 스위치가 있다. 그것을 누르면 비밀문이 열리고, 상자를 뒤지면 화살과 돈이 있다. 윗방의 관에는 보석도 있다. 이것을 이용해 밀런과 탈출을 모색할 수도 있다.

바로 아랫방으로 들어가면 밀런(Mirlon)이라는 남자가 있다. 탈출을 하자며 뇌물로 쓸 보석을 가져오라는데 격투장의 셈욘(Semyon)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까 트러스티가 한 말을 기억한다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생을 금 5개에 팔아 넘긴 놈이 어련하려구!

비밀의 방

감방의 홍일점 길롤 !

캠프장 건너편 방에는 길롤(Gilal)이란 여자가 있다. 탈출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일단, 방을 나와서 아직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트러스티에게 물이 어딨냐고 물으면 여기 어딘가의 빈 물통을 디노스에게 주면 물을 줄거라고 한다.

물통이 있는 방의 건너편에는 수군대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 머즐(Merzol)이란 자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면 상당히 위협적으로 나온다. 건초더미가 수상해서 조사하려 하면 싸움을 걸어온다. 역시 간단히 처치하고 나면 건초에서 돈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이 많으면 다른 건초도 뒤져보자) 건초를 건드리지 않으면 머즐과 함께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다.

캠프장

머즐네 방

디노스에게 가면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길롤에게 데려다 달라고 한다. 그는 템플라가 그녀에게 주문을 걸었다며 그녀의 두통을 고쳐준다. 길롤에게 말을 걸면 아주 고마워하며 하수구로 나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준다. 그녀는 한번 도망갔던 경험이 있는데 템플라에 의해 기억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디노스에게 가면 오른쪽 방에 물통이 있으니 거기서 물을 받아가라고 한다. 이제 물도 얻었으니 휴식을 취하자.

감옥에서의 탈출 !

휴식을 취하면 컬작이 싸우러 나가라고 한다. 간단히 해치우고 저번에 봤던 묶여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을 주자. 그가 바로 셈욘인데 말을 걸면 자기는 베일드 연합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한다. 우리가 바로 셈욘에게 연합의 일원이라고 말하면 그는 좋아하면서 이곳의 동정을 살피고 있겠다고 한다.

감방으로 돌아가서 남서쪽에 있는 스카(Scar)에게로 가자. 그는 감방 최고의 투사이다. 몇번 더 싸우고 오라고 하

묶여있는 셈욘

는 수가 있는데 그대로 하자. 그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틈을 봐서 도망가자고 한다. "음… 탈출 계획이 슬슬 잡혀가는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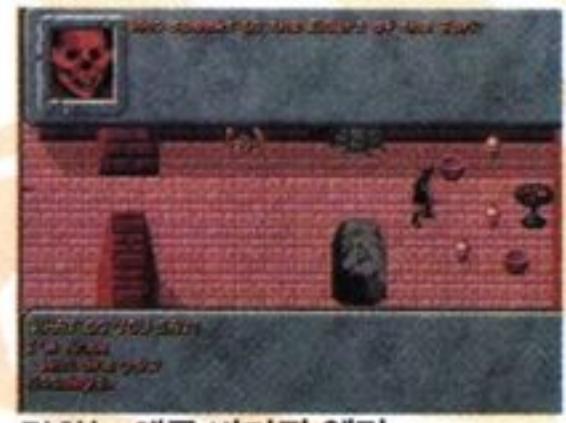
다음날 격투장에 가면 약속대로 스카와 아이들(?)이 우리의 상대로 나온다. 그에게 도망가자고 하면 서쪽에 통로가 있으니 셋을 세면 달리자고 말한다.

탈옥하는 주인공

간수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모두 처치하고 주위의 것들을 닥치는대로 뒤져서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레벨이 몇번 올랐을테니까 새로운 마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매뉴얼을 보고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익히자!) 아까 길롤이 말한대로 북서쪽 끝의 맨홀로 들어가자.

갑자기 쥐같이 생긴 녀석이 와서 돈을 달라는데, 절대 못준다고 하면 그냥 보내준다. 그는 이 하수도에 대해 몇가지 정보를 주고 그들의 대장인 쳐르(Churrr)를 만나보라고 한다. 바로 윗쪽에 있는데 그는 타리(Tari)라는 종족이 하이 워렌(High Warren)과 로우 워렌(Low Warren)에 나누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 하이 워렌을 공격하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하는 태도가 수상하므로 싫다고 하자. 그는 또 미케츨(Mikquetzl)이 타리들을 현혹시킨다며 있는 곳을 알려준다.

미케츨은 희생이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하이 워렌 족장의 딸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데 모두 해치운 뒤 문 옆에 있는 막대기로 손잡이를 돌리고 족장의 딸을 구하자.(근데 너무 못생겼어!) 그녀는 미케츨이 사원을 공격한다며 아버지께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뭔가 급한 모양이다. 약간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고 올라가면 파수꾼이 족장을 만나게 해준다. 족장은 고맙다고 하고, 미케츨의 부하들이 사원을 공격한다며 도와달라고 한다.

모두 무찌르면 좋은 투구를 하나 주니까 열심히 하자. 아까 그 막대기로 문을 열고 사원에 들어가면 해골이 세개 있는데 이들이 엘더(Elder)들이다. 다골라(Dagolar)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아무래도 위험한 인물같다. 엘더들은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하수구를 뒤져서 지팡이(Staff of Parting)를 하나 갖고 엘더가 가져가라는 그릇을 가지고 나오자.

캠프장이 있으니 휴식을 취하고 지도상의 맨 위로 가서 슬라임들과 싸우며 동쪽으로 가자. 맨 오른쪽으로 가면 물이 괴어있고 창살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팡이를 사용하면 물이 빠지면서 다골라의 지하 실험실로 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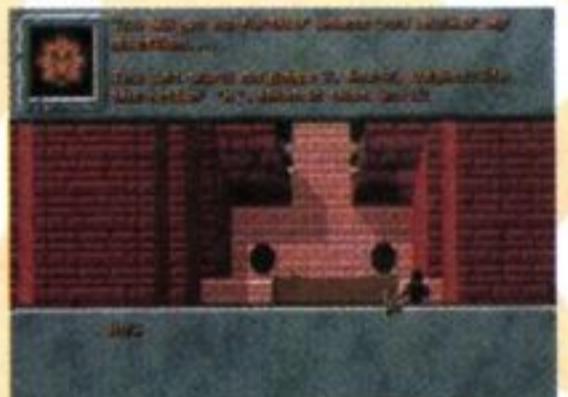
맨홀

감격적인 부녀상봉!

쥐의 몰골을 한 타리

말하는 해골 바가지 엘더

다골라의 지하 실험실

여기서 웬 용이 암호를 물어오는데 제대로 입력하면 다음에 또 온다며 사라진다(다음에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

암호를 물어보는 용

지하로 내려오자마자 모우(Mow)란 녀석이 다골라를 죽이는데 협력하겠다며 따라온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병사 4명이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목걸이를 빼앗아야 한다고 한다. 빼앗은 목걸이를 걸면 눈알의 문이 통과시켜 준다. 안으로 들어가면 켈다르(Keldar)란 녀석이 죽으러 잘 왔다며 책에다 뭘 마구 적는다.(사망자 명단 적는건가?) 그리고 자기는 순간 이동으로 사라지고 괴물들을 부른다. 아니, 이렇게 비겁할 수가!

지도의 중간쯤의 어떤 방에

비겁한 켈다르

들어가려고 하면 모우가 말리는데 그래도 들어가자. 좀비가 한마리 있지만 우릴 해치지는 않는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데 안타깝게도 괴물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 그는 편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형제에게서 받은 편지같다. 그는 우리를 따라가겠다는 몸짓을 하는데 방에서 나오면 모우가 그를 보더니 질겁을 한다. 좀비가 가까이가자 모우는 다골라로 뿅하고 변하는데 좀비를 피하는 것 같다.

좀비는 바로 다골라였다!

조금 들어가면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 그냥 무심코 말을 거니까 우리가 건 목걸이의 힘이 그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목걸이를 풀고 옆방의 사람에게 말을 거니 제발 다골라를 없애달라고 한다. 이제 곧장 다골라에게 가자. 다골라를 보자 좀비가 다가가는데 다골라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말린다. 그러나 좀비는 그에게 팔을 벌리고 계속 다가가서 먼지로 변해버린다. 다골라는 우리가 그를 죽게 했다며 복수를 하겠다고 한다. 그는 슬라임을 부르는데 숫자가 많아서 좀 힘들 것이다.(슬라임의 인해전술!)

이젠 자유의 몸인가!

다골라의 실험장을 나와서 약간 서쪽으로 간 뒤 하수구 구멍(Sewer Drain)을 뒤지면 비밀문을 여는 손잡이가 있다. 거기로 나가면 농장이 있고 늙은 노예들이 일을 하고 있다. 노예는 늙은 애꾸눈을 찾아가라고 한다.

노예 농장

그는 지도상의 중앙에 있다. 어떤 노예는 함께 탈출시켜 달라고 한다. 애꾸눈에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두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쌈박질엔 자신이 있으니 정문 돌파를 하도록 하자. 문 앞의 경비병을 해치우면 애꾸눈은 좋은 구경했다며 선물로 마법 스크롤을 하나 주면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한다.

이제 정말 완전한 탈출을 한 것이다! 아까 그 노예가 고맙다며 혼자 가다가 갑자기 "모래가 움직였어!"라고 하고는 모래 괴물에게 당한다. 음… 역시 황야는 무서운 곳이야. 가끔 병사들도 여러명씩 몰려 다니니까 주의하자.

시체가 하나 있는데 그의 몸에서 나오는 편지를 읽어보면 텍텍티틀레이의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고 하는 라작(Rajak)이란 사람의 전갈이다. 옆에 에그러스(Egrus)하는 노인이 캠프를 치고 살고 있는데 북쪽에 티케츨(Teaquetzl)이란 마을이 있다고 알려준다.

황야의 캠프

정면 돌파!

티케츨 마을로 출발!

북쪽으로 가면 티케츨 마을이 나온다. 경비병이 누구냐고 묻는데 쉴 곳을 찾는다고 하면 촌장인 캐흘(Chahl)을 만나보라고 한다. 그는 북쪽의 큰 건물에 있는데 우리를 기다렸다며 반긴다. 오잉? 역시 영웅은 어디서나 알아준다니까! 비저너리(Visionary)가 우리들을 예언했다며 만나보라고 한다. 또 텍텍티틀레이 왕의 토벌군과 싸우기 위해 다른 투사 마을에 도움을 청해 달라고 한다. 그럼 이제 마을을 돌아보자.

티케츨의 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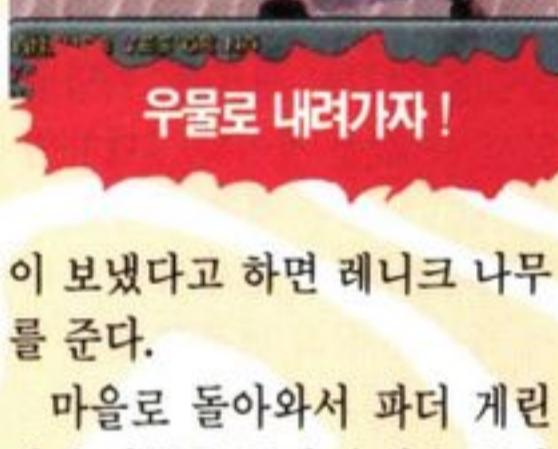
비져너리는 우리에게 로드의 막대기(Llod's Rod)라는 것을 주는데 이것은 순간 이동 장치로써 오벨리스크라는 구멍이 뚫린 큰 돌기둥에 알맞은 보석을 끼워놓으면 그 장소로 언

로드의 막대기

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마을에는 방어구 상점, 무기 상점, 활 전문점이 있으니 작은 보석이나 필요없는 무기 등을 팔고 새로운 무기를 사자.(아마 지금까지 얻어온 무기가 더 좋아서 살게 없을 것이다) 마을에는 파더 게린(Father Garyn)이란 마법사가 있는데 무슨 용액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레니크 나무(Ranike Tree Pith)르 구해 달라고 한다.

마을에서 나와 동쪽으로 가보면 붉은 모래 지대(Red Sand Area)가 나온다. 알게논(Algenon)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법 아이템들의 용도에 대해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건 물어보자. 지도 중간쯤에 노타크(Notaku)에게 가서 파더 게린

마법사 파더 게린

우물로 내려가자!

이 보냈다고 하면 레니크 나무를 준다.

마을로 돌아와서 파더 게린에게 나무를 주면 용액을 주면서 그걸 다시 게드론(Gedron)에 사는 리나라(Linara)에게 전해 달라고 한다. 마을 가운데에는 우물 기술자인 도미니(Dominy)가 있다. 우물물을 마시다 보면 물이 없어지는데 그리로 내려갈 수가 있다.

거기엔 티난(Tynan)이라는 그림자가 있는데 자신은 재(Ash)의 사원의 주인이었다고 하며 두개의 하트 크리스탈(Heart Crystal)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그림자 티난

게드론 마을로 가자!

게드론 마을

가는 길에 노타크에게 들러서 돈을 받으면 또 다른 일을 하겠냐고 한다. 맡던 안맡던 여러분의 자유이다. 북쪽으로 가면 경비병들이 있는데 싸우지 말고 잘 얘기하면 돌아간다. 더 올라가면 노예들을 잡고있는 경비병들이 있는데 곧 정체를 알아보고 무더기로 공격을 한다. 모두 처치하고 노예들과 이야기하면 게드론이나 티케츨 등에서 잡혀온 사람들인걸 알 수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웬 메시지가 있는데 그는 방해하지 말라며 무조건 공격해 온다. 처치하고 몸을 뒤지면 편지가 있는데, 우리가 도망쳤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북동쪽으로 가면 게드론 마을이 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정신이 나갔는지 이상한 소리만 해댄다. 북동쪽에 리나라에게 가서 용액을 건네주자. 그녀는 윌미어스(Wyrmias)가 마을 사람들을 조종한다며 도와 달라고 한다. 시장에게 가면 그도 역시 이상한데 갑자기 윌미어스가 그를 조종해서 말을 걸어온다.

자기는 수집광이라면서 영문도 모를 조각상을 2개 구해오라는 것이다. 에휴~ 귀찮아! 이것저것 부탁하는 사람이 왜이리 많지? 그래도 갖다 주면 마을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려준다니 찾아주기로 하자.

조각상을 찾아서

북쪽에 가면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장인 아란트(Arant)와 얘기를 하면 투사들을 사겠냐는데 값을 흥정해서 8000 세라믹에 사자. 투사들에게 가면 자신들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자신들의 게드론 마을을 구해달라고 한다. 동쪽으로 가면 이상한 거인들이 드럼을 치며 무슨 의식을 하나본데 우리더러 떠나란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 남쪽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괴물을 피해 도망치라고 하는데 까짓 괴물 죽이면 되지뭐!

드럼치는 거인들

아래로 가보면 썰란(Ssurran)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조각상을 사자. 돈이 없다면 마법검을 줄 수도 있다. 다시 드럼을 치고있는 거인들이 있는 곳에 가자. 아래쪽에 끊어진 다리가 있는데 거인들의 캠프에서 그래플(Grapple)을 주워다가 다리를 잇자. 다리를 건너 북쪽으로 가면 쟈스민(Jasmine)이란 여자가 있는데, 바로 리나라의 동생이다. 이 때쯤 주책없이 괴물이 나타나니 처치하도록 하자.

마을로 돌아가서 조각상을 윌미어스에게 주면 그는 자신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그를 죽이면 옆에 있던 조각상이 움직이며 자신은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내줄 수 없지! 쫓아가서 처치하자.

「Psionic Blast」 마법을 쓰면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시장에게 드래즈의 군대에 대항할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한다. 마을 중앙에 우물이 있는데 티난의 사원과 통하는 곳이다. 들어가 보면 아포즈

다리를 잇자!

(Aposs)가 있는데 전에 티난의 말을 생각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상인 마을 엘비시 캬라반

마을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계속 가보니 땅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있다. 길을 따라 걷는 마리스(Maris)란 사람이 있는데 함께 따라가 보면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면 엘비시 캬라반(Elvish Caravan)이라는 상인 마을이 있는데 좋은 물건들도 있으니 장만하도록 하자.

그곳의 캬라반 마스터(Caravan Master)인 드라이사나(Drisana)가 상인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내키면 도와주도록 하자. 이 마을의 캠프에는 여행자들이 쉬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으니 마을에 올 때마다 들르도록 하자.

엘비시 캬라반

캬라반의 캠프

황야를 돌아다닐 때 군대와 자주 만날 것이다. 대개 우리를 찾고 있는 병사들이거나 토벌군들인데 힘이 약하다면 피해 다니도록 하자. 붉은 모래 지역

보물을 파는 상점에서 큰 보석을 사다가 오벨리스크에 끼우면 언제든지 이곳에 돌아올 수 있다.

세드릴트 마을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땅의 서쪽으로 가보면 와이번(Wyvern)과 도적(Bandit)들이 세드릴트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을 물리치면 주민이 와서 촌장인 샤야(Chaya)를 만나게 해 준다.

티케츨과 연합하자는 말을 하면 자기들도 사정이 어려워서 이방인을 믿고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사심없이 도둑을 물리쳐 준다고 하면 우리의 의협심에 놀랐다며 크리커(Krikor)라는 전사가 길을 알지도 모른다고 한다. 게다가 도둑의 성은 천연 요새와 같아서 길을 모르면 날아다니는 법을 배워야 할거라나?

크리커에게 가면 귀찮다는 듯 잘 얘기해 주질 않는데 자꾸 조르면 따라오라고 한다. (으하하! 찰거머리 작전 성공!) 따라가 보면 웬 돌을 보여주고 가는데, 그 돌을 살펴보면 비밀 입구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와이번

세드릴트 촌장 샤야

도둑의 성 입구

거미의 나라

입구에서 동쪽으로 가보면 마인드 홈(Mind home)종족이 있는데 악한 거미(Dark Spider)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서쪽으로 가보면 아웃 캐스터(Outcaster)라는 마법사가 자신의 저주를 풀어 달라며 로프(Rope)를 준다. 로프를 직접 보기 아이콘으로 사용하면 거미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 거미 병사가 한명 있는데 아무 짓도 안하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준다. 북쪽으로 가서 거미 여왕을 만나자. 여왕은 곰팡이가 골치라며 없애달라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듯한 기세이니까 들어주겠다고 하자.

아래로 나와보면 거미 왕자가 있는데 그는 여왕 거미가 통치를 엉망으로 한다며 함께 여왕을 물리치자고 한다. 그러기 전에 우선 곰팡이의 근원(Entity)를 제거해야 한다. 아웃 캐스터에게 물어보면 서쪽으로 가보라고 한다. 왕자를 만난 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벽이 얇은 곳이 있는데 부숴버리고 방안을 조사하면 근원의 제거에 관한 힌트를 누군가가 죽기 전에 남겨놓았다는걸 알 수 있다. 땅에 떨어진 목걸이들을 걸고 아이템을 모두 찾아 가지고 서쪽 끝의 곰팡이 숲(?)에서 맨 구석으로 가보면 이상한 구멍이 있는데 아까 방에서 구한 다른 목걸이로 막도록 하자.

거미 여왕

이제 왕자와 함께 여왕을 쳐부수러 가자! 왕자가 죽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어떤게 왕자인지 여왕인지 구분도 안되지만…) 아웃 캐스터에게 돌아가면 답례로 강력한 갑옷을 준다. 왕자는 마인드 홈 종족과 잘 지내고 싶은 것같으니 데려다 주면 서로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마인드 홈 종족들은 우리를 성 입구로 안내

성으로 들어가면 경비병이 있으니 조심해서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성의 북서쪽으로 가면 바람의 승려(Wind Druid)가 있다. 그는 타라(Tara)라는 여자 마법사를 물리쳐야 한다며 와이번의 갈고리(Wyvern Hook)가 필요하다고 한다. 남쪽의 도적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다며 문열쇠를 가져가라고 한다.

도적 두목은 우리에게 돈벌이 좀 하겠냐는데, 그런게 있으면 혼자 찾아서 다먹지 뭐하러 나눠먹는가 싶어 거절하고 처치해 버렸다. 왜냐고? 세드릴트 마을 촌장의 부탁이니까!

그에게서 와이번의 갈고리

를 가져다가 바람의 승려에게 주자. 그러면 그는 바람약(Wind of Potion)을 주면서 이것만이 타라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 알았어요 승려아저씨! 근데 입 좀 다물고 얘기하지… 침이 많아 튀는군! 어쨌든 북동쪽의 방에 타라가 있으니 쳐들어 가자! 아니…너무 이쁘잖아? 그냥 공격하면 깔깔대면서 사라지는데 바람약을 사용해야만 없앨 수 있다.

바람의 승려는 고맙다며 1층에 보물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한다. 1층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문장(Sigil)이 있는데 바람약으로 없애자. 풀려난 사람들이 고맙다며 뱀장화(Serpent Boots)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 그걸 신고 남동쪽으로 가서 괴물을 물리치고 벽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조사해 보면 비밀문이 있다. 들어가면 보물과 매우 강력한 칼이 있다. 이제 세드릴트로 돌아와 동맹을 맺고 샤야에게 마법 팔찌도 받자.

연합의 완성!

티케츨에 돌아가면 촌장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며 우리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한다. 이제 드래즈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사건해결의 순서를 다르게 했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막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과도 동맹을 맺어야 하는 수가 있다.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해결하기 바란다. 캠프가 있는 집에 가서 상자를 보면 촌장의 선물이 있다. 휴식을 취하고 나가려고 하면 비져너리가 달려와서는 우리의 군대가 질게 뻔하다며 고대 도시로 가서 무슨 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마을을 나오면 바로 고대 도시이다. 입구에는 설론(Psurlon)이라는 고대 생물이 있는데 땅속에 묻힌 고대 도시는 지니(Ginie)를 찾아서 원상복구 시켜야 하고 크래그(Cragg)를 찾아서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같은 것인데 드래즈와의 싸움에 꼭 필요할 것 같으니 찾도록 하자.

고대 도시

크래그는 북쪽으로 꼬불꼬불 들어가면 있는데 그는 설론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니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에 쓸거냐고 하는데 악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좋다고 하면서 우선 자기의 시체를 가져다 달라고 한다.

그의 시체를 구하려고 하면 괴물들이 방해를 하는데 상관말고 북서쪽 끝으로 가자. 시체에 가까이가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순간이동 장치가 나온다. 그 위로 올라가면 도시의 동쪽으로 가는데 그 북쪽 끝에는 진짜 시체가 있다. 이것을 구해서 크래그에게 주면 그는 시체를 관속에 넣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면 드디어 지니와 여러 선물을 주고 사라진다.

호리병 같은 것을 만지면 지니가 나와서 자기 주인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세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 각자 알아서 아무 소원이나 빌도록 하자. 당장 소원을 빌 필요는 없으니 잘 생각 해보는 것도 좋을게다.

최후의 결전

고대 도시를 나오게 되면 드래즈와 바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첫 부대는 쉽지만 두번째의 엘리트 부대는 정말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숫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보통 공격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힌트를 좀 준다면 게임 메뉴에서 셋팅모드로 들어가 난이도를 쉬움(Easy)으로 하고, 전투가 시작되면 「Entangle」 마법같이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법을 쓴 뒤 엘리멘탈(Elemental)을 불러서 적들 가운데 투입하고 각개 격파 작전으로 나간다면 가까스로 이길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음… 너무 어려운가?" 운도 따라야 하니까 여러 번 도전해 보기 바란다. 감격의 엔딩은 바로 여러분의 눈 앞에 있는 것이다!

엘리트 부대의 대장

아직도 태양은 검다!

이제 드래즈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엔딩이 나온 뒤에도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을들을 돌아다녀 보면 검은 태양의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가보지 못한 마을들도 지금 가볼 수 있다. 원래 이 게임이 처음 발매되었을 때는 엔딩 화면이 게임의 끝이었으나 프로그래머의 배려로 재판되어 국내에 발매된 게임은 이런 엔딩 뒤의 뒷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분석을 끝마치며…

방대한 스토리! 풍부한 이벤트! 복잡하지만 매력있는 구성! 깨끗한 그래픽과 사운드 등등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낯설지않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정통 롤플레잉 매니아라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인 만큼 난이도가 조금은 높은 편이지만 울티마, 위저드리 등 기존의 롤플레잉에 식상한 사람이라면 꼭 해봐야할 게임이란 생각이 든다. 이상 "엿장수 맘대로"의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해병특공대 (SEAL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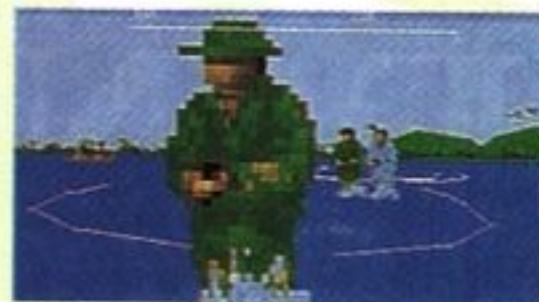
기종	IBM-PC	제작사	일렉트로닉 아츠	용량	3.5인치 2장	장르	시뮬레이션
가격	33,000원	발매원	동서게임채널	발매일	94/1월	난이도	중

386 이상 기종
(EMS 1메가 이상)
/그래픽 카드 : VGA 이상
/사운드 카드 : 애드 립,
사운드 블래스 터,
미디-200 계열

귀신잡는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

해병 특공대는 시뮬레이션 장르이면서도 가상의 사물이나 기계가 아닌 인간 자체를 사물화 시켜서, 그 주체인 인간이 처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가상 군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장르의 게임은 많이 등장한 바 있다. 「레이저 스쿼드」라든지 「블루 포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지지도가 높은 만큼 시뮬레이션 팬들의 구미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해병 특공대여 베트남을 진압하라!!

베트남에서의 전투가 점점 치열해만 지는 1970년의 어느날, 여러분들은 해병특공대 「실팀」에 지원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게릴라가 되어 포로를 구출하고 적 기지나 기관을 파괴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칠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대원들을 잘 이끌면서 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해야 한다.

당신의 앞에는 오직 힘겨운 적들과 울창한 밀림만이 존재할 뿐이다. 얼마 안되는 무기로 적들과 싸워 살아 남아야 하는 것이 제군의 과제인 것이다!!

주목! 메뉴에 대해 설명하겠다!!

주메뉴(MAIN MENU)

처음 등장하는 메뉴로써 이 게임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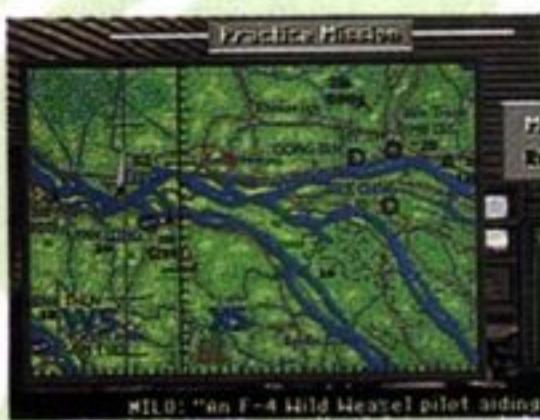
1-스타트 캠페인 (START CAMPAIGN)

-미션을 시작할 때 선택한다

2-컨티뉴 캠페인 (COUNTINUE CAMPAIGN)

-자신이 해왔던 미션을 계속 수행한다

3-연습 과제 (PRACTICE MISSION)

-연습 모드이지만 난이도가 높다

이 모드로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실 트레이닝 학교(SEAL TRAINING SCHOOL)

1. 프리비어스 리쿠르트 (PREVIOUS RECRUIT)

자신이 택한 부대원의 뒤부터 본다

2. 넥스트 리쿠르트 (NEXT RECRUIT)

자신이 택한 부대원의 앞부터 본다

3. 스타트 캠페인 (START CAMPAIGN)

차출한 후 다음 메뉴로 간다

4. 1966

부대원을 바꾸는 메뉴이다. 물론 년도가 바뀌면 시대 상황과 미션의 종류도 달라진다

자기와 생사를 같이 할 대원들을 고르는 메뉴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차출하도록 하자. 처음 메뉴에 들어오면 미 해군 진군가가 당신의 귓전에 울려퍼질 것이다.

인텔 브리핑 (INTEL BRIEFING)

당신의 부대원과 수행할 지역의 지도를 보며 포괄적인 브리핑을 받는다. 메시지는 전체 미션의 요약과 같은 것이므로 주의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NEXT」를 누르면 다음 메뉴로 전환된다.

미션 브리핑 (MISSON BRIE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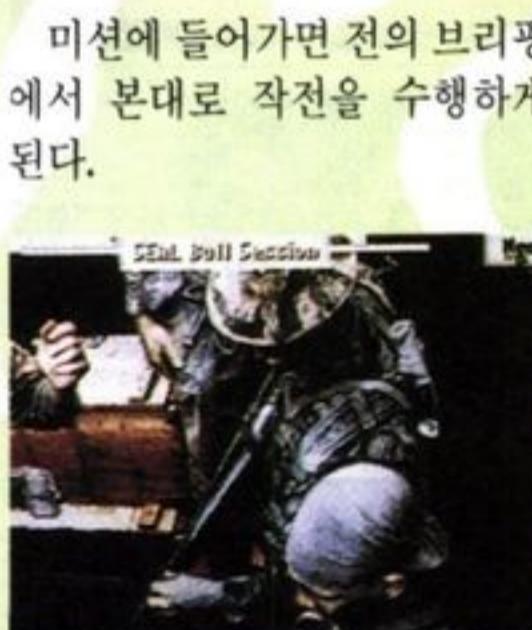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미션의 내용과 적 지역의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적군의 수, 벙커의 위치, 귀환 기지까지의 경로를 자세히 알려준다.

1-정찰 임무(PATROL ORDER)

전체적인 임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전투의 목적, 첫번째 임무, 두번째 임무, 작전 지역의 기후나 적군의 화력, 지원 체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2-지급 명령 (MARCHING ORDER)

자신의 부대원에게 무기를 지급하는 명령으로 무기는 장탄수가 많은 것과 그레네이드 런처 등의 위력있는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류탄은 한꺼번에 적을 섬멸할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초반에는 중화기 계열의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션 완수는 해병대의 생명이다!!

미션에 들어가면 전의 브리핑에서 본대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전투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므로 그 미션은 지도에 따른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미션의 내용은 대부분 매복(Ambush), 정찰(Patrol), 완전 초토화(Demolition), 구출(Rescue) 등이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자신의 소대가 진행할 위치가 화살표로 나타난다.

1. 실팀(seal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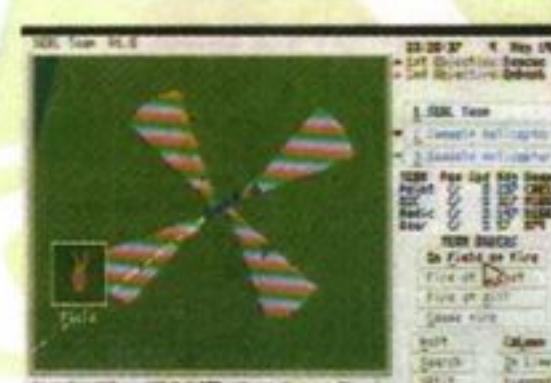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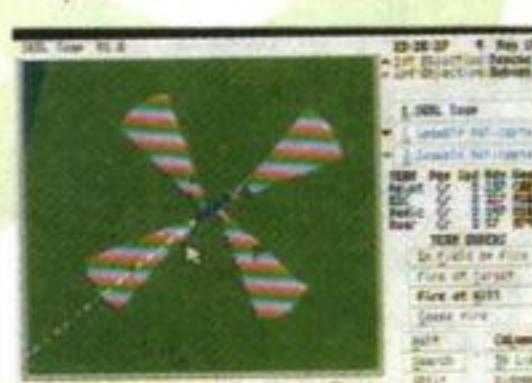
실팀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2. 보트 지원 유니트 (boat support unit)

부대가 타고 온 보트에 대해 명령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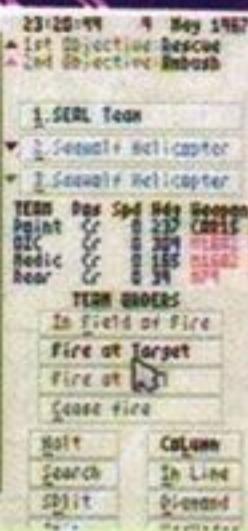
3. 씨 울프 헬리콥터 (seawolf helicopter)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헬기에 대해 명령을 내린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필드 사격(in field of fire)

벌판에 매복하여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해 사격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리 필요한 명령은 아니다.

핫 키(Hot Key)는 「F자」를!!

목표 사격(fire at target)

전투 화면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게임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을 포인트 맨(Point Man)이라 하며,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즉 소대장인 셈이다.

이 명령은 포인트 맨이 된 상황에서 시점에 잡힌 목표물에 대해 집중 사격을 하라는 명령으로, 포인트 맨이 앞으로 돌격하다가 적의 집중 사격에 발이 묶였을 때나 적의 화력을 단시간 내에 제압할 때 쓰인다.

핫 키는 「T」자!!

자유 사격(fire at will)

적의 사격점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을 경우, 이 명령을 하달하면 소대원들이 알아서 사격을 한다.

핫 키는 「W」자!!

사격 중지(cease fire)

말그대로 사격 중지 명령이다. 목표물로 접근할 때 아군의 총에 아군이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 명령이 직효약이다.

게임 중에서 사블을 쓰는 사람은 알겠지만 애드립이나 사운드 카드가 없는 분들은 총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적이 안보인다고 해서 이 명령을 내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자유 사격 명령이 내려지면 소대원들은 포인트 맨이 적을 찾지 못해도 스스로 찾아서 사격을 하는데, 사격중 적이 제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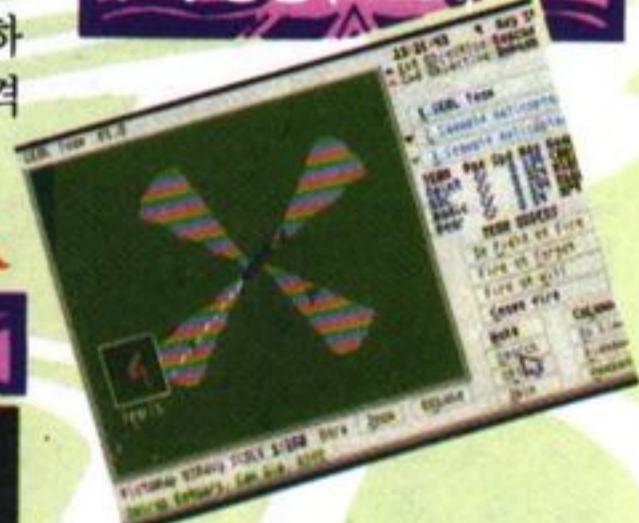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리저리 돌리는 한이 있어도 적을 찾아 내도록 하자! 베트콩들은 대부분 나무에 숨어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무차별 돌진이 주특기이므로 상황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핫 키는 「C」자!!

잠시 대기(halt)

전진중에 경계해야할 상황이거나 적 돌출이 예상되면 소대원들에게 이 명령을 사용한다. 그러면 소대원들은 몸을 숙이고 다른 명령을 기다리게 된다.

핫 키는 「H」자!!

수색 명령(seach)

작전이 끝난 지역에서나 앞으로 전진하는 도중에 적의 부비트랩을 수색한다. 작전이 끝난 지역에서는 포로와 적의 사상자 수, 포획한 적의 무기 등을 포인트 맨에게 보고하면 미션 점수 가산에 포함된다.

핫 키는 「S」자!!

흩어져!(split)

부대원들이 적진으로 돌격할 때나 작전 지역으로 이동중에 소대원들의 간격이 너무 좁을 때, 각자의 대원들이 팀을 나누어 각기 다른 명령을 수행케 하는 명령이다. 부대원 전원 몰살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부득이하게 이 명령을 써야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

핫 키는 「P」자!!

모여!(Join)

부대원들의 대열이 뒤처져 있을 경우나 화력 집중이 필요할 때 쓰는 명령이다. 그러나 적과 교전시에는 쓰지 말도록!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이라 포탄이 자기 머리에 떨어져도 포인트 맨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핫 키는 「J」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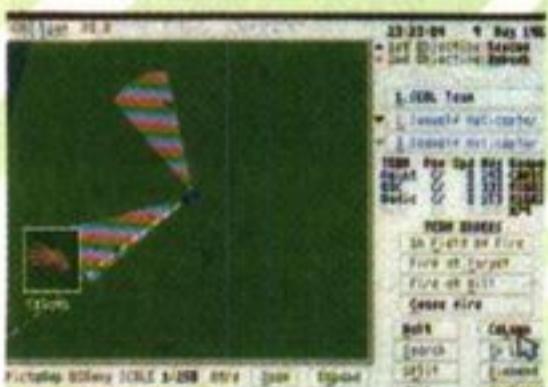
종대로 모여!(colum)

밀림이나 숲, 적 기지 접근시에 부대원의 대열을 종대로 명령한다.

핫 키는 「C」자!!

횡대로 모여!(in line)

「종대로 모여!」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횡대로 접근한다.

다이아몬드 대형(diamond)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을 발견했을 때, 이 대열을 명하여 적과 교전을 펼친다. 적을 쉽게 섬멸할 수 있으며, 단시간 내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처음 작전을 개시할 때 이 대열을 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핫 키는 「D」자!!

이 상태에서 「2」번 보트 지원 유니트(boat support unit)나 씨 울프 헬리콥터(seawolf helicopter)를 선택하면 미션 지역에서 선회하고 있는 아군 헬기나 보트가 지원해 준다.

UH-1B 헬로 공격(uh-1b helo att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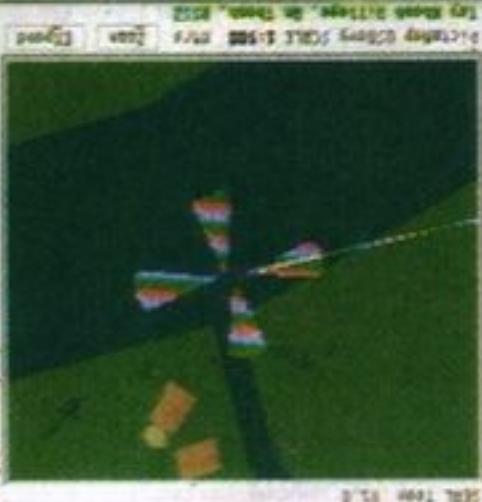
주위를 선회하는 아군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도표에서 마우스로 화살표를 찍어주면 그 지역을 무차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서 빠져나간 후 쓰거나 그 지역에 접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리 교두보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핫 키는 「U」자!!

공격 중지!(cease attack)

한참 공격중이더라도 이 명령에는 복종한다. 단지 아군 소대원은 공격중이면 상관없이 전투에 임한다.

핫 키는 「K」자!!

퇴각 명령(extract)

이 명령을 선택하면 아군 헬기가 당신의 부대원 쪽으로 오게 된다. 그 밖에 이 명령은 아군 포로를 구출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적과 교전시 아군 포로가 있는 쪽으로 접근, 이 명령을 내리면 헬기가 와서 포로를 자동으로 데려가게 된다. 이 키말고 미션을 끝내려 한다면 「ESC」를 누르면 된다.

핫 키는 「E」자!!

대기 명령(loiter)

헬기의 지원이 필요없거나 적에게 위치 노출이 두려울 때, 이 명령을 쓴다.

핫 키는 「O」!!

응급 사태(emergency)

이 명령은 헬기의 판단 아래 행해지는 지원을 말한다.

핫 키는 「Y」자!!

참고 사항

all+t	시간 고속 진행
q	돌격 앞으로!
n	무기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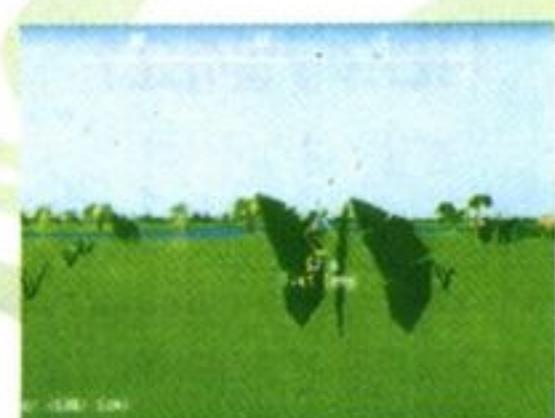
해병 특공대 돌격 앞으로!!

미션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매복, 완전 초토화, 구출 등의 반복이며 지도상의 지형이나 적의 강약, 위치 등이 틀려질 뿐이다. 또한 다른 시대로 한다고 해도 똑같은 미션을 배당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의 숙련을 위해 고난이도의 지역만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1969년 구출(RESCUE) 미션

이 미션은 「binb qu」라는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메콩강 근처의 「my tho」라는 작은 마을에 불시착한 아군 파일럿을 구출하는 미션이다.

적군은 소규모 병력이며 LMG, M-60으로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잠입 루트는 보트로 적 지역까지 접근하며 위에는 아군 헬기가 보조하고 있다.

먼저 다이아몬드 대형을 갖추고 「Q」자를 눌러 아군 포로가 있는 곳까지 맹돌진하자!

여기서부터 주의하라! 아군 포로가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두손을 들고 가만히 서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끼면서 그에게 접근하면 베트콩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 사격을 퍼부을 것이다.

지도상으로 그 포로가 있는 쪽으로 곧장 가지말고 조금 돌아서 가면 아까 매복했던 베트공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자!

속전 속결이 최상이므로 소대원의 엄호를 받으며 정확히 23미터까지 접근하여 기총 사격을 가하자! 한가지 주의할 것은 적을 섬멸하는데 수류탄을 아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게임의 전제는 대부분 소규모 전투가 주목적이다. 6.25때 고량주 마시면서 개떼처럼 몰려오는 중공군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빨리 적을 제압해야만 다음에 나오는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1969년 시대의 미션은 대부분 상당히 빨리 해결을 봐야 하는 것이므로 수류탄이나 그레네드 런처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베트콩을 제거했으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헬기에 연락을 보내자. 그리고 지도상에서 다시 포로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헬기가 그곳에 도착하고 포로는 자동 이송된다. 헬기가 뜨자마자 베트콩이 사격을 가한다. 「W」자를 눌러 자유사격을 명한 다음, 귀환 보트까지 열심히 달려가면 임무는 클리어된다.

1968년 데몰리션(DEMOLITION) 미션

말 그대로 파괴 미션이다! 아군의 진군에 무척 악영향을 주는 「tan dinh」 섬 「bin tuy」 지역의 벙커 파괴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당신의 부대는 「bassac」 강에서 출진하여 「bin tuy」 지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베트콩의 총알 세례가 여러분을 반길 것이다.

일단 보트에서 내리자마자 전진한 후 땅바닥에 엎드려 좌측을 보자

적들은 좌측의 늪지대에서 사격을 하고 있다

문제는 베트콩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포인트맨이 적과의 거리를 20미터로 좁힌 후 수류탄을 던져서 처치하도록 하자

물론 「W」 명령을 내려 엄호를 받으면서 돌진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벙커에 다가가면 「n」자를 눌러서 시한 폭탄을 설치하자. 그러면 화면 좌측에 제한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정 거리 안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미션이 고난이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폭탄 장착이 끝나고 귀환하고자 할 때부터 베트공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총탄을 퍼붓는다는 점이다.

「LMG」와 같은 중화기로 대응하면서 전진해야 하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헬기를 불러 지원을 요청하자. 이점을 유념하고 총탄을 낭비하지 않기를 빈다.

분석 교관의 한마디… 건투를 빈다!

일렉트로닉 아츠사의 신작인 이 게임은 그래픽 면에서는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 코멘더나 신디케이트같은 화려한 그래픽에 익숙한 매니아들은 이 게임의 심오한(?) 재미를 느끼기 전에 백터 타입이라는 점에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그러나 사운드 면에서는 밀림의 정글을 연상케 할 정도로 사블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스케일이 웅장하다. 아쉬운 감이 있다면 486 DX2-66에서조차 느린 스크롤이 맘에 걸린다. 마우스를 쓰면 편하지만 키보드에 익숙한 필자에겐 지독한 고생이었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임임에는 틀림없다. 100점 만점에 95점!!

문의처 : 동서게임채널(02-774-0261)

IBM-PC 퀴즈 대행진

돌격 앞으로!!의 지시 키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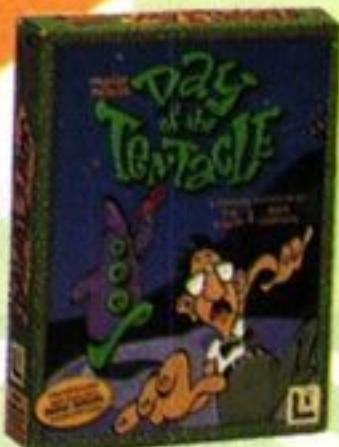
해병특공대가 드디어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적진 깊숙히 침투하였다! 그러나 적 부대는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침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소대장은 어떤 명령을 하달하여 부대원을 앞으로 돌격시킬 수 있다. 과연 이 명령의 지시 키는 무엇일까?

정답은 영문 한글자이며 정확한 답을 적어 보내 주시는 3분을 추첨해서 해병특공대 정품 디스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16-2 지산빌딩 3층
IBM-PC 담당자 앞
엽서 마감 : 2월 25일까지
당첨자 발표 : 4월호 챔프 게시판

CD-ROM 드라이브와 CD 게임을 한꺼번에!!

소프트네트에서는 CD-ROM 드라이브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텐터클 최후의날" CD-ROM 게임을 증정한다. 고용량 게임인 만큼 그래픽, 시나리오, 보이스 지원으로 만화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줄 것이다.

파나소식 562B CD-ROM (265,000원)+텐터클 최후의 날 CD-ROM(45,000) =310,000원=>265,000원

문의처 : 소프트네트(517-4864)

2월호 그림자 퀴즈 당첨자 발표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 : 다스베이더

김동신/
김현석/
권병수/

※ 당첨되신 분은 게임챔프로 전화를 주신 후 상품 수령일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단, 당첨자 중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주민등록 등본 1통을 상품담당자 앞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IBM-PC 뉴소프트안내

첨벙첨벙 SOS

아케이드/제플린 게임/3.5인치 2장/17,000 원/SKC/2월 예정

호화 유람선 S.S. 루시퍼호가 빙산에 충돌한 후 침몰해 버렸다! 국제 이사회에서는 배짱있고 재치 넘치는 슈퍼 스타 캐빈 코스트너에게 구출 작업을 요청하기에 이르는데…

SKC 소프트랜드 : (080-023-6161)

버블산타

아케이드/제플린 게임/2HD 2장/10,000원/SKC/2월 예정

얏호! 내일은 신나는 크리스마스! 이제 여러분은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타고 밤하늘을 날아서 아이들이 깨기 전에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SKC 소프트랜드 : (080-023-6161)

닉 팔도 골프

스포츠 게임/그랜드슬램 비디오/2HD 2장/미정/SKC/2월 예정

과연 세계적인 골퍼 닉 팔도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지형을 표시하기 위해 폴리곤 매핑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스윙 소리와 새소리 등이 어울어진 효과음이 독특하다.

SKC 소프트랜드 : (080-023-6161)

비버리힐의 아이들

어드벤처/인트라 코퍼레이션/2HD 3장/19,000원/SKC/2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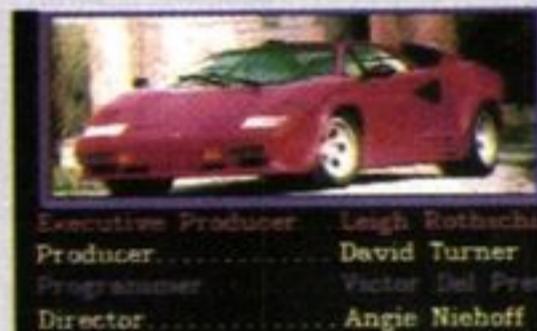
시멘트 연못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어드벤처 게임이 등장한다! 이제 여러분은 클렘펫 일가를 데리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석유를 찾아야 한다! 자! 비버리힐로 떠나자!!

SKC 소프트랜드 : (080-023-6161)

에이트 볼 디럭스 핀볼

아케이드/암텍스/2HD 2장/22,000원/소프 트네트/1월말 예정

암텍스 사의 핀볼 시리즈중 하나로서 트리스탄 핀볼의 평면성을 보강하여 실제감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화면을 분할하여 볼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스크롤된다.

소프트네트(02-517-1403)

게임 컬렉션

복합 장르/캡스톤/CD 1장/35,000원/소프 트네트/1월말 예정

이 게임 컬렉션에는 트럼프 캐슬, 트럼프 캐슬2, 빌과 테드의 엑설런트 어드벤처, 타이타닉을 찾아라, 색다른 자동차 전시장 등의 5가지 게임이 들어있다.

소프트네트(02-517-1403)

터미네이터2

아케이드(체스)/캡스톤/CD 1장/35,000원/소프트네트/1월말 예정

전통적인 체스 게임을 미래의 전쟁터 위에서 펼쳐지도록 변형시킨 이 게임에는 2명의 사이보그가 등장하여 미래의 지구 지도자를 찾아서 숨막히는 대결을 펼친다.

소프트네트(02-517-1403)

생체실험

시뮬레이션/맥시스 S/W/3.5인치 7장/미정 /SKC/2월 예정

당신은 훌륭한 유전과학자로 지구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동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뭔가 잘못이 일어난다! 동료 한 명이 유전자 샘플을 가지고 사라지고 남태평양 일대에는 변종 괴수가 날뛰기 시작하는데…

S.C. OUT

퍼즐형 아케이드/칼리스토/2HD 1장/15,000원/소프트네트/1월말 예정

2021년 우주의 다른 혹성들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주를 시작했던 인류는 어떤 지능체에 의해 조종되는 에어리언에게 수없이 많은 목숨을 잃는다. 회의 끝에 지구인들은 스타 클린 아웃을 파견하여 에어리언의 파괴를 명하는데…

소프트네트(02-517-1403)

유틀랜드

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 써서리/CD 1장/45,000원/소프트네트 발매중

세계대전 중 영국과 독일의 해전을 배경으로 한 시뮬레이션으로 플레이어들은 대영 제국의 함대나 독일 제국 함대를 지휘하며, 야간전투, 어뢰공격, 파편탄에 의한 일제사격 등 해전의 모든 상황을 CD-ROM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네트(02-517-1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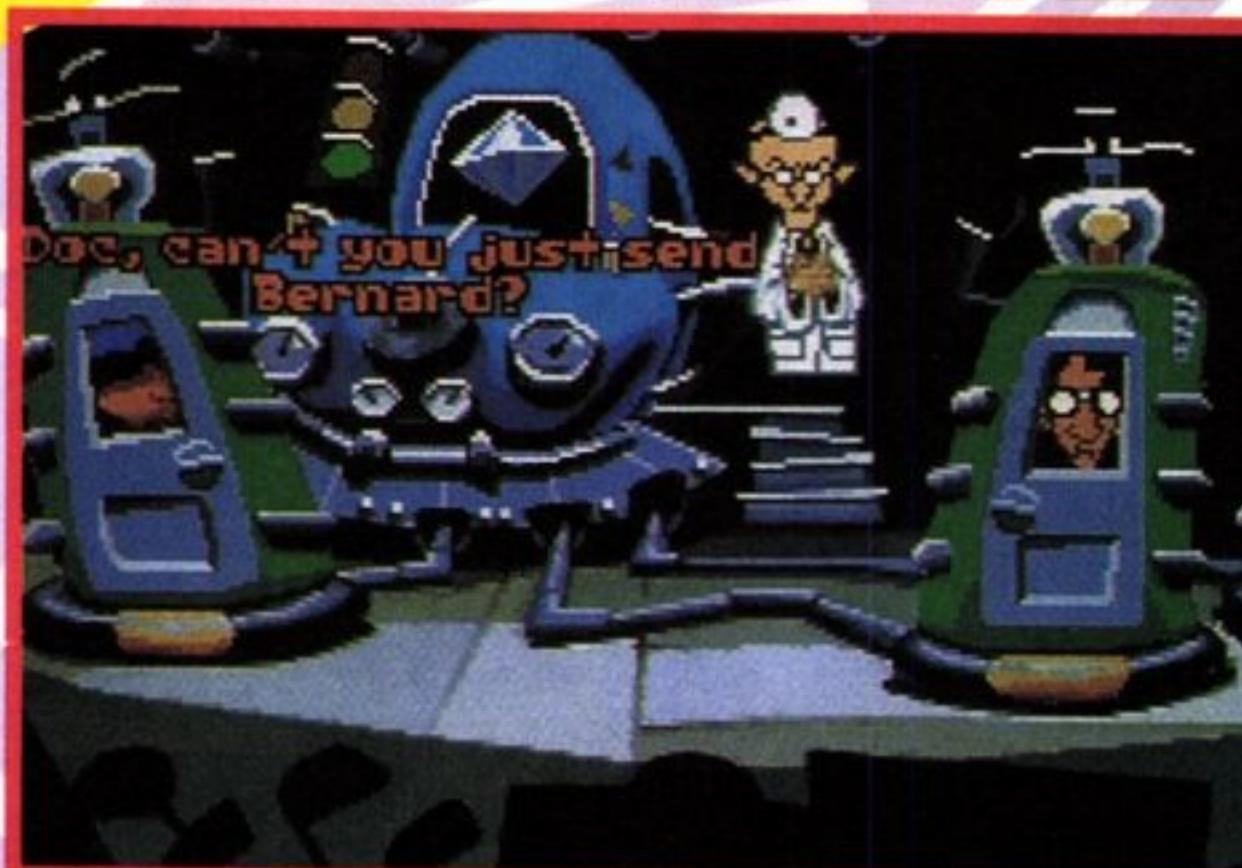
IBM-PC CD-ROM 정복국

텐타클 최후의날

매니악 맨션2

문의처 : 소프트네트(02-517-1403)

제작사	장 르	용 량	발매일	발매원	발매가
루카스아츠	어드벤처	CD 1장	93/12월	소프트네트	45,000원

운용 체계 : 도스 3.1이상
메모리 : 640K이상(570K 바이트)
하드 공간 : 약 15M 바이트 이상
사운드 카드 : 사운드 블래스터

괴상망칙한 미국풍 어드벤처!!

사람들은 두발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문명의 기반을 이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문어발」은 그 수없이 많은 발과 더불어 두 팔이 생겨남으로써 세계 정복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품게 되는데…

어쩐지 만화에나 있을 법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어딘가 불완전한 듯한 만화… 아니, 미국풍의 애니메이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등장 캐릭터들도 동양권에서는 볼 수 없는 괴상하게 생겨먹은 놈들 투성이이다. 특히 팔이 돋아날 때 문어발의 표정이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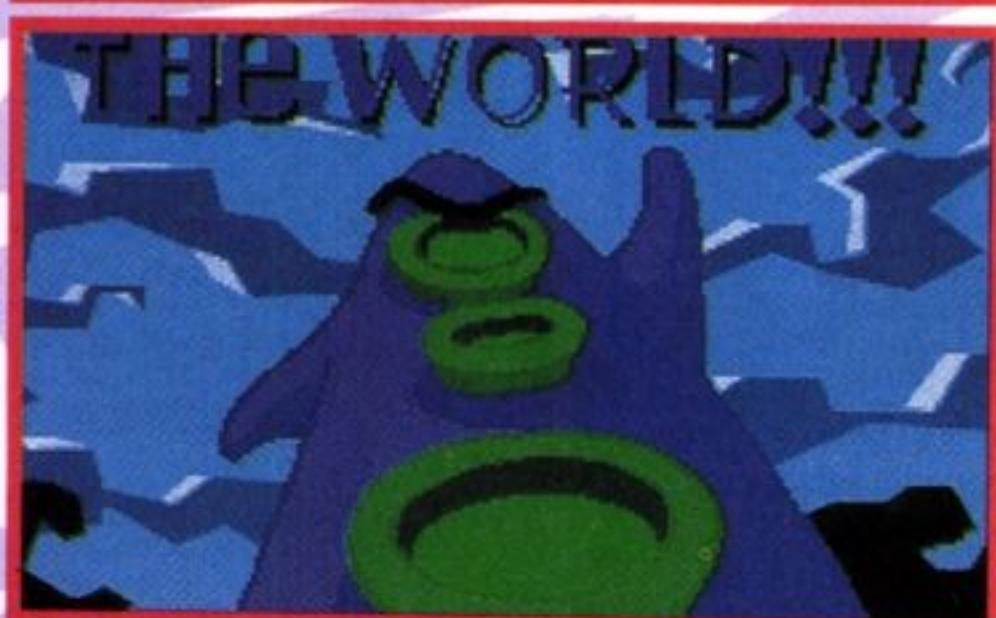
"왜? 문어발과 같은 생물이 존재할까" 등의 어려운 상상을 해서는 이 게임을 즐길 수 없다. 왜냐구? "이건 게임이잖아!" 재미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게임은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으로 시작된다. 대사와 효과음, 배경 음악이 철저히 가미된 오프닝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퍼플 텐타클」이라고 불리우는 보라색 문어발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세계 정복의 야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어드벤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물건을 모으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도끼로 사과나무를 베어버리는 미국 대통령?

▲보라색 문어발을 추적하기 위해 타임머신에 탑승! 그런데… 기계도 엉망진창이고 박사도 괴상하게 생겼네… 괜찮을까?

타임머신 고장으로 현재에 남겨져버린 안경 군. 그가 분발하지 않으면 과거로 간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

세계정복을 선언하는 문어발! 하늘엔 먹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고… 어이, 문선생! 어디가 입이야?

상식보다는 황당한 망상이 통한다!

게임과 데모가 병행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퍼 샐러드 배터리」 설계도가 표시된다. 이것이 바로 매뉴얼 프로텍트이다. 특히 번호와 매뉴얼의 페이지를 합쳐서 쿨톤의 수와 샐러드 오일, 그리고 식초의 분량을 지정해 주면 된다. 이 슈퍼 샐러드 배터리는 게임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런 농담같은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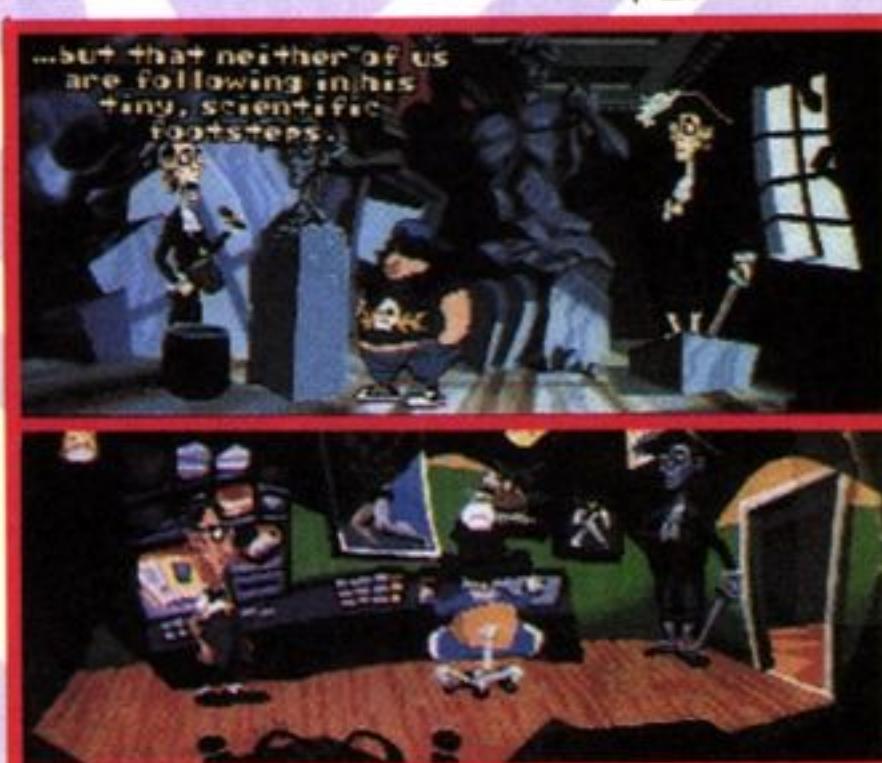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세가지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차리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각각의 시대에서 모은 물건을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더욱 복잡해진다. 물론 조작하는 사람도 교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게임을 진행하지 않으면 3번째 여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화면 밑에 있는 얼굴 부분을 클릭하면 그 여자로 변하게 된다.

각 시대마다의 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야만 한다. 현대에서는 큰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타임머신을 고쳐야만 한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현재로 되돌아 오기 위해 슈퍼 샐러드 배터리를 만들

슈퍼 샐러드 배터리의 설계도. 한참 진행한 뒤에야 나타나므로 매뉴얼 프로텍트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야 하며, 미래에서는 배터리를 얻기 위해서 미이라를 미인콘테스트에서 우승시켜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 문제들은 그 시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시대의 물건과 조합시키는 등 여러가지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입수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렸다.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 정직하게 생각해서는 백년이 가도 클리어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기의 팜플렛을 과거로 보내기도 하고 달그다닥 달그닥거리는 틀니를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용하는가가 이 게임의 묘미인 것이다. 아마 말이 틀니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못할껄? 또한 모든 등장 인물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화약더미에 불을 붙여서 폭발시켜도 순식간에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황당한 세계에서의 정답은 바로 황당한 행동인 것이다.

등장하는 캐릭터가 모두 개성적인 인물투성이이며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 제부터 어떤 행동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주머니에서 피자같이 생긴 무언가를 꺼내 먹어대기 시작하거나 흘러내릴 듯이 커다란 안경을 추켜 올리는 등 별 해괴한 짓들을 해댄다.

그리고 덤으로 우표 수집가의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전작인 「매니악 맨션」을 플레이할 수 있다.

드디어 과거 세계와
▼연결 성공!

◀2층으로 올라가면 무뚝뚝한 아줌마가 뭔가 일하고 있다. 앗! 옆에 서있는 자는…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는 안경군. 화면 오른쪽 밑의 친구 얼굴에 클릭하면 과거 로 갈 수 있다

착한 녹색 문어발은 현세에 있다. 그는 보라색 문어발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지만 도움이될 만한 힌트나 아이템은 없는 모양이다

플레이 요령

게임이 시작되면 잠시 동안 펼쳐지는 오프닝 데모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준다. 앗! 데모인가… 아니면 조작해야 되나? 마우스 커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데모라고 생각해도 된다. 물론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은 저절로 진행되어 간다.

게임의 화면은 고전미 물씬 풍기는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조작의 어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화면 하부의 커맨드를 이용해서 대상물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무슨 일이 터진다면 화면에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될 것이다. 걷고 싶을 때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된다.

게다가 화면상의 대상물(문이라든지…)에 마우스 커서를 맞추면 무슨 일을 해야 좋은지 알 수 있다.(화면 밑의 커맨드 색깔이 변한다) 그대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일부러 커맨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실행된다. 이것을 이용하면 플레이 그 자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데이타의 세이브와 로드, 그리고 게임 종료 시에는 루카스 아츠사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F1키를 사용한다. 한편, 조작 방법은 아니지만 CD-ROM용에는 힌트북이 있기 때문에 어드벤처 게임에 자신없는 사람은 참고하기 바란다.

키보드로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화면 밑에 커맨드가 있기 때문에 빈번한 커서 이동을 하기에는 벅찰 것이다.

연날리기! 워싱톤과 프랭클린이 헌법의 초안을 잡았노니… 어쩌구 저쩌구

문어발의 세계정복은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반항하던 자들은 보다시피 연금되어 있다

문의처 : 금성 소프트웨이브(02-7670-601)

고고 우리별

-지구 전설 2999-

기종	IBM-PC	제작사	에이플러스	용량	2HD 3장	장르	슈팅
가격	33,000원	발매원	금성S/W	발매일	94/1월	난이도	하

IBM AT 호환 기종 이상 /VGA 그래픽 카드 /도스상에서 550KB 이상의 기본 메모리 공간 확보 /3.5MB 이상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빈 공간 /애드립, 옥소리, 사운드 블라스터, 사운드 캔버스 /키보드, 마우스, 파라 조이스틱 지원

국산 게임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

고고 우리별은 국산 슈팅 게임 최초로 2인 플레이가 가능한 아케이드 슈팅으로 깔끔하고 귀여운 아이템 모습이 특이하다.

특히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협동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아! 이제 우리도 우리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인가!!

게임 설치와 실행

설치 ●

첫번째 디스크를 A 혹은 B 드라이브에 넣고 디스크가 있는 드라이브로 작업 환경을 옮긴다. 그리고 「INSTALL」이라고 입력한 다음, 커서를 이용하여 음악 카드와 설치하고자 하는 하드 디스크의 이름을 선택하고 설치 시작에서 엔터키를 누른다.

5. 화면에 나타나는 메시지에 따라 디스켓을 교환하면 설치가 끝나고 다시 도스 프롬프트를 만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게임을 실행시키면 된다.

```
c:/>A:
A:/>install
```

설치된 하드 디스크의 디렉토리로 작업환경을 이동한 후 「OURSTAR」라고 입력하고 리턴을 눌러준다.

```
C:/>cd/danbi/ourstar
C:/>DANBI/OURSTAR>ourstar
```

고고 우리별 스토리

실행 ●

1999년 4월 정다민과 한솔이는 1999년 어린이 우주 탐험대로 뽑혀 대한민국 과학의 결정체인 우리별 3호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성을 지나던 중 갑자기 불어닥친 자기 폭풍에 휘말려 아무도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은 흘러 어느덧 2999년! 시간마저 정지한 상태로 있던 우리별 3호는 자기 폭풍에서 겨우 벗어나지만 고장난 상태로 어떤 별에 떨어지게 된다. 사막 한가운데 추락한 우리별 3호의 정다민과 한솔이는 다행히 그 별의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게 된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 역시 지구인이며, 지금의 지구는 전쟁광 컴퓨터 CPU 박사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정다민과 한솔이는 지구의 평화를 찾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데…

게임의 조작 방법

고고 우리별은 아케이드 슈팅 게임으로 총알을 발사하여 각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보스를 이기면 된다. 게임 도중 아군기의 에너지가 떨어져 폭파되면 화면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무기는 빨간 총알, 파동포, 옵션 총알,

폭탄 등이 있다.

키보드 조작법으로 1인용 사용자를 선택했다면 방향 이동키로 각 방향 화살표 키를 사용하고, 보통 무기 키로는 오른쪽 Alt 키를, 특수 무기 키로 오른쪽 Ctrl 키를 사용한다.

2인용 사용자를 선택했다면 이동 키로 U키(상), M키(하), H키(좌), K키(우)를 사용하고, 보통 무기 키로는 왼쪽 Alt 키를, 특수 무기 키로, 왼쪽 Ctrl 키를 사용한다.

키보드 조작법

키보드 사용법

기본적으로 첫번째 사용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른쪽 배정 키를,두번째 사용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왼쪽 배정 키를 사용한다. 만약, 사용자의 키보드 선택을 바꾸려면 선택사항에서 바꾸면 된다.

F1 키 : 진행중인 게임을 일시 정지시킨다. 토글 스위치
F3 키 : 배경 음악/음향을 켜거나 끈다
F10 키 : 진행중인 게임을 끝마치고 게임의 초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참고

도스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F10 키를 눌러 데모 화면으로 나간 다음, 엔터 키로 메뉴 막대의 메시지를 그만하기 메뉴바로 바꾸어 선택하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야 한다.

마우스 사용법

마우스의 왼쪽 버튼은 보통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고 오른쪽 버튼은 특수 무기를 발사한다. 마우스의 버튼이 3개라면 가운데 버튼은 사용하지 않는다.

게임 메뉴 설명

고고 우리별 게임을 시작하면 타이틀 데모 화면이 나온다. 고고 우리별 타이틀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주먹을 때려 메뉴바의 메시지를 바꿀 수 있다.

혼자 하기 메뉴바는 1인용 고고 우리별 게임을 선택하게 되는데 다른 메뉴인 선택 사항에서 지정한 정다민의 우리호 혹은 한솔이의 두리호 측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정다민 혹은 한솔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키보드를 사용한다면 각 방향 커서 키를 사용하게 된다.

둘이 하기는 메뉴바는 고고 우리별 게임을 둘이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두명이 게임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지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래에 있는 선택 사항 메뉴바이다.

선택 사항

선택 사항 메뉴바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게임 진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난이도/사용자별 입력 장치를 지정할 수 있다.

음악 연주 화면

음악 감상 메뉴바는 사용자가 원하는 스테이지를 찾아 게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만하기 메뉴바는 게임을 끝마치고 도스상으로 빠져 나갈 때 사용한다.

고고 우리별 출발하자구!!

기본 스테이지

스테이지 1 사막과 지하세계

넓게 펼쳐진 아라비아 사막

탈바가지 중간 보스 출현!

화면이 갈라지며 배경이 바뀐다!

첫번째 스테이지는 사막과 지하세계로써 신비한 아라비아풍의 배경이 펼쳐진다. 지상의 적과 움직이는 푸른 계곡에서의 스크롤은 플레이어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1스테이지가 끝나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는데 암호 입력이 틀리면 데모 화면으로 나가게 된다.

피라밋을 폭파하라!

보스출현!!

보스를 물리쳤다!

스테이지 2 전원마을

전원 마을

두번째 스테이지는 지하세계를 빠져나온 후 작고 귀여운 집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게 된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공중 구조물의 등장으로 배경이 2중

특수 무기 발사!!

IBM-PC

책속의 책 I

스크롤되는데 공중 구조물에 플레이어의 우주선이 닿으면 안된다!

공중 도시를 피해서 스크롤하라!

파워 업을 위해 아이템을 구하자!

중간 보스 출현!

긴 팔 보스 출현!!

클리어 성공!!

중간 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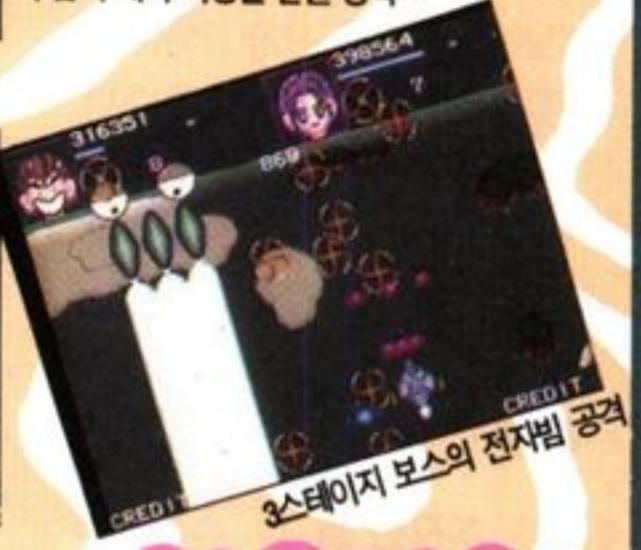
구름 부대의 가공할 만한 공격…

풍선의 공격을 피하자!

3스테이지 보스의 전자빔 공격

보스가 다리를 벌려 공격한다

클리어!!

스테이지 3 바다위 공중전

세번째 스테이지는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점점 상승하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 이 스테이지는 코나미사의 엑스레이(AXELAY)와 같이 2.5차원 구면체 스크롤을 적용해서 지금까지의 평면 배경 스크롤과는 달리 마치 배경이 둥그렇게 휘어진 것처럼 움직이는 특이한 느낌을 준다.

2.5차원 종스크롤 화면

우리호의 무기가 파워 업되었다!

기구를 공격하라!!

우리호와 두리호의 강력한 합동 공격!!

스테이지 4 우주공간

지구를 벗어나 가지각색의 우주 배경 속에서 적과 전투를 벌인다. 떠다니는 우주 유람선과 같이 공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을 골라서 섬멸해야 한다.

인공 위성의 공격을 피하라!

중간 보스

보스가 나오기 전에 등장하는 적의 모습을 본다

종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특수 무기를 발사!

보스의 육탄 공격을 방어하라!!

클리어!!

보너스 스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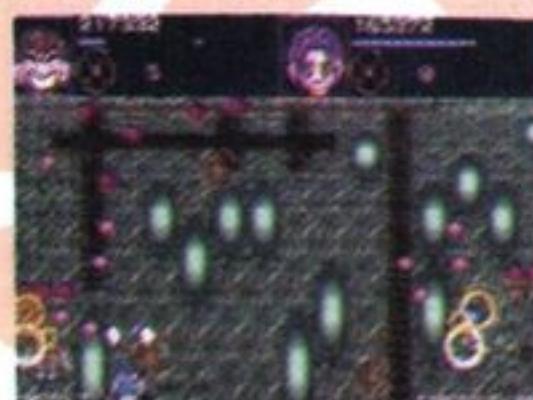
기본 스테이지 게임 중 보너스 스테이지를 위한 아이템을 구하게 되면 그 스테이지를 완수하고 나서 3가지의 보너스 스테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플레이어가 사망(?)해도 기본 스테이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스테이지 5 전자도시

마지막 스테이지로써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여 전자도시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컴퓨터 빅 시피유와 결전을 치루게 된다.

닥터 CPU가 있는 전자도시

연들의 집단 공격을 피하고…

전자 도시의 공항을 날아서…

중간 보스를 퇴치한 다음…

특수 무기를 받아랏!!

하루도 싸우지 않으면 램에 자이러스가 걸린다는 박사 CPU를 공격하라!!

드디어 해치웠다!

지구를 구한 정다민과 한솔이, 그리고 노엘 장로

타임머신을 타고 지구로 귀환!

보너스 스테이지 1 미로 탈출 코스

정해진 코스대로 터널을 지나가며 각 코스에 숨겨진 아이템들이 찾아야 한다.

보너스 스테이지 2 장애물 달리기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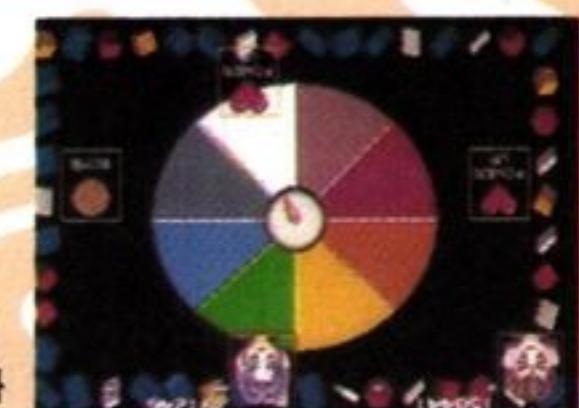
정해진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아이템을 얻어야 한다. 만일 상하로 솟구쳐 있는 트랩에 닿으면 여태껏 얻었던 아이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뛰어오르는 방법은 플레이어가 일반 무기 키를 계속 누르거나 일반 무기를 사용하는 마우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파워가 증가하게 되는데 트랩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버튼을 눌러 적당한 파워 업을 한 후 버튼을 떼면 점프하게 된다. 만일 화면 스크롤보다 사용자의 움직임이 느리면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쫓겨나게 된다.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뛰뛰기를 한다

보너스 스테이지 3 룰렛 코스

돌아가는 회전판에 과녁을 맞추어 특정 아이템을 채취해 나가야 한다.

룰렛 판을 돌린다

아블렉스 로고

작은마녀의 주메뉴

국내 게임 제작팀인 아블렉스에서 선보이는 작은 마녀는 첫 작품 치고는 상당한 완성도와 작품성을 자랑하며 기존 개발 업체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예전의 이스 Ⅲ와 비슷한 형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산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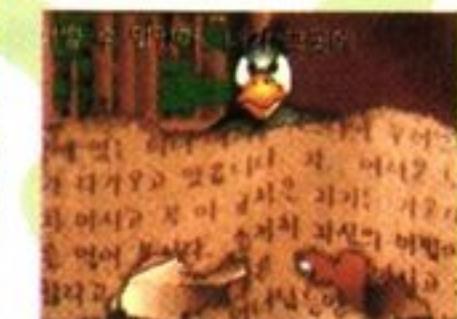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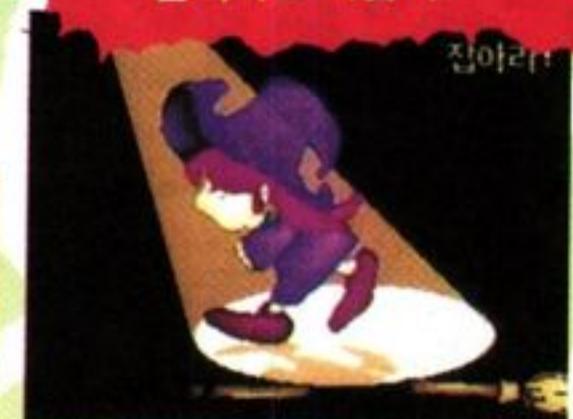
아블렉스가 미워!

작은 마녀

기종	IBM-PC	제작사	아블렉스	용량	2HD 7장	장르	롤플레잉
가격	33,000원	발매원	동서게임채널	발매일	94/2월 예정	난이도	중

문의처 : 동서게임채널(02-774-0261)

점프

점프는 키를 누르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높이가 달라진다. 걸어가면서 떨어지다가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장거리 점프가 필요할 때 이 방법을 쓰도록 하자!

작은 마녀 공격마법 설명

듣기와 말하기	등장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다
라져어떨	처음 얻게 되는 마법으로 적을 떨어뜨린다
남비 마법	남비를 만든 후 몸을 밀어서 공격한다
개구리 마법	통통 튀어가며 적을 공격한다
물방울 마법	작음이 주위를 회전하며 적을 공격한다
화분 마법	강력한 마법으로 여러명을 한꺼번에 공격한다
번개 마법	
장난감 기사의 마법	
파이 요리사 마법	

작은 마녀 아이템 설명

케이크	HP 50% 회복	도우넛	HP 100% 회복
빨간 사탕	MP 50% 회복	파란 사탕	MP 100% 회복
신발	이동 속도 증가	버섯	하늘을 날 수 있다

작은 마녀가 아장아장 귀여운 모험을 떠난대요!!

작은 마녀의 공략법은 이벤트별로 설명하겠다. 이벤트는 차례대로 생겨나므로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화를 잘 메모해 두어야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서 헤매는 사태가 없을 것이다.

이벤트 1 마을에 비를 오게 하자!

첫 이벤트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버섯돌이, 창을 든 감자, 사나운 우유병 등이 등장한다.

아저씨가 마법을 준다

꺼벙한 감자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푸른 구슬을 얻었다!

이벤트 1의 아이템(진행 순서별)

라져어떨 마법	푸른 구슬을 부탁하는 아저씨가 준다
마녀의 집으로 가는 열쇠	어떤 감자가 가지고 있다
하늘을 나는 빗자루	1회용으로 잠시 하늘을 날 수 있다
푸른 구슬	나무로 변한 요정을 구할 때 사용하며 요정이 다시 빌려준다
회복 아이템	케이크나 사탕이 상자에 들어있으니까 모두 얻도록 하자

이벤트 공략법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적에게도 말을 걸어보도록!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나무와 이상한 감자가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나무와 감자를 등지고 서 있으면 감자가 나무를 밀고 온다. 나무가 맨 왼쪽으로 가면, 다시 아래로 내려

은지네 집

와서 왼쪽으로 당근과 나뭇잎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제부터는 돈을 뿌리는 별을 이용해서 레벨을 충분히 올리자! 다른 화면으로 잠시 갔다 오면 별이 다시 생긴다. 참! 은지의 집은 여관의 역할을 한다.

기뻐하는 아저씨

찾기 힘든 문

개구리가 되어있는 요정

아이템 상점	
마법 상점	돈을 모아서 강력한 마법을 살 수 있다
서점	이야기 책을 판다
빵집	케이크, 도우넛, 빨간 사탕을 판다

이벤트 2 마녀의 집에서 탈출해야 돼요 !

잡혀가는 작음이

진로가 꽤 복잡하니까 지도를 그려가면서 플레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등장하는 적은 기타를 든 몬스터, 신발, 개미 2종류, 달팽이, 슬라임 2종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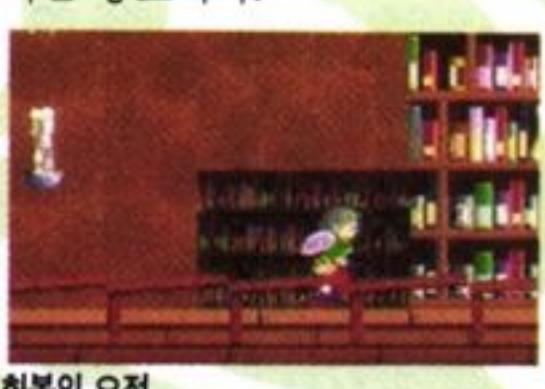
이벤트 2의 아이템(진행 순서별)	
약병	문지기를 구해줄 때 사용한다
돌이 변하게 하는 마법책	약병과 함께 쓰게 된다
신발	아이템 란에서 선택해야 효과가 있다
옷	적에 의한 피해를 반으로 줄여준다
마녀의 일기장	
개구리 마법	속도는 느리지만 위력은 대단하다
지하실로 가는 열쇠	문지기가 준다
지하실 열쇠 3개	곳곳에 숨어있다

약병을 주는 조수

개구리 마법

마법이 풀리는 문지기

이벤트 공략법

창을 들지않은 작은 악마는 점프해서 밟으면 처치할 수 있다. 또 달팽이가 나오는 곳에는 찾기 힘든 문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네번째 구멍 왼쪽에 붙어서 떨어지면 갈 수 있다. 벽에 걸린 그림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

회복의 요정

이벤트 3 요정의 풀을 찾자 !

이곳에서는 날아다니는 귀신이 등장한다.

새로 변하는 파인애플

사과가 열린 나무

요정의 풀을 얻었다 !

이벤트 3의 아이템(진행 순서별)	
나무 열매	M 키로 던져서 파인애플을 맞추면 새로 변한다
물병	새를 모두 구하면 할아버지가 준다
사과	큰나무에 물을 주면 얻을 수 있다
요정의 풀	HP 회복 효과가 있다. 요정을 구해주고 나면 없어진다

이벤트 공략법

우물에 나무 열매를 던지면 물을 얻을 수 있다. 점프하기에 너무 높은 곳에는 주위에 밀 수 있는 돌이 있다. 그 돌을 밟고 올라가자. 요정의 열매를 얻었으면 다시 마녀의 집으로 가서 요정을 구해주자.

달을 띄우는 사람

튀어나오는 물방울

요정을 구해주었다 !

책속의 책

이벤트 4 버섯 나라와 진실의 동굴, 그리고 과자의 나라로!!

이곳에서는 알에서 나오다만 병아리(본인의 말에 의하면…), 바퀴 달린 가지, 트럼프 병사가 등장하며 과자의 나라에는 창고마다 색다른 적이 출현한다.

이벤트 4의 아이템(진행 순서별)

딸기	풍선들을 모두 타다보면 얻을 수 있다
모자	떨어지는 물방울을 막아준다
번개 마법	
번호 카드	트럼프를 물리치면 얻을 수 있으며 질문에 대답할 때 사용한다
반지	어떤 곳을 통과할 때 사용한다
파이 요리사 마법	
깃털 신발	점프력이 상승한다

딸기를 구하는 아주머니

풍선 타기

문제를 내는 마법사

이벤트 공략법

풍선은 점프한 후에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누르면 탈 수 있으며 마법사가 내는 문제의 답은 답은 순서대로 1번, 2번, 4번이다.(아주 쉽군!)

그냥 지나가는 벽

상자속으로 들어가는 작음이

사탕 창고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벽이 있다. 웨하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계속 점프를 하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하며 이상한 아저씨를 계속 찾아다녀야 한다.

이벤트 5 폭풍의 마녀 루풍젤!

이곳에는 박쥐, 까마귀, 불꽃, 그리고 공격 불가능한 크고 작은 달걀이 등장한다.

도둑을 처치하는 할머니

이벤트 5의 아이템(진행 순서별)

절대 추워지지 않는 마법	솔이 엄마가 주며 군밤 아저씨에게 건네 주면 된다
카스파알과 제펠의 쪽지	할머니께 갖다 드리자!
버섯	숲 속의 할머니가 준다
장난감 기사의 마법	

이벤트 공략법

솔이 엄마의 집이 여관 역할을 한다. 특히 루풍젤의 성에는 강한 적이 많으니 도우넛을 많이 사두자.

마법에 걸리는 작음이

파스텔 풍의 아름다운 꿈나라 풍경

깨어나는 작음이

도망가는 루풍젤

아이템 상점

보석 상점이 있는데 사던지 말던지 여러분의 자유이다. 마을에는 빵집이 있고 게임 도중 나오는 오토 아저씨의 집 옆에도 상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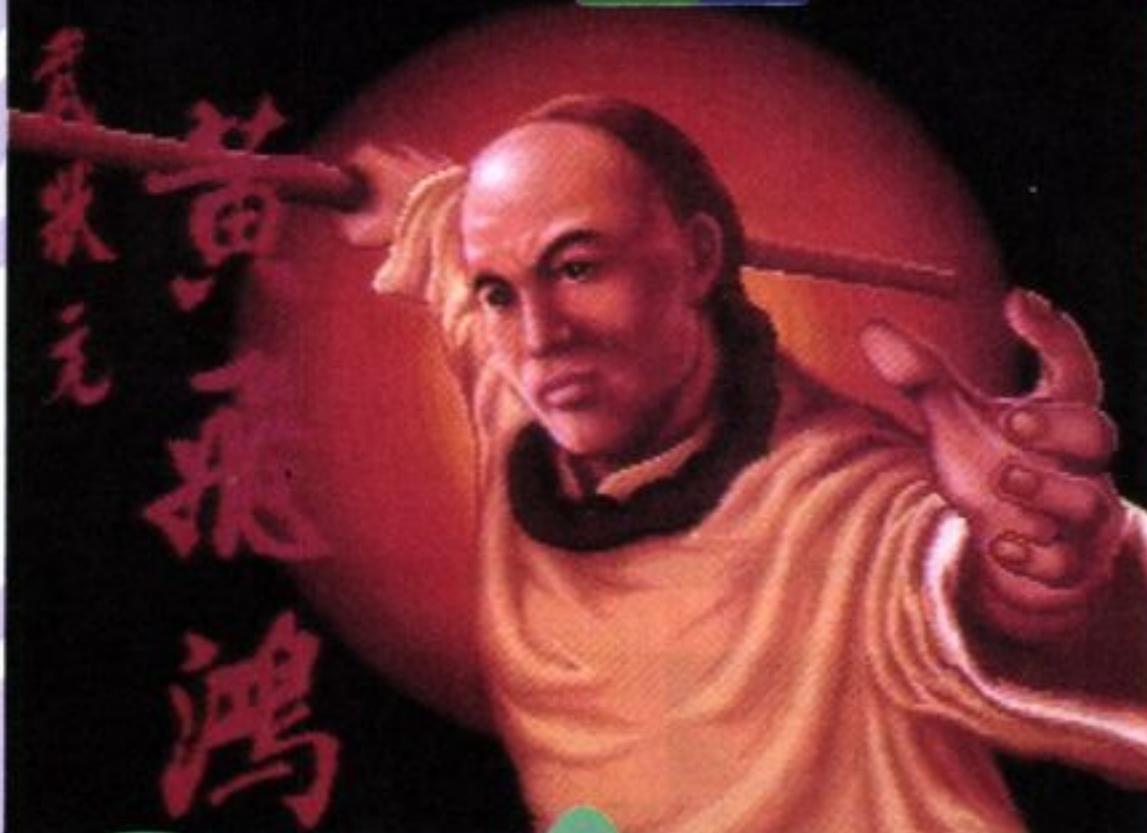
드디어 모험은 끝나고…

할머니가 작음이와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게임은 막을 내리게 된다. 매우 즐거운 엔딩 장면이 나온다. "정말 산뜻하다"란 말이 잘 어울리는 게임이었다. 아마도 후편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된다.

평화로워진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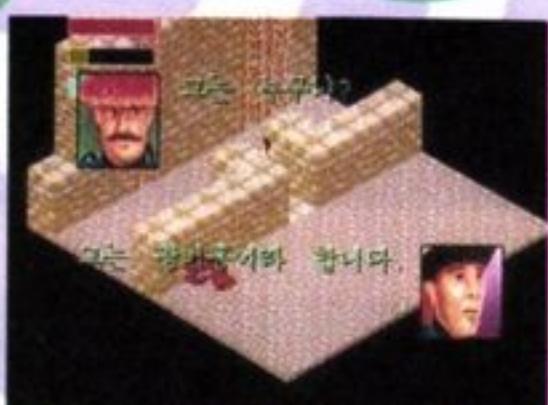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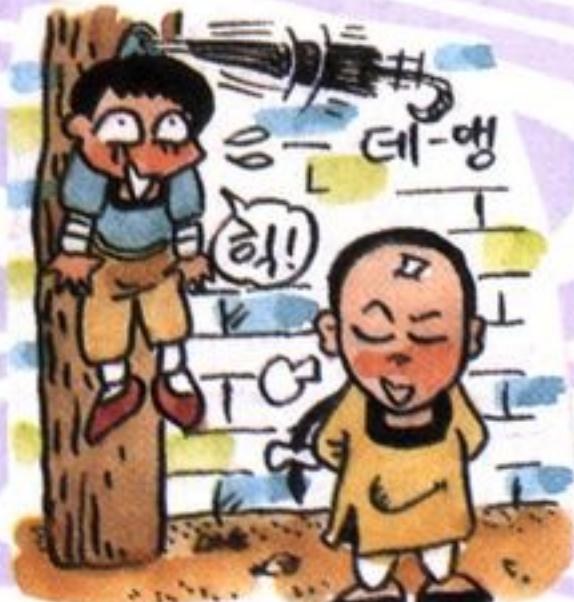
황비홍(黃飛鴻)

-한글판-

기종	IBM-PC	제작사	소프트월드	용량	2HD 7장	장르	롤플레잉
가격	30,000원	발매원	지관(유)	발매일	94/1월	난이도	중

신출귀몰 황비홍이 PC에 등장한다!

이미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황비홍은 청나라 말기의 실존 인물로서 서양의 열강이 중국을 침탈하는 암울한 시기에 국가안위와 민주의 안전을 위해 활약한 당대의 영웅이었다.

아버지이자 사부인 황기영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게임 도중 황비홍의 상황을 조사하여 그의 등급, 경험, 무공, 공격력, 수비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무왕대회를 마친 후, 당대 최고 실력자인 이홍장을 만난다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청나라 말기. 플레이어가 직접 황비홍이 되어 한 소년의 실종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불산을 떠난다. 산적을 물리치고 백련교를 소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광주에 도착한 황비홍은 각 문파의 도전장을 받고 피할 수 없는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대력금강장을 구사하는 악당

무왕대회에서 승리한 후 무왕이라고 씌여진 금패를 거머쥔 황비홍!

특수하게 설계된 건축물과 기후환경에서 원하는 무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황비홍은 「동방불패」와 흡사한 돌발 전투 기법을 채택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적들과의 전투가 가능하며 원하는 무공을 스스로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절세무적의 「호학쌍용권」

곤봉을 사용하는 「오랑팔괘곤」

철로 만든 부채로 적의 기습을 대비하는 「부채공」

황비홍의 독보적인 무공 「불산무영각」

그리고 다중고도법으로 설계되어 입체감 넘치는 건축물과 지형,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숲, 초옥 등의 아름다운 정경들이 실제처럼 펼쳐진다. 또한 시간설정과 특수한 기후변화법에 의해 낮과 밤이 교차하며 소나기, 번개, 천둥소리 등이 게임의 묘미를 더해줄 것이다.

우산을 이용한 공격무술… 일명 「우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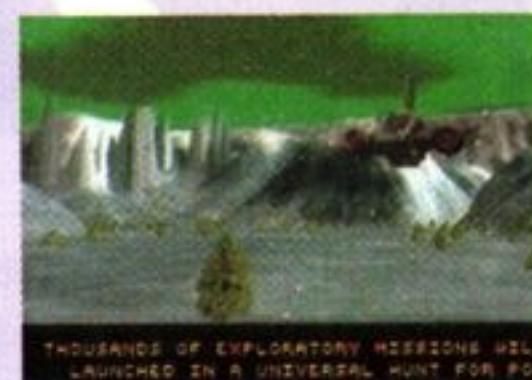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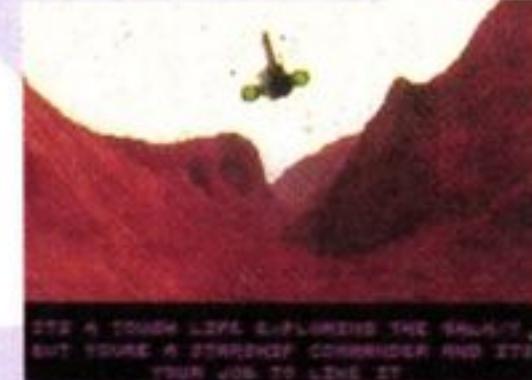
다중고도법을 이용한 사실감 넘치는 건축설계

문의처 : 지관(유) (02-797-5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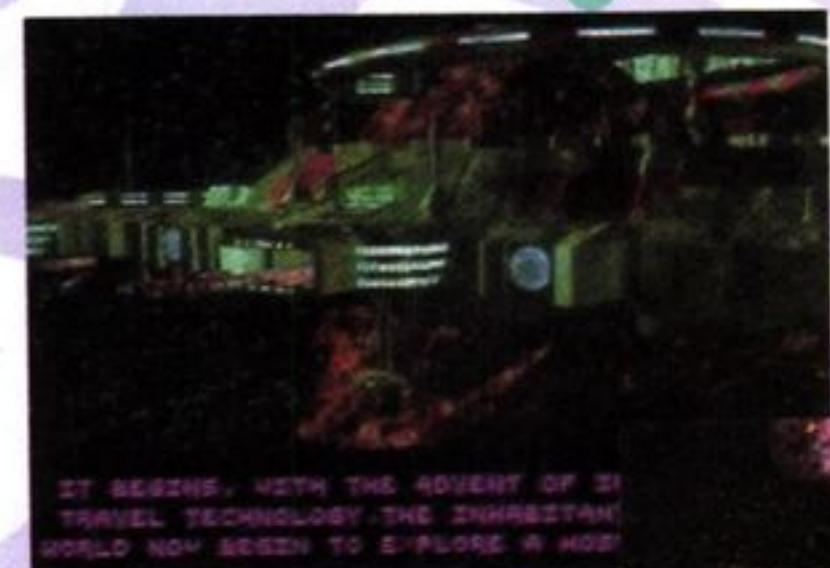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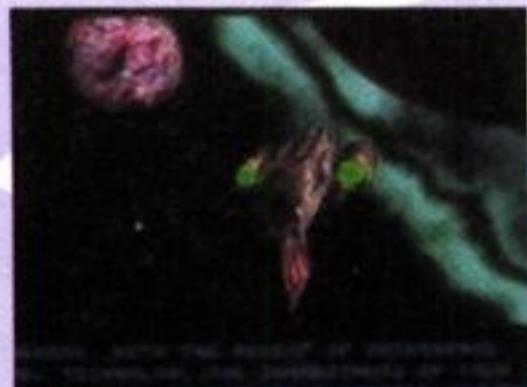
책속의 책 I

우주전함 스타쉽

기종	IBM-PC	제작사	메리트S/W	용량	2HD 9장	장르	어드벤처
가격	미정	발매원	금성S/W	발매일	94/2월	난이도	중

VGA 카드를 장착한 386SX 기종 /메모리 2메가 이상 /하드디스크 필수(설치 후 약 /PC스피커, 애드립, 사운드 블라스터, MT-32, 사운드 캠버스 지원 /마우스 필수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커맨드 어드벤처 !

시간선상 인터페이스 방식의 혁신적인 이동법 !

컴퓨터를 통한 다중 사용자 연관행동

우주전함 스타쉽은 시뮬레이션과 어드벤처적인 요소가 복합된 커맨드 어드벤처 방식의 게임이다.

영화 「V」를 연상케하는 그래픽

탐험을 위한 세부적인 항성 지리 표면

고도로 발달한 미래의 최첨단 기술로 인해 은하계간의 여행이 가능하게 된 시기. 지구는 자원의 고갈, 전쟁,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이미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우주를 찾기 시작하는데…

플레이어는 우주전함 스타쉽의 사령관이 되어 탐험을 지휘해야 하며, 우주전함 스타쉽이 은하계, 항성, 외계인, 무기 그리고 고도로 지능화된 윈도우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하여 완벽한 조종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편리한 작동과 조작을 위한 3차원 메뉴체계

게임의 목표는 우주의 부랑자, 우주해적, 외계인을 물리치고 부와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천지 은하계의 50개 이상의 구역을 정복해야만 한다.

문의처 : 금성소프트웨이브(02-7670-601)

이스 II 스페셜

—한글판—

기종	IBM-PC	제작사	만트라	용량	2HD 6장	장르	롤플레잉
가격	39,000원	발매원	만트라	발매일	94/2/15	난이도	중

VGA카드를 장착한 286이상/메모리 570K이상/애드립, 음성팩, 사운드 캔버스, 옥소리 3.0지원

잃어버린 왕국의 전설을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평화의 땅 이스는 아름다운 2명의 여신과 지혜와 덕을 겸비한 6명의 신관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이들은 이스의 건설과 함께 탄생한 신비스러운 마석 「검은 진주」을 이용하여 강력한 금속 물질인 클레리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뜻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정(静)과 동(動),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뒤집어 엎는 「마」가 생성된 것이다!

평화롭던 이스에는 마군이 득실거리고 방화, 약탈, 파괴, 대지진이 일어났으며, 지하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기름진 대지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게임기를 방불케하는 깔끔한 그래픽

이에 6명의 신관은 클레리아를 지하에 봉인해 버리고 검은 진주의 힘을 이용하여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다. 신관들은 이 처참한 기록을 6권의 책으로 남기고 후손에게 물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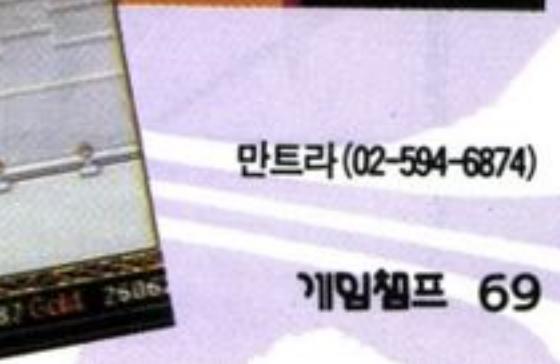
더욱 보강된 시나리오 구성

원작 시나리오를 그대로 살리면서 새롭게 각색된 이스 II 스페셜에는 신관의 탑 6곳과 4개의 필드, 그리고 7곳의 마을 외에 50여개의 던전이 추가되었다. 또한 숨겨진 자유 이벤트를 비롯하여 등장하는 캐릭터도 다수이며, 몬스터 역시 150종이 넘는다.

경험치와 금의 최대치 9999999!!

레벨 최대치 99!!

비주얼이 200여장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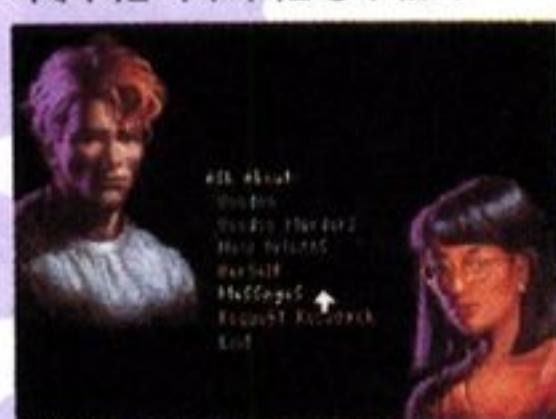
캐릭터의 동작 패턴

만트라(02-594-6874)

가브리엘 나이트

기종	IBM-PC	제작사	시에라	용량	3.5인치 11장	장르	어드벤처
가격	미정	발매원	동서게임채널	발매일	94/1월	난이도	상

예술과 게임, 그리고 삶이 어우러진 걸작 어드벤처!!

시에라사가 선사하는 걸작 어드벤처「가브리엘 나이트 －부두교의 살인자－」가 등장한다! 게임의 목적은 미신에 관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인데 어드벤처 게임치고는 난이도가 쉽다고 볼 수도 있다.

가브리엘은 탐정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서적 수집광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소재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초자연적인 악의 힘과 전사가 되어, 100년 동안의 저주에 묶여 몸서리 쳐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그는 깨어있는 동안에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어두운 과거로 통하는 열쇠를 찾기 위해 뉴올리온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잠이 들면 또 다시 공포스러운 악몽이 거머리처럼 찾아든다…!

시에라사는 역시 아이콘 방식이었다!

대화를 고르자!

숨막히는 공포 속으로!

주제를 암시하는 그래픽과 사운드

게임 처음부터 어두운 배경에 으시시한 음악들이 나온다. 데모의 화면들을 보면 불에 타서 괴로워하는 남자… 괴물로 변하는 여자… 벼락치는 절벽 위에서 목매달고 죽은 남자… 등등, 도저히 중학생 이하는 봐서는 안될 섬찟한 장면들이 연출된다.

탁월한 그래픽!

조작 방식은 킹스 퀘스트나 샘 & 맥스처럼 아이콘 방식이며, 그래픽과 음악은 게임의 주제와 동일하게 어두운 색조를 띄고 있다.

어두운 그래픽과 은은한 사운드의 오묘한 조화!

「7번째 손님」처럼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벽의 모양도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어졌으며, 배경 음악은「주지사의 눈 Ⅲ」와 흡사해서 처음에는 은은하고 음침하게 나오다가 끝부분으로 가면 봄날 풍경같은 따사로운 인상을 준다.

문의처 : 동서게임채널(02-774-0261)

광개토대왕

기종	IBM-PC	제작사	동서게임채널	용량	미정	장르	전략 시뮬레이션
가격	미정	발매원	동서게임채널	발매일	94/2월 예정	난이도	중

천하를 호령하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외국 게임을 굴복시키러 나타났다!! 아득한 옛날 드넓은 만주 벌판에 군림하던 광개토대왕의 용맹스러운 활약을 기대하시라!!

광개토대왕의 세계정복 선언!!

동서게임채널의 자체 개발 작품인 광개토대왕은 국내 최초의 전쟁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면서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인 광개토대왕을 주인공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의 주된 스토리는 북방의 이민족에게 빼앗겼던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군사를 일으켰던 대왕의 용감무쌍한 활약이다.

광개토대왕의 두드러진 특징은 영화를 보는 듯한 자연스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전체적 색상과 게임의 조화이다. 30초 동안의 데모 화면을 만들기 위해 4개월 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이를 잘 반증한다고 하겠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새로운 컴프레션(화일 압축) 방식과 리얼 타임 디컴프레션(압축 풀기) 기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플레이어가 내린 명령이 없더라도 캐릭터 스스로 기대치 못했던 행동을 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등장인물들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했다. 그래서 게임중 플레이어로부터 내려진 어떤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 캐릭터 스스로가 알아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상황에 따라 강이나 산과 같은 장애물들은 피해가고 그 장애물이 미약한 적이라면 싸워서 지나가며 이기지 못할 상대라면 숨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게임이 진행된다.

한편, 음악 효과에 있어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갖춘 음악이 삽입되었고 전쟁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는 효과음이 사용되었다.

문의처 : 동서게임채널(02-774-0261)

전륜기병 자카토

게임의 줄거리

동아시아 연방 우주국에서 전투 메카닉 교육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훈련함정 플루토호는 본부로부터 인도된 다섯 기의 신형 전투 메카닉을 싣고 최신예 전륜기병의 성간 테스트 및 조종사 양성 임무를 띄고 작전을 수행하게된다.

그러던 중 목성과 소행성군 사이의 공간으로부터 긴급 조난신호가 수신된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플루토호는 사령부로부터 인명 구조와 탐사 작업을 지시받고 최신예 전륜기병을 앞세우고 북미 연방의 우주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막고야(02-578-8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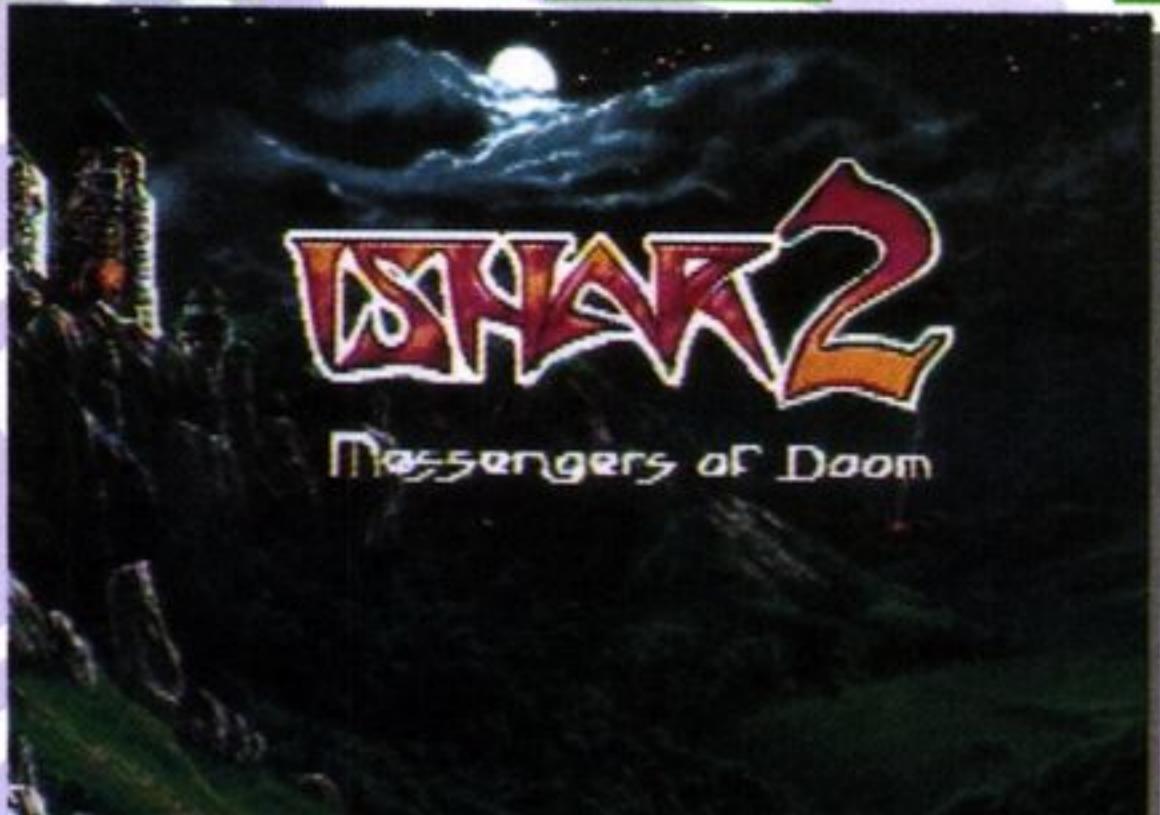
기종	IBM-PC	제작사	막고야	용량	2HD 6장 예정	장르	슈팅
가격	미정	발매원	미정	발매일	94/2월 하순	난이도	중

전투 메카닉 조종사들의 한판 승부!

자카토, 자카토-T, 플루토는 동아시아 연방 우주군 소속의 전투 메카닉이다. 등장 인물들은 남자 주인공인 중위 이 헌(24세), 여주인공 소령 진 링(26세), 소위 채 유미(20세) 등으로 모두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들이다. 이제 그들에게 최신예 전륜기병 자카토의 실전 테스트 기회가 찾아오는데…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테이지 구성

엔딩 스테이지를 포함하여 총 9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테이지마다 애니메이션들과 개성있는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지루함을 없앴다.

이제 국산 게임은 재미없다는 통념을 분쇄하기 위해 자카토가 일어선 것이다!!

이스하의 전설 2

-파멸의 전령-

기종	IBM-PC	제작사	실마릴스	용량	2HD 2장	장르	롤플레잉
가격	20,000원	발매원	소프트네트	발매일	94/1월	난이도	중

문의처 : 소프트네트(02-517-1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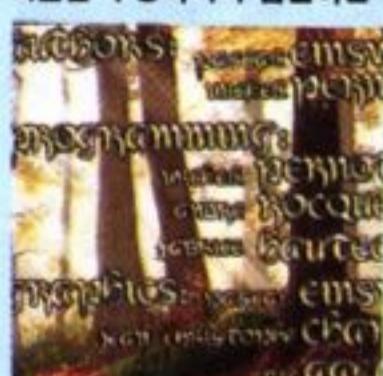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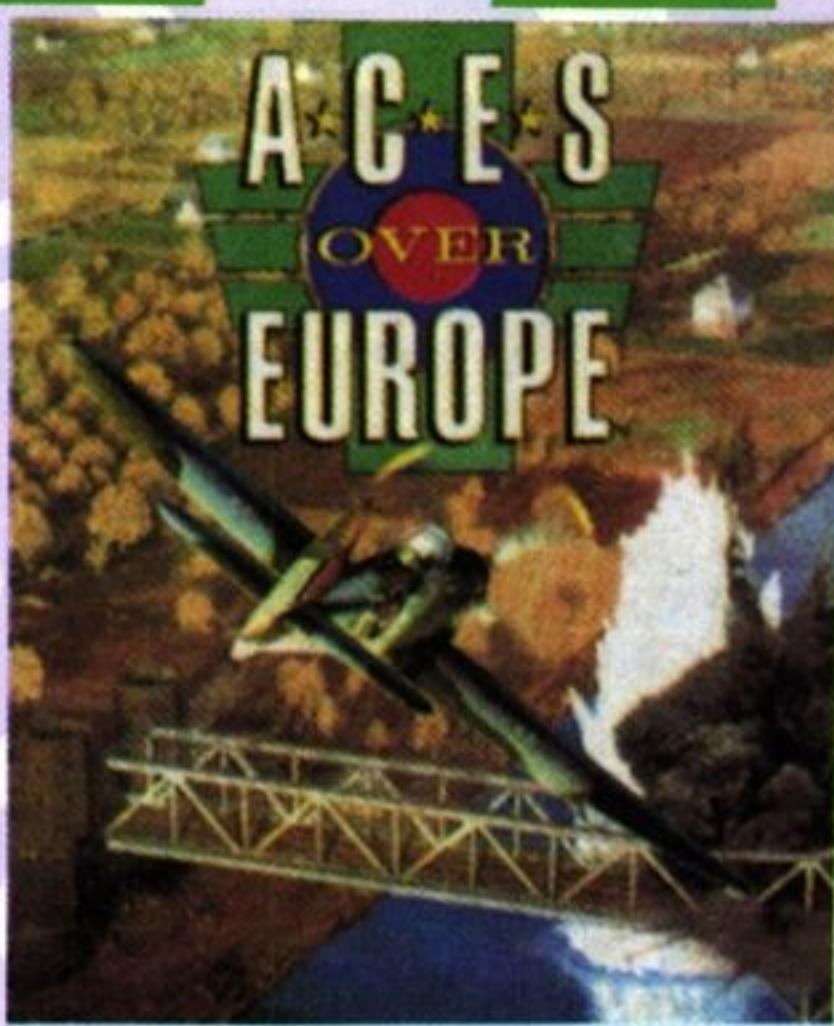
파멸의 전령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아르보레아의 수정」에서 엘프족의 왕자 야렐은 모르고스에 대항하여 마법의 수정을 되찾고 켄도리아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 그러나 그가 죽자 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아르보레아의 수정」과 「이스하/요새의 전설」에 이어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당시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인 이스하는 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르보레아 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바다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북쪽의 땅에서 많은 이주민이 건너온 자크섬은 급속히 발전하여 순식간에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스하의 새로운 통치자인 주르바란은 심상치 않은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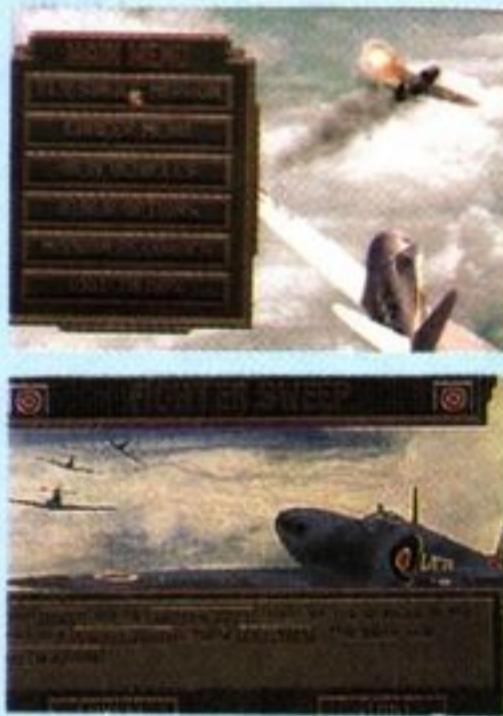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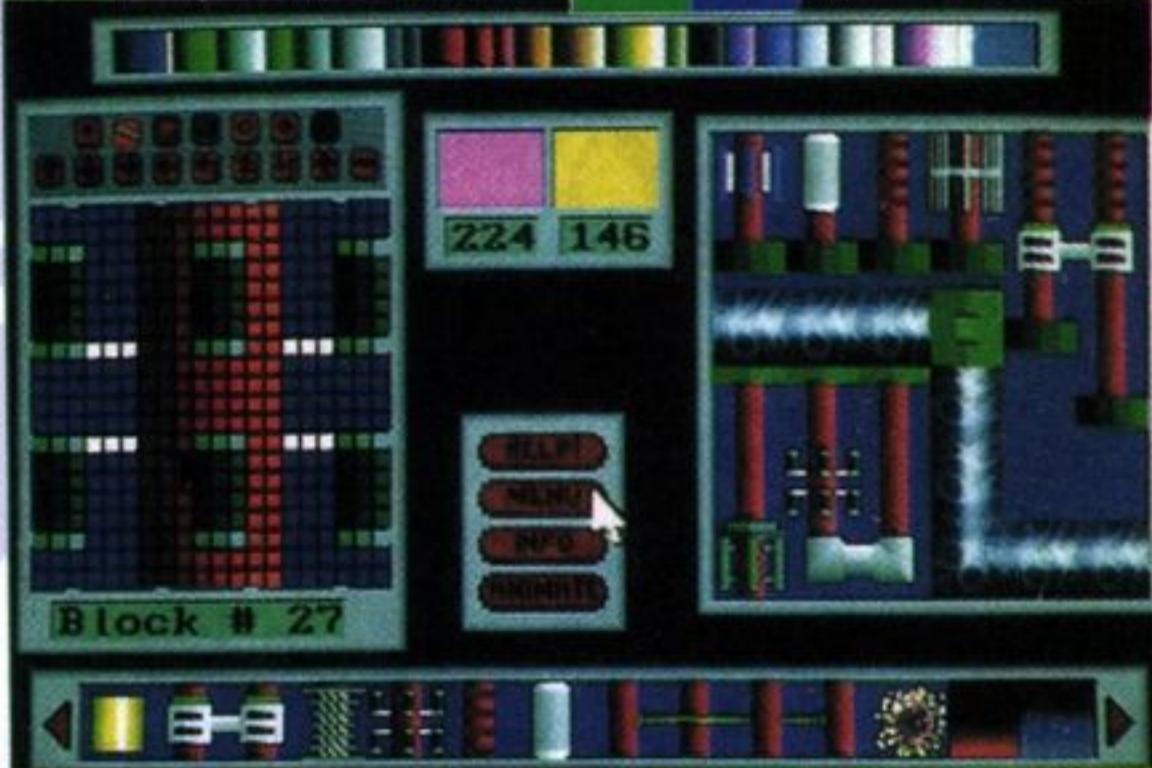
대원을 추방하거나 암살하는 독특한 게임 요소 탑재!

유럽의 에이스

기종	IBM-PC	제작사	다이나믹스	용량	3.5인치 3장	장르	비행 시뮬레이션
가격	35,000원	발매원	동서게임채널	발매일	94/1월	난이도	중

문의처 : 동서게임채널(02-774-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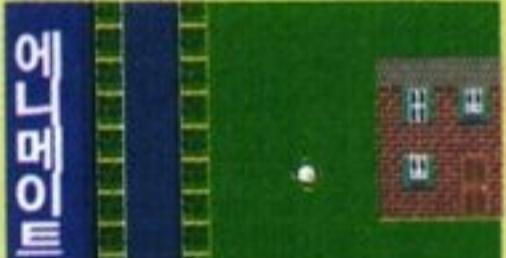
이것이 최고의 공중전 시뮬레이션이닷!!

「태평양의 에이스」에 이어 다시 한번 비행 시뮬레이션 팬들을 매료시킬 「유럽의 에이스」가 출격한다! 태평양의 에이스보다 그래픽과 음향효과를 더욱 보강하여 만든 작품으로서 여러분이 직접 미국공군이나 영국공군, 나찌 시대의 독일공군의 파일럿이 되어서 역사적 임무 비행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 전쟁에서 가장 위대했던 조종사들과의 일대 일 대결과 적편대와 주인공 편대의 단체전도 벌일 수 있으며 임무 녹화기로 임무 전체를 저장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의 에이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실제 사진을 매뉴얼 중간 중간에 삽입해서 흥미를 갖고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세한 조정법, 키조작 등을 실제 키보드를 찍은 사진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정성어린 작품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게임 난이도나 게임 조작방법이 매우 쉬우므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메이커

기종	IBM-PC	제작사	레크레이션S/W디자인	용량	2HD 1장	장르	유틸리티
가격	49,800원	발매원	아미시스	발매일	93/12월	난이도	상

게임메이커로 만든 게임이 하이텔에 떴다!!

이 게임들은 원본인 「게임메이커」가 없이도 도스 상태에서단독 플레이가 가능하므로 통신상의 다운(go gldown 1)란에서 아미시스의 ID를 찾아(LI oh5210) 프로그램을 받아(down)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메이커 소개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캐릭터 굴렁쇠(?)가 주인공이다. 회전하는 수레바퀴 모양의 캐릭터를 조종해서 「END」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골인하는 게임이다

자전거를 탄 폭주족을 조종해서 광활한 대지를 여행하는 게임

우주의 중심에서 시작된 별빛이 은하계의 저편까지 여행을 하는 것이다. 흑성마다 엄청난 미로로 성되어 있다

얼음이 깨지기 전에 재빨리 얼음을 통과해서 따뜻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게임으로 중간에 곰, 늑대와 같은 적들이 괴롭힐 것이다

파이프로 구성된 미로에서 박쥐, 괴물 등과 싸우며 망가진 파이프를 찾아내는 게임이다

게임메이커 소개에 나오는 앵무새가 타이틀 화면으로 등장한다. 잘생긴 청년 하나가 봄기운이 완연한 들판을 산책하던 도중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게임이다

곰인형의 다락 탈출을 슈퍼마리오 스타일의 게임으로 탄생시켰다

비디오랜드에서 외롭게 여행하는 주인공 비키가 우주의 끝에 있는 미로를 찾아가는 힘겨운 모험을 펼친다

문의처 : 아미시스(324-5917)

터미네이터 램피지

기종	IBM-PC	제작사	베데스다 S/W	용량	3.5인치 6장	장르	아케이드
가격	33,000원	발매원	SKC소프트랜드	발매일	94/2월	난이도	중

문의처 : SKC 소프트랜드 : (080-023-6161)

2029년 로스엔젤레스의 어느날 우주 기지 스카이네트 내의 중앙 컴퓨터가 자신을 잠시 사라지게 한 후에 미래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스카이네트는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한 죽음의 날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터미네이터들을 지구로 보내게 된다. 이들에 대항하여 코너 대령이 이끄는 반체제 전사들은 1984년으로 되돌아가서 스카이네트의 부활을 저지하고 인류를 구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웅~ 치키 웅~ 치키 웅~ 마이 네임 이즈 터미네이터 램·피·지!!

터미네이터가 다시 한번 부활한다!!

영화 터미네이터 이후 PC 게임에도 「터미네이터 2029」, 「터미네이터 체스」 등의 작품이 등장한 바 있지만 그다지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터미네이터의 명예 회복을 외치며 또 다시 부활한 램피지! 이번엔… 진짜 재미있습니다!! PC 상에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완벽한 3차원 360도 입체 전투를 구현하였다. 물론 그래픽과 사운드 면에서도 자신만만!!

7번째 손님을 보는 듯한 3차원 그래픽

무기와 에너지도 모니터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많다!

아케이드 히트게임 차트

순위	제 목	제작사	장르
1	사무라이 쇼다운	SNK	대전 액션
2	호혈사 일족	아틀라스	대전
3	아랑전설 스페셜	SNK	대전 액션
4	사무라이 에이스	반프레스토	슈팅
5	슈퍼 스화 2	캡콤	대전 액션
6	퀴즈	세가	테이블게임
7	용호의 권	SNK	대전 액션
8	뉴맨 어슬리틱스	남코	스포츠
9	세이브 컵 축구	세이브	스포츠
10	월드 히어로즈 2	SNK	대전 액션

캐릭터 프로필

1 스테이지 이동

전작의 맵과는 전혀 다르다. 대전이 끝나면 자신의 위치가 나타나고, 다음 상대자가 있는 곳이 나타나면서 다음 대전지의 프로필이 나온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음 대전지는 헬기로 이동한다. 과연 돈도 많이 벌었나 보군.

2 등장인물

① 료 사카자키

한적한 시골의 마굿간, 료가 나타나면 주변의 말들이 숨을 죽이고 대전을 지켜본다. 전작에서 사용하던 바이크도 있군. 무적의 용으로 전작보다 더욱 당당해 졌다

② 로버트 가르시아

대 저택의 정문에 관객 한사람이 서있고, 옆쪽에는 분수대가 시원하게 물을 뿜어낸다. 전편에 타고 다니던 멋진 스포츠 카가 보인다. 최강의 호랑이처럼 보다 멋져졌지만 머리 스타일은 이상해졌다.

③ 유리 사카자키

사우스 타운에 있는 헬스 클럽이다. 뒤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가지 운동 기구도 보인다. 극한류(極限)의 피를 이어받은 자답게 멋진 공격을 한다.

④ 다쿠마 사카자키

다시 도장을 열었나(?) 드디어 닫았던 도장문을 다시 열었다. 여러 수련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면 왕 창피! 극한류(極限)의 대부이지만 과연 이번 게임에서 대부일지는 의심스럽다.

⑤ 킹

아직도 여장 남자라니! 바뀔 때도 됐는데… 써커스를 공연하고 있는 한밤중의 유원지. 한적한 거리 중앙에서 점술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의 '무에타이 레이디'라는데…

⑥ 존 클로리

사우스 타운의 농촌 같이 보인다. 왼쪽 옆에는 집이 보이고, 한쪽옆에는 창고가 있다. 정면에는 구식 비행기가 보인다.(군대 제대했나…?) '초음속의 사신' 드디어 농촌 지킨다. 수입농산물 사용 결사반대!

⑦ 믹키 로저스

'비극의 다크사이더'가 다시 챔프의 꿈을 키우려(??) 도장에 다니고 있다. 아무래도 정식 도장은 아닌 듯하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체육관같은데, 정면에는 링이 보이고 선수들이 지켜보고 있다. 역시 관중이 있으니 지면 왕창피!

⑧ 잭 터너

앗!! 잭이 바이크 폭주족이었단 말인가…? 밤이 깔린 거리에 뒤에는 바이크들이 주차되어있다. 잭의 패거리인 듯 싶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과연 그는 부활한 미술 테벌일지도…

⑨ 리 파이론

역시 전설적인 '애크로배트 크로우'로 차이나 타운에서 살고 있으며 관중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거리에 2층 버스가 있는 걸 보면 마치 홍콩을 연상케한다. (챔프 미술부 언니 홍콩에 놀러 갔는데… 혹시 격투를 목격했을지도)

⑩ 에이지 기사라기

수수께끼의 극한류 살인마로 이번에도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항근처로 갔다가 격투를 하게된다. 저 멀리 관제탑이 보이고 비행기들이 있다.

⑪ 테무진

사우스 타운의 부둣가, 아마도 테무진은 부두 노동자인 듯하다. 일하다 말로 격투하면 감독관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텐데… 멀리 컨테이너가 있고 배도 보이며 저 멀리에는 바다가 보인다

⑫ 미스터 빅

여전히 공장을 경영하는 공장장인 듯하다. 겉모습은 사장이지만 어디가 나쁜 관계로 공장장이 한계이다. 밑에는 하수구가 보이며 정면에는 빅의 차(오… 리무진이다.)와 경호원인 듯하다. 역시 공장 사장인 것같다. 빅은 전편에서 구속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직도 잘 사는 걸 보니)

기본 조작법

8방향 레버를 사용한다. A, B, C, D 버튼 네개 모두 사용한다. 버튼 사용법은 전작과 전혀 다르다. (기 줄이는 것은 똑같군…흠…) 오래 누르면 강한 필살기가 나가고 살짝 누르면 약한 필살기가 나간다. 누르고 있는 시간에 따라 필살기의 강략을 조절할 수 있다.

A 버튼	펀치
B 버튼	킥
C 버튼	강한 펀치나 킥 (적이 가까이 있으면 잡아서 던진다)
D 버튼	상대편 기줄이기와 도발 포즈(유리 도발 포즈가 귀엽다)
A 나 B	버튼을 눌러주면 기를 모을 수 있다.

책속의 책 Ⅱ

캐릭터의 숨겨진 필살기

각 캐릭터의 필살기는 5개 이상이며 전작에서 주인공을 조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필살기를 구사할 수 있다. 각 캐릭터별 필살기는 좌측(왼쪽)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소개한다.

1. 료 사카자키

이 게임의 주인공이다. 어릴 적 부터 극한류 공수를 연마.

호황권 (↓, ↘, →+A) 비연질풍각 (↙(모은후), →+B) 참렬권 (→, ←, →+A) 공중에서 호황권 쓰기 (점프중에 ↓, ↘, →+A) 빌트 어퍼 (→, ↓, ↘+A) (전작보다 나아진 기술이다.)
숨겨진 기술 (하, 좌하, 좌+B) : 일종의 연타공격
초필살기(패왕상후권) →, ←, ↙, ↓, ↘, →+A)

료의 호황권

비연질풍각

참렬권 작렬

2. 로버트 가르시아

대체로 료와 대등한 기술을 가진 캐릭터이다.

용격권 (↓, ↘, →+A) 비연질풍각 (↙(모은후), →+B) 환영각 (→, ←, →+B), 공중에서 비연질풍각 (점프중에 ↓, ↙, ←+B) 빌트 어퍼 (→. ↓, ↘+A)
숨겨진 필살기 (하, 좌하, 좌+B) 연타공격
초필살기(패왕상후권), 좌, 좌하, 하, 우하, →+A)

로버트의 용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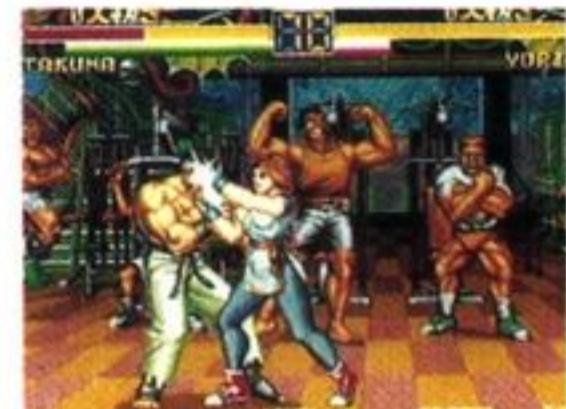
환영각에 당한다

아니? 공중에서 비연질풍각을

3. 유리 사카자키

이번에 등장한 뉴 캐릭터이다. 사용하기 쉬운 편이고 필살기도 다양하다. 기술을 펼치는 것을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필자는 유리의 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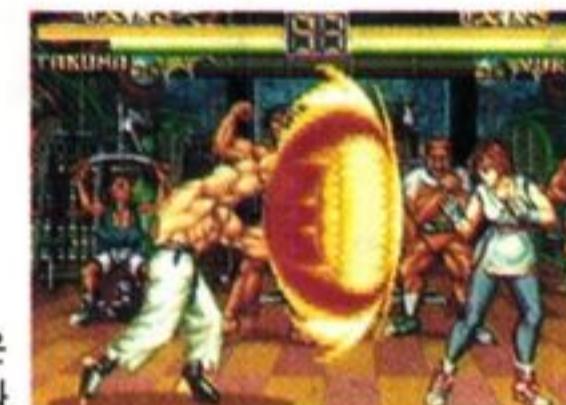
유리의 호황권(분홍색이다)

호황권(↓, ↘, →+A)
숨겨진 필살기1 (↓, ↙, ←+A) 앞에 바리어를 치는 기술. 숨겨진 필살기2 (↓, ↘, →+B)공중으로 점프하면서 장풍 숨겨진 필살기3 (→, ←, →+A)료의 참렬권과 비슷 (여자답게 잡아서 따귀를 때린다.) 숨겨진 필살기4 (↓, ↙, ←+B) 연타공격
공중에서 적 잡아던지기 적과 같이 붙었을때 C 버튼. 히프 공격 B 버튼을 누른다. (환상의 공격이다.)
초필살기(패왕상후권) →, ←, ↙, ↓, ↘, →+A

유리의 패왕상후권
(아니 이럴수가 !)

4. 타쿠마 사카자키

료와 유리의 부친이며 전작에서는 미스터 가라데였다.

호황권 (↓, ↘, →+A), 비연질풍각 (↙(모은후) →+B) 참렬권 (→, ←, →+A)
숨겨진 필살기1 (↓, ↙, ←+B) 달려가서 무릎찍기 연타. 숨겨진 필살기2 (↓, ↙, ←+A) 연타공격
초필살기 (패왕상후권) (→, ←, ↙, ↓, ↘, +A)

패왕상후권은 내가 원조다

5. 킹

킹… 그녀는 전작에서는 미스터 빅의 수하였으나 이번에는 어떨지…?

베놈 스트라이크 (↓, ↘, →+B), 토네이도 킥 (→, ←, →+B) 숨겨진 필살기 (↙, ↓, ↘, →, ↗, ↑, ↖, ←+B) (로버트의 환영각과 동일)
오버 드라이브 킥 (↓. ↙, ←+B)
초필살기(더블 베놈 스트라이크) (→, ←, →, ↘, ↓+B)

존 얼굴 영구됐다

베놈스트라이크의 위력

6. 존

전직은 군의 훈련 교관… 이제는 군대를 제대했으려나…?

메가 스메쉬 (↓, ↘, →+A) 아이언 커터 (↙(모은후), →+A) 오버드라이브킥 (↓, ↙, ←+B)
점프중에 B 버튼 누르면 드릴킥이 된다. (달심한테 배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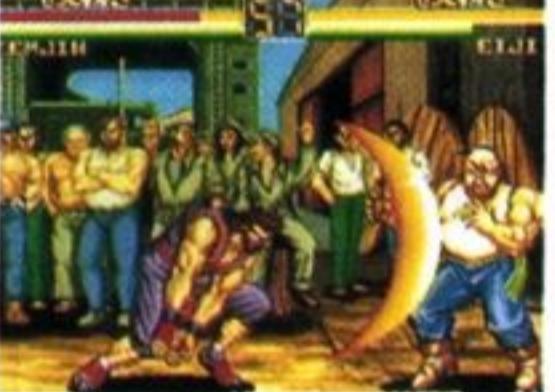
더욱 강해진 매가스매쉬

버닝어퍼 (↓, ↘ →+A)
롤링어퍼 (↓, ↘, →+B)
? ? (↓, ↙, ←+A) 연타기술
? ? (←, →, ←+C) 상대방을 잡아서 배를 가격
? ? (↓ (모은후), ↑+A) 공중으로 회오리 같은것 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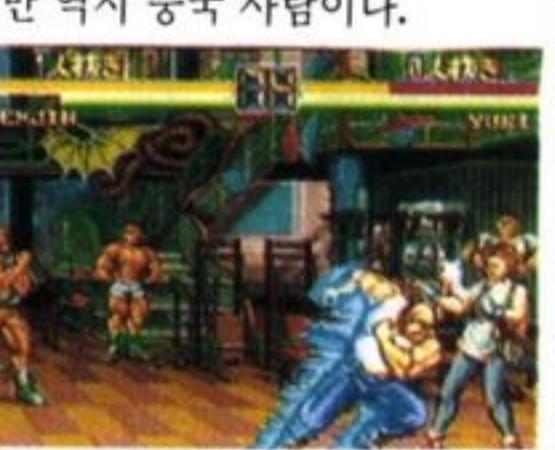
8. 에이지

숨겨진 필살기1 (↓, ↑+A) 장풍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숨겨진 필살기2 (↘, ↓, ↙, →+B) 날아가서 밟는다. (김갑환에게 전수) 숨겨진 필살기4 (↓, ↓, →+C) 돌진하며 칼을 쓴다. (무기를 쓰다니…) 아니, 로렌즈 블루즈?
초필살기(? ?) (↓, ↘, →, ↘, ↓, ↙, ←+A)

뉴 캐릭터이다. 아마도 인술을 배운 듯하다.

앗! 내 기술에 내가당하겠네…

진짜 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9. 테무진

숨겨진 필살기1 (↓, ↘, →+A) 앞에서 불이 솟아오른다. 숨겨진 필살기2 (←, ↙, ↓, ↙, →, ←+A) 적의 하체를 공격 숨겨진 필살기3 (→, ↘, ↓, ↙, ←+A) 적을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숨겨진 필살기4 (↓, ↙, ←+A) 연타기술
초필살기 (←, →, ←, ↙, ↓, ↘, →+A)

사무라이의 왕후와 비슷하지만 역시 중국 사람이다.

앗! 테무진! 누굴치는 거야! (필자)

10. 잭

언제 스크류 펀치를 배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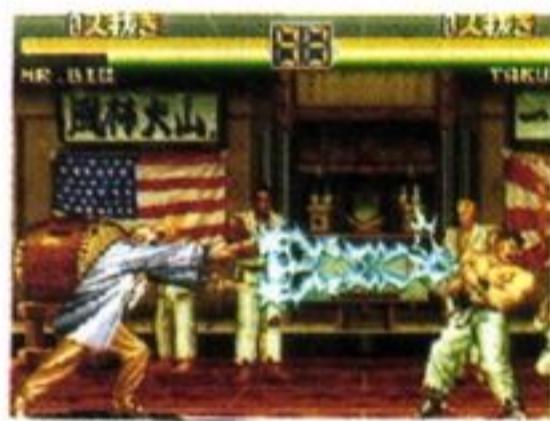
어스퀘이크에 버금가는 엉덩이 공격

슈퍼 드롭킥 (↙(모은후), →+B) 낙탈 바트 (↓, ↘, →+A)
초필살기 (←, →, ↘, ↓, ↙, ←+B)

11. 리

손톱공격 상단 (↓, ↘, →+A) 손톱 공격 하단 (↓, ↘, →+B) 백열권 (→, ←, →+A)
초필살기(? ?) →, ←, ↙, ↓, ↘, →+A

날렵한 리

회전 손톱의 무서움

12. 미스터 빅

숨겨진 필살기1 (↓, ↘, →+A) 미키의 롤링어퍼랑 같은 기술 숨겨진 필살기2 (↙(모은후), →+A) 바이슨의 싸이코 후레쉬와 동일 숨겨진 필살기3 (←, →, ↘, ↓, ↙+)

전기다. 빛나는 머리가 발전소인가!

컴퓨터와의 격투와 엔딩의 비결

『용호의 권 2』가 등장했다면 역시 플레이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엔딩을 보기 위해 열심히 컴퓨터와 격투를 할 것이다. 1편에서 사용했던 기술을 잘 응용해 컴퓨가 조종하는 각각의 12명의 플레이어를 격파하는 비법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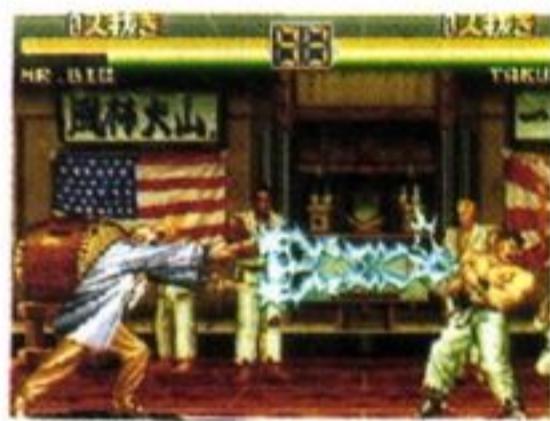
1. 료 사카자키

대체로 접근하는 필살기를 사용하면 료는 잡아서 던지기나 참렬권을 시도하므로 주의, 거릴 두고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자, 점프 공격을 하면 빌트어퍼에 맞을 염려도 있다.

2. 로버트 가르시아

용격권 공격과 하체공격을 주의, 역시 료와 같이 빌트 어퍼를 잘쓴다. 공중에선 비연질풍각에 주의.

3. 유리 사카자키

데미지(충격)은 약한편이지만 기가 없어지면 마치 '언더 커버캅스'의 여자 주인공처럼 '히프'공격을 하므로 주의, 공중에서 싸우면 잡아던지는 공격을 하므로 불리하다.

4. 타쿠마 사카자키

비연 질풍각 공격을 상당히 많이 쓴다. 필살기 사용후 기회를 잘 포착하면 유리하다. 또한 '호황권'도 상당하지만 방어 위주의 공격을 펼친다.

5. 킹

베놈 스트라이크 공격과 신기술(환영각 비슷한것을 주의 한다.)

6. 죤 크로리

메가 스매쉬 공격과 하체공격에 주의

7. 에이지

장풍류로 에이지를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당한다. (장풍 되치기)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8. 테무진

신기술(싸이코 후레쉬 같은 공격)에 주의한다. 그리고 발공격에도 주의한다.

9. 미키

롤링어퍼를 한 다음에 점프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신기술(잡아서 배를 구타)에 당하기 때문이다.

10. 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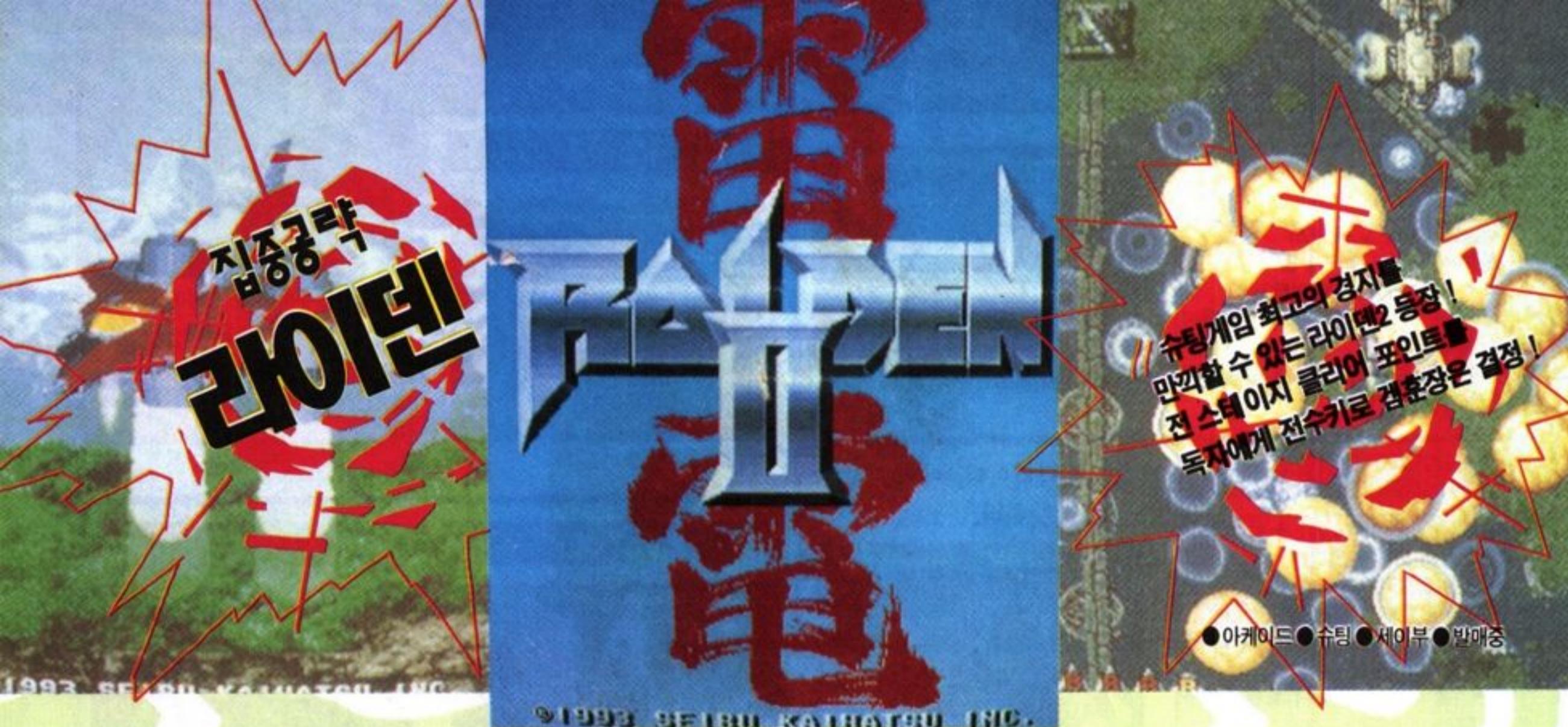
플레이어가 방심할때 잭은 초필살기를 사용하므로 주의. 1편에서 처럼 점프공격을 많이 한다. 역시 조심해야 한다.

11. 리 파이론

어떤 캐릭터보다 쉽지만, 스피드가 있어서 공격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일단 표면상 보이는 특징이 많지 않아 잘만들어진 캐릭터 같다.

12. 미스터 빅

연속기에 주의, 장풍을 쏘고 바로 날아오는 기술을 사용한다. 타쿠마 다음으로 어려운 적이다. 또한 봉을 자주 사용하므로 빨리 뒤로 후진해 점프하거나 던지는 필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아케이드●슈팅●세이부●발매중

1 슈팅의 신화적 존재

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 그러니까 에어로 화이터즈, 사무라이 에이스 등의 대작 슈팅게임도 나오지 않았을 무렵, 환상적인 사운드와 미려한 그래픽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던 슈팅게임이 있었으니 그 게임이 바로 '라이덴'

그러나 오락실의 풍토가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여러 대작들에 묻혀 사라져갔다. 하지만, 이제 라이덴은 다시 돌아왔다. 더욱 파워업된 각종 보스를 거느리고! 확산 봄버와 프리즈마 레이져를 장착하고 발진하자!

오프닝 장면 정말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2 기본조작

레버의 조작법은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슈팅의 모델이다. 두개의 버튼이 존재하는데 1개는 슈트, 나머지 하나가 위험할 때 사용하는 '확산 봄버'다. 아주 간단한 조작법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은 I.Q가 2자리도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스화의 6버튼에 머리를 혹사당해야만 했던 2자리 유저들이여! 여기 라이덴이 간다! 나간다잉~

3 전작과의 비교

배경이 섬세하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섬세하다. 전작에서는 지상에다 아무리 폭탄을 투하해도 지표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고작 탱크가 폭파된 자리의 땅이 파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다. 폭탄을 투하해보라. 시가지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더욱 리얼해진 슈팅의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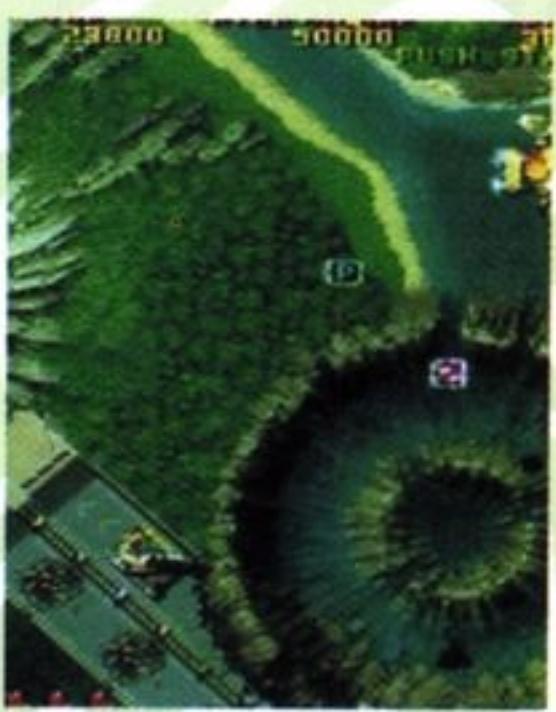
적 캐릭터의 격추 장면도 대단히 섬세하다. 전작에서의 '꽝'이 아니다. 아군의 총알세례를 받은 적기는 서서히 아래로 줌 아웃되어 지상에서 '콰쾅' 그때 튀어나가는 파편들과 효과음이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4 전작과의 변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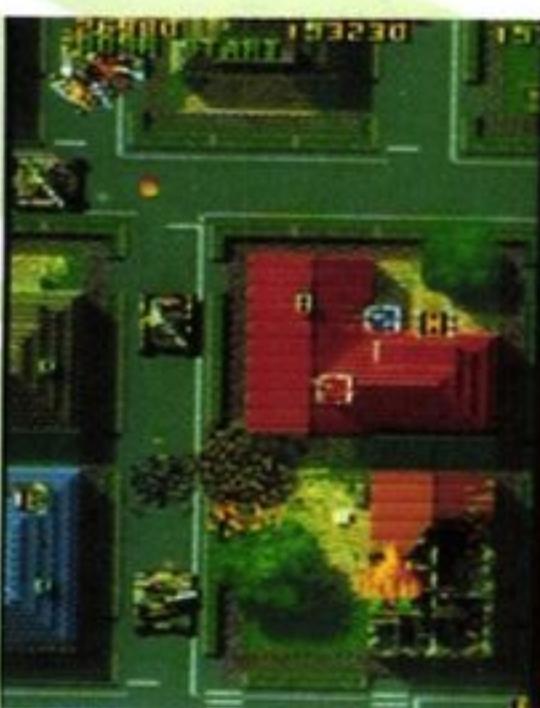
전작과의 변경점은 크게 볼 때 2가지가 있다. 먼저 폭탄의 변화이다. Ⅰ에서는 단순한 봄버밖에는 없었으나, 이번편에서 확산 봄버라는 새로운 봄버가 첨가되었다. 수십개의 작은 미사일이 뇌전주위로 확산된 후 땅으로 내려간 다음 "꽈꽈꽈꽝~" 너무 화려한 기술이다.

두번째로 슈트의 종류가 늘어난 것인데, 전작에서 발칸포와 레이져 둘뿐이었으나 이번에는 '프라즈마 레이져'라는 신 기술이 생겼다. 유니트의 색깔은 보라색이며 처음에는 발칸과 별 차이가 없으나 연타하면 슈트가 굵어지다가 갑자기 현란한 보라색의 레이져가 되는데 레버에 따라 휘도가 틀려진다.

일단 적에게 명중되면 끝까지 적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도망치려는 적과 격추시키려는 아군기 사이에서 꾸불거리는 빛줄기란 흡사 1마리 용을 연상시킨다.

1. 스테이지 포인트

1스테이지

전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공중전

①처음부터 아이템 수송기가 출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
②가다가 보면 ↓ 모양으로 포를 쏴대는 중형급 적을 만난다.
③분화구를 지나고 나면 중형급의 비행선이 나와서 총알을 많이 쏴댄다.(으…) 대체적으로 쉽다고 할수 있다.

조용한 마을에 웬 전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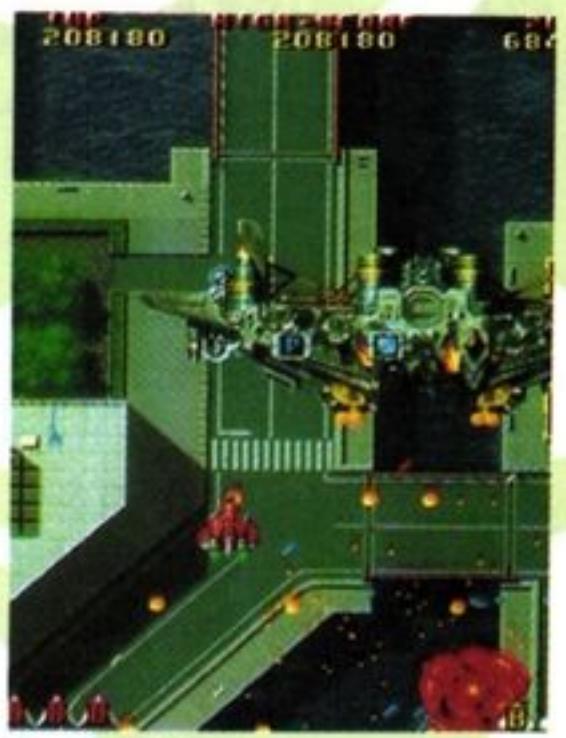
오른쪽 하단에 적전차 한대가 폭파된 흔적이 보인다

보스 대형전투기

2스테이지 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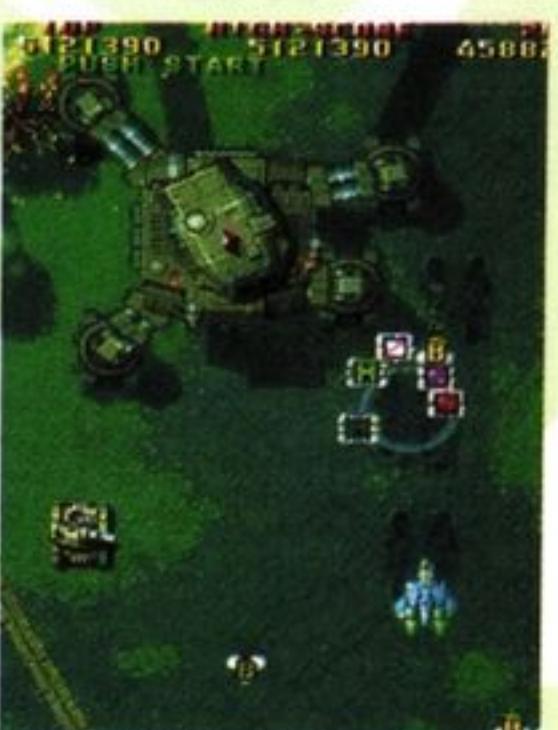
이 녀석은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공격을 감행해온다. 무수한 탄환을 피하며 공격하는 데는 프라즈마 레이저가 제격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우선 처음은 간단하다…뒤에서 적들이 발진한다.

격납고를 파괴시키면… 두방향의 포를 교차시켜서 쏜다.(피하기 대단히 곤란)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쏜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사방으로 퍼지는 포탄을 쏜다.

보스 전차

1스테이지의 보스라고 얕보면 곤란하다. 주기적으로 많은 탄환을 뿜어대므로 거리를 두고 공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

포를 쏴대는 패턴은 4방향 포를 쏘고 있다가 보스의 포탑 위치가 바뀌면 확산포를 쏘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피해야 한다.

주의 : 이 녀석에게 봄버를 너무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마리가 더있기 때문이다.

1스테이지의 보스 거미전차 ? 게전차 ? 네발전차 ?

2. 스테이지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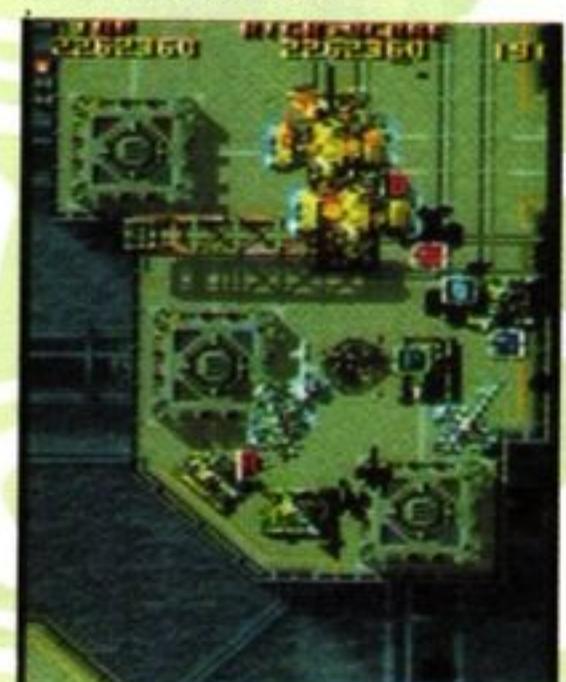
①중반에 중형탱크가 2대 출현하는데 내구력이 정말 끝내준다. 거의 보스급이다.
②스테이지는 마을인데, 이곳에서 확산 봄버를 사용해오면 아래 배경에 숨어있는 적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
③전원지대에서는 아이템을 언자. 시가지로 들어서면 중간 보스급의 비행기가 나온다. 포탄은 의외로 간단한 패턴으로 쏜다.
④해변가에 도착하면, 문제의 탱크가 나온다. 형태는 탱크의 각 포탑에서(6개) 한 발씩 쏘는 포탄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포탑에선 두방향으로 쏜다. 이것만 주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

3. 스테이지 포인트

①이곳은 적의 해상기지인듯하다. 중반에 중형전투기가 2대 출현하지만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닌 듯 하다.
②처음부분에 해저터널을 타고 적의 탱크가 등장한다. 어느방향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주의하시길.(필자는 찍기 실력을 발휘.)
③그 다음은 중형급의 배가 나오는데 가운데 부분이 약점이다. 다시 가다 보면 유조탑을 개조한 곳에서 적들이 공격한다. 이곳도 가운데가 약점이다. 이곳을 노리자.

이번에는 해상전이다.

앗 ! 파워업 아이템 이다

책속의 책 II

보스 초대형 장갑차

대책이 없는 녀석이다. 먼저 포대를 모조리 파괴한 후 몸통을 공격하라!

중간에 불기둥을 발사하기도 하므로 움직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의 빈틈이 없이 포를 쏴대는것 같지만 번갈아가며 쏘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면 쉽게 격파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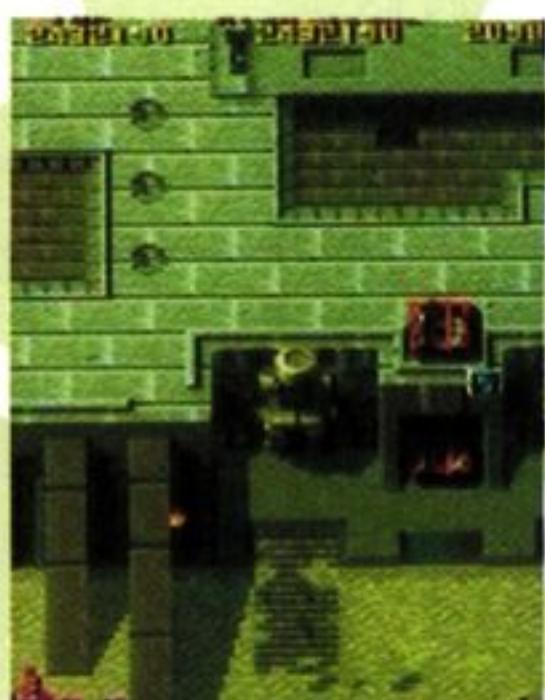
3스테이지 보스. 정말 무식하게도 생겨먹었군

4. 스테이지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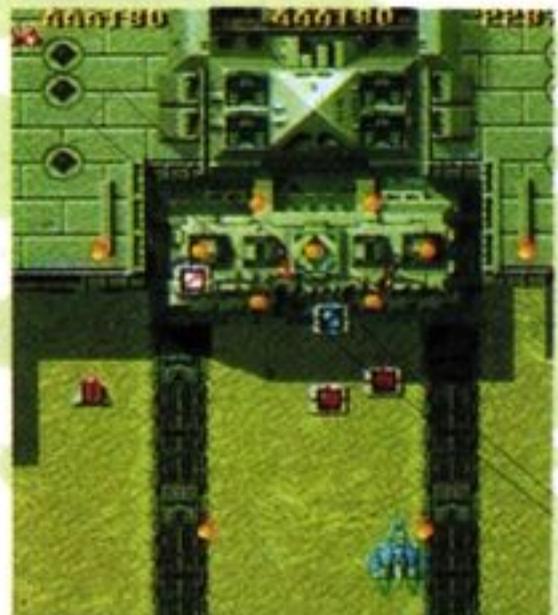
①이번 스테이지는 울창한 숲이다. 이곳에도 확산 봄버를 사용하면 생기는 스테이지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곳, 고정포대들의 공격을 특히 주의하자.

②사막지대에서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숲지대로 가면 중형비행기 2대가 공격해 온다.(이것은 저번에 나온것과 동일하다.)

③유적지로 가면 탱크들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온다. 봄버를 최대한 이용하자.

④호수로 가면 석상들이 서 있다.(이곳은 무슨 섬이지…??) 석상들중에 두개 정도가 움직일 것이다. 놓치지 말고 잡자.

이번에는 고대 유적인가?

울창한 대삼림. 봄버 투하

보스 우주모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확실한 총알을 많이 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밖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식한 보스. 뒤로 이동하면서 쏘기 때문에 범위가 넓다…그러나 의외로 가운데가 빈다. 그곳을 최대한 이용하자. 보스가 합체해 버리면 가운데의 틈도 없어지니 민첩하게 적의 공격을 피하자.

4스테이지 보스. 고대인의 유물일까?

5. 스테이지 포인트

①이 곳은 적의 셔틀 발사 기지다. 확산 봄버의 위력에도 변하지 않는 스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견고한 요새같은데… 중형 캐릭터의 출현이 평원지대에서는 간단한 적이 많이 나온다.

②적의 기지 내부로 가면 레일을 타고 적들이 나온다.

③중형급 적들도 둘이나 있다. 적의 기지내로 들어오면 셔틀이 발진하려고 한다. 꼭 저지시켜야 한다.

여기 뇌전이 간다

헬기는 빼놓을 수 없는 자코 캐릭터

보스 적의 셔틀

셔틀은 불을 뿜으며 우주로 나가려 한다. 날개와 가운데 부분을 노려라. 셔틀때는 간단히 포를 쏘지만… 셔틀이 폭파되고 나오는 보스는 대단히 위협적이다. 가운데서는 2방향으로 포를 쏴 대고 좌우로 이동하며 쓰는 포가 양쪽에 하나씩 달렸다. 이 포가 교차할 때 약간의 틈이 생기는데 이곳을 잘 이용하자.(봄버도 최대한 사용하자…게임오버가 싫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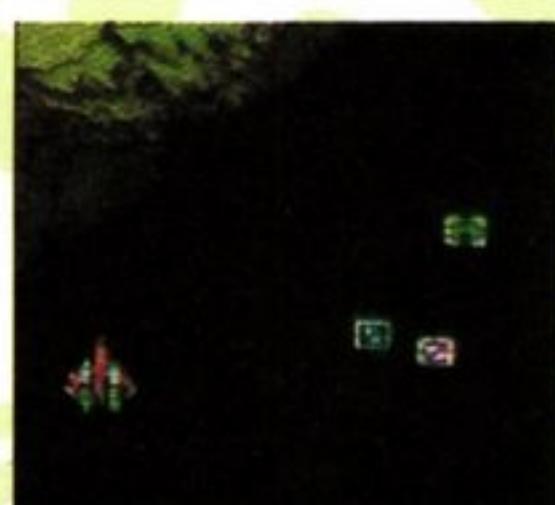
5스테이지 보스

6. 스테이지 포인트

①다시 기지로 귀환하는 라이덴 그러나…다시 우주로만 향해야 하는 라이덴… 악의 근원을 찾아 우주로 발진하는 라이덴.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는 대우주이다.

②스테이지의 배경이 다른 만큼 공격도 다르다. 지금까지 출현했던 거의 모든 캐릭터가 등장하여 맹공격을 펼친다.

③우주에는 운석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

④적 기지로 들어서면 중형급 적이 3대나 나온다.

용호의 권 시리즈는 92년 스화2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이면서 SNK사의 네오지오 전용 게임이다. 줌인, 줌아웃 등 커다란 캐릭터와 화려한 필살기의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던 '92년 최고의 소프트웨어 '용호의 권'의 속편이다.

게임챔프는 국내 최초로 게임을 입수, 12시간동안 철야로 오락실의 명인을 자부하는 달인(?) 3명이 철저 분석해 그 진상을 공개한다. 과연 전작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그 비밀의 베일이 서서히 공개되는 순간이다.

용호의권 2

●아케이드 ●SNK ●대전 액션 ●발매중

게임의 배경 스토리

전작에서 료 사카자키는 납치된 동생 '유리'를 찾기 위해 친구인 로버트와 함께 사우스 타운을 찾아 다녔다. 사우스 타운 안에 있는 강자들과의 격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마지막 보스와의 싸움에서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된다. 유리를 납치 했던 미스터 '가라데'는 바로 행방불명되었던 자신의 부친이었다. 그로부터 1년후 다시 사우스 타운 안에는 결전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으니…

이것이 달라졌다!

1 보너스 스테이지의 변화

용호의 권	용호의 권2	보너스 스테이지 클리어시
병 자르기	나무자르기	기늘리기
얼음깨기	불량배 격퇴	체력 늘리기
초 필살기 전 수	초 필살기 전 수	정해진 시간안에 정해진 갯수만큼 초 필살기를 연마하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료와 로버트 말고, 등장하는 전 12명 모두 초 필살기를 연마할 수 있다.

2 캐릭터가 다양하게 변화 (12인으로 늘었다)

전작에서는 대전시에만 전캐릭터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스토리 모드에서도 12인 전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 비운의 캐릭터가 한명 있으니 그는 다름아닌 '등당용백'이다 등당용백은 용호의 권 1스테이지의 대전 상대였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번 2편에는 캐스트되지 못했다. 아마도 집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불쌍하군…).

나쁜일도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법. 뉴 캐릭터가 3인 추가되었다. 타쿠마 사카자키는 전작에서도 사용가능. 이번에 추가된 캐릭터는 『유리 사카자키』와 『템진』, 『닌자인 에이지』가 추가되었다.

유리는 전작에서 나약해 보였지만 1년동안 수련을 한 모양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유리 사카자키를 좋아한다. (나오길 기다렸는데 만세~)

3 캐릭터의 기술이 변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캐릭터가 대거 등장했다. 전작의 료와 로버트만 『던지는 필살기』를 구사했으나 이번에는 전 캐릭터가 상대방을 잡아 던진다.

그리고 전작에서 료와 로버트의 독주를 가능하게 했던 연속 발차기가 없으졌으니 적들도 공포감이 없어졌다. (참 잘된 일이죠…?) 또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 파격적으로 달라졌다.

4 상대하는 캐릭터를 고를수 있다.

전작은 스토리 모드에 따라 적들과 대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스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비밀의 인물은 미스터 빅이다. (미스터 빅 출세했다…)

'용호의 권 2'의 캐릭터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스테이지도 모두 12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너스 스테이지와 숨겨진 보스가 있다면 12스테이지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보스 전차 2

포신의 움직임을 읽어라. 포신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피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앞의 포탑은 두방향, 세방향, 두방향, 이렇게 쏘고 가운데 포탑은 사방으로 쏜다. 뒤에 있는 포탑은 세방향으로 쏜다. 여기도 빈틈을 이용하면 쉽게 공략할 수 있다.

6스테이지 보스

7. 스테이지 포인트

①이 스테이지는 운석군이다. 운석들을 어서 부수지 않으면 운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②운석군을 돌파하면 적의 기지가 있다.
③후반에 오노레일 전차가 등장한다. 중간보스인가?

앞의 두 포탑은 앞으로만 쏘고 뒤에 있는 포탑은 사방으로 쏴대니 옆으로 피한다. 여하튼 막강한 적. 봄버로 히트 앤드 런 작전을 펴자.

보스

이음새에도 포탑이 있는데 두방향으로 쏜다. 두번째 날개에는 앞으로 연속으로 쏘는 포와 사방으로 쏘는 포가 있다.

이 보스는 내구력이 상당한 녀석이다. 별다른 공략법은 없고 상당한 인내력과 봄버가 요구된다. 양 옆에 있는 날개에선 한방향으로만 포를 쏜다. 날개

7스테이지 보스 정말 거대하군

마지막 스테이지 포인트

①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다. 중반에 중형전차 5대가 동시 출현하여 공격하는데 상당히 애먹을 것이다.
②우주에는 별로 강한 적이 보이지 않는다.

가운데 불룩한게 뭐지?

③기지로 들어서면 자 모양으로 포를 쏘는 적이 5개나 등장한다. (위험하다…)

LAST BOSS

아니! 이럴수가 중반에 떠돌던 붉은 크리스탈이 보스였다니. 마지막 보스인 만큼 굉장한 녀석이다. 3번이나 변신을 하면서 무수한 탄환을 쏘아 댄다, 아니 뿌려댄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보스인 만큼 격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프라즈마 레이저로 박살내자. 봄버의 적절한 사용이 키포인트.

첫번째에는 비교적 간단하다. 모든 포탑이 두방향으로 쏘는 포를 사용한다. 한번 터진후 많은 포탑이 생긴다. 옆에는 작은 크리스탈이 등장해 라이덴을 공격한다. 이것은 라이덴을 향해 두발씩 쏘는 포를 사용한다.

이 크리스탈들은 터트려도 자꾸 생긴다. (이상한 일이다…?) 뒤에도 포탑이 6개 정도 있다. 이것들은 한 발씩 쏘는 포들이다. 가운데 있는 큰 크리스탈만 집중공격하자!!

보라 프라즈마 레이저의 위용을…

아케이드 천국/겜동아리(소프트 씨티) "네오지오 전문 매장입니다"

-최근 오락실에서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오지오용 게임이 드디어 소비자에게도 판매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네오지오 전문매장의 탄생으로 수많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게되었다는 말인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오락실에서 최근 1,2,3위가 모두 네오지오용 게임이다. 『매니아』라면 누구든 갖고 싶은 게임기. 열성 매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네오지오지만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 하드웨어 구매 가격이 천차 만별이라 불만이 가득한 골치덩어리 네오지오.

그렇게 말도 많고 소문도 많았던 네오지오의 관련 상품을 정품 및 확실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 매장의 탄생은 환상속의 네오지오가 아닌 현실성있는 게임기로 새탄생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 주인공이 바로 「겜동아리」.

매장은 깨끗하게 정리된 편이며 일반 게임매장을 연상케 한다. 겜동아리(소프트 씨티)는 93년 11월에 오픈한 이후 일반 게임 유저와 오락실의 회원을 2,000명 이상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일반 게임(SFC, MD, IBM)등도 판매하고 있다.

일반버스 : 812, 33, 33-1, 32-2(삼전동 우체국앞 하차)
연락처 : 647-1044

위치
롯데월드
잠실역
겜동아리
석촌호

환타시스타

—The end of millennium—

(후편)

송백정은 사랑스런 전국의 수퍼 알라딘보이 유저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철저공략을 펼친다. 그리고 송백정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쓰자.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은 바로 송백정의 마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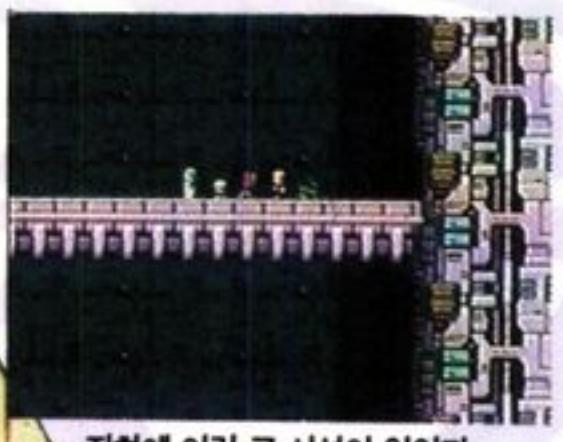
라이라를 잃은 스레이 일당은 다시금 그의 묘에서 전의를 다졌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오를 물리치고 나르바스를 정지시켜 모타비아에 평화를 되돌리는 것이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지오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지오를 물리치자

지오스 포트 1층에 있던 결계 뒤쪽에는 지하유적 나르바스로의 계단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지오도 있다. 일행은 나르바스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지오를 물리치기 위해 나르바스로 향했다.

이 결계는 사이코 원드가 있다면 간단히 풀리치므로 걱정 끝. 던전은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길게 되어있어서 한번에 가려고는 하지말 것. 지오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잊지말자.

이 아래가 모든 컨트롤 시스템의 중앙 나르바스다

지금 나르바스는 폭주 중으로 외부에서의 제어는 불가능하다

지하에 이런 큰 시설이 있었다

수퍼 알라딘보이	국내 발매일	93/12/17	장르	롤플레잉	화면외국어 수준	일본어 상
	제작사	세가	용량	24M	대상 연령	중학생 이상
	국내 발매가	91,800원	기타	동시발매	게임 난이도	AⒷC DEF

ILLUSTRAT

지오의 등장. 뒤에 컨트롤 시스템도 보인다

지오는 매직바리어가 쳐져 있는 한 무적이므로 가장 먼저 사이코 원드를 써야한다. 일행의 행동순서를 정할 수 있는 매크로를 이용하면 조금은 더 유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회복에 신경을 쓰자. 지오의「검은 파동」공격은 매우 강력해서 체력이 약한 캐릭터는 조금만 HP가 적어도 한방에 전투불능이 되기 때문이다.

일행과의 이별

지오를 물리치면 프레나는 나르바스를 검추게 하기 위해 일행과 헤어진다. 그녀가 있어야 나르바스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행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오를 물리쳤다!!

프레나는 자신의 일을 마무리 해야만 한다

일행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변의 근본원인을 없애기 위해 프레나의 마스터인 워랜이 있는 인공행성 제란으로 가기로 한다. 워랜은 이 알골 태양계의 각종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자다. 프레나는 우주로 가기 위한 우주선을 준비해 준다. 우주공항은 무너진 지오스 포드 옆에 나타난다.

워랜을 만나러 가야한다

갑자기 나타난 우주공항

파이크는 자신의 여동생을 혼자 두고 멀리 여행을 갈 수는 없는 것같다. 그의 목적도 물론 지오를 물리치는 것이었다. 우주로 나가는 일행과 파이크는, 결국 헤어지게 된다.

우주공항 앞에서의 이별… 흠, 이상한가?

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행은 그란으로 가기 위해 우주선에 다시 올랐다.

인공행성 제란의 전경

워랜은 이번의 원인을 이야기해 준다

데졸리스에 불시착

우주선을 타고 그란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생명반응이 우주선에서 감지되었다. 우주선의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그 이상한 생명 반응체의 정체는 바로 자객이었다. 누가 보낸 자객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적을 물리친 일행은 곧바로 가장 가까운 별 데졸리스로 불시착을 시도한다.

"우주선의 상태가 이상하다?"

"엔진을 부수는 거나 너희들을 죽이는 거나 같지!"

가능한 방법은 데조리스 별에 불시착하는 것뿐

상황을 모르는 팔. —"와!! 불시착, 멋있어!!!"

모험은 다시 우주로…

워랜과 만난 일행은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이변의 원인이 인공행성 그란에서부터 발사되는 괴 전파에 있다는 말을 듣는다. 제란은 모든 기후 컨트롤의 정점이지만 문제는 그란에 있다는 것이다. 제란은 지금 작동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라 제

우주선을 찾자

일행이 탄 우주선은 데졸리스 별에 안전하게 불시착. 그러나 일행의 우주선은 한 사원을 깨끗히 뭉게버렸다. 사원의 승려들은 일행에게 강력히 항의를 해온다.

사원을 부순 대신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승려할아버지 라져. 이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모험을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다.

알골태양계 제 3행성 —데졸리스트—

일행과 말다툼이 되어버렸다

라쟈와 합류하게 되는군

덕분에 든든한 동료가 늘었다.

라쟈는 방어력이 약하지만 회복마법이 많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주선을 찾아야 한다

바깥으로 나가면 눈이 많이 오고 있다. 이 눈은 3개월째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 별에도 이변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같다.

라쟈는 카르벡 탑이 생긴 이후 이런 이변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란으로 가는 것. 이별의 어느곳엔가 우주선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들은 일행은 우주선을 찾기로 한다.

라쟈가 폭우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말투가 이상한 아주머니. 라쟈의 친구인 듯

일단 북쪽의 테일러 마을로 가 라쟈의 친구(?)인 술집 아주머니를 만나자. 그 아주머니가 많은 정보를 줄 것이다. 여러가지 많은 정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선에 대한 정보로 마을의 동쪽에 있는 이 마을을 세운 사람, 테일러라는 사람의 묘를 잘 조사해 보라는 것. 그냥 그런 이야기같지만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중요하다.

주의! : 이 마을을 세웠다고 하는 테일러. 그래서 마을 이름도 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환타시스타 2에서 주인공을 구해주는 우주해적 테일러인 것이다.

마을 동쪽의 묘비가 포인트

마을 동쪽에 있는 커다란 묘비를 잘(!) 조사해 보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목적인 우주선이 있는 것이다. 우주선의 이름은 「런딜」 호. 이제 그란으로 갈 수 있다.

이 묘비가 바로 테일러의 묘이다. 도굴꾼이 되는 느낌…

"「런딜」이라고 해요? 멋있어!!"

또 땅에서 솟아난 우주 공항

주의! : 「런딜」 호 라는 것은 바로 조금전에도 말한 테일러의 애기 이름. 2를 해본 독자라면 곧 기억 날 것이다.

인공위성 그란

이곳은 단지 한군데의 던전으로 취급되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적들의 환영을 받으니 주의. 이곳의 적들은 메카닉계가 많이 등장하며 컴비네이션 배틀을 쓰는 녀석들도 있으니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

워렌의 특수무기 하이퍼 자머를 얻었다

난공불락의 다크파르스

그란의 중심부에 도착하면 팔이 비명을 지른다. 팔이 본 것은 바로 다크 파르스였던 것이다. 다크파르스가 그란을 장악하고 자연 컨트롤 시스템을 잘못 동작시킨 것이다. 이 다크파르스를 물리치면 모든 이변은 없어질 것이다.

다크파르스는 강력한 전체 공격으로 일행을 공격해 온다. 레벨이 모자라면 힘들 것이다. 끈질기게 버티며 공격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물론 파티 최강의 공격을 퍼부어야 한다.

모든 이변의 원흉, 다크 파르스 등장

주의! : 쉽게 기억날 것이다! 환타지 스타 시리즈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악질 캐릭터, 다크 파르스가 이번에도 변함없이 등장

다크파르스를 물리치면 그란을 정상상태로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란의 시스템을 고치고 제란의 기능을 가동시키면 문제는 끝. 제란에서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조사한 후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가동시키면 이제 더 이상 기상이변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란의 기능을 정상상태로 고쳤다

또다른 모험의 시작… 그것은?

그런데 데조리스의 폭설은 멈추지를 않는 것이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일행은 무언가 석연찮은 기분으로 다시 데조리스로 향했다.

데조리스의 기상을 컨트롤 하는 컨트롤 센터는 이 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으로 가려면 얼음 산들을 지나가야 한다. 이에 워렌은 그 얼음산을 지나다닐 수 있는 「아이스 데커」를 준비해 준다.

데조리스의 기상이변은 변화가 없다

다시 모험이 계속된다

실버 데스크를 얻을 수 있다

아이스데커. 프레나가 없으니 요란스러운 소개는 없다

북쪽 동굴

아이스 데커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동굴이 하나 보일 것이다. 이 동굴에는 말하는 고양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루디의 눈이 선한 느낌이라며 들여 보내 준다.

이 고양이 마을(?)의 장로격인 분과 이야기 하면 실버 더스크를 준다.

스토리 진행과는 관계가 없지만 공짜로 아이템을 주는데 안가질 사람 있나?

주의! : 또다시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하는 고양이는 환타시스타 1에 등장하는 마우의 후손이 아닌가 싶다. 또 실버더스크도 그때의 강력한 방어용구였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동쪽으로 가면 마을이 보인다. 이 마을은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하지 말란 뜻에서), 도구점에서 파는 이 마을의 특산품, 펭귄먹이(ペンギンのえさ)는 절대 구입하지 말것. 도구점에서 나가는 즉시 무서운(?)펭귄이 빼앗아 간다.

이것이 펭귄의 먹이인데…

강도 펭귄 등장!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펭귄을 키우고 있다.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팔은 귀엽다지만…

이 마을에서 장비품을 철저히 갖추자. 이유는 몸으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팔 : 와! 귀엽다!
루디 : 스레이, 귀여워?
스레이 : …. 아니

간지러워~
헤헤

데졸리스성의 기상 컨트롤 센터로… 그러나

마을에서 북쪽으로 가면 기상 컨트롤 센터가 있다. 이곳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일행은 중심부로 향한다.

이것이 컨트롤 센터 건물. 위치를 헷갈리지 맙시다~

"역시 여기가 이상기후의 원인인 것같군요"

그러나 이곳은 단지 적들의 함정이었다.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다. 다크파르스를 물리쳤는데도 이변은 계속되고… 적도 우리를 계속 노리고…

기상이변은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다고 한다

"기상시스템에 이상무"

폐허마을의 좀비

일행은 계속해서 발길을 동쪽으로 옮겼다. 두곳의 마을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 군데의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다. 마을에서 좀비가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마을이다.

마을은 폐허인 상태이다

마을에서 좀비가 등장한다

다음 마을은 다행스럽게도 정상인 것같다. 아니 이곳도 마을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죽으면 좀비가 되어 꼭 화장을 한다고 하니…

이곳의 여관은 이미 환자 수용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곳에 가면 많은 에스퍼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스레이는 이곳에서 강한「검은파동」을 느낀다고 한다. 전부터 라져가 말하던 "카르백탑"이 아무래도 문제인 것같다는 것이다. 마을사람의 말에 의하면 예전의 지오스 포드가 생길 때처럼 하룻만에 생겼다는 말도 들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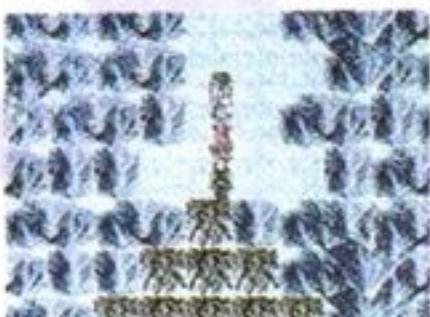
이 마을은 비교적 정상

스레이와 팔은 「검은 파동」을 느끼고 있었다

식인나무와의 전투

에스퍼와 대화하는 도중 갑자기 라져가 쓰러져 버린다. 거기다 갑자기 세스라는 에스퍼 소녀가 단신으로 카르백탑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일행은 쓰러진 라져를 뒤에 두고 세스를 구하러 카르백 탑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카르백 탑은 마을의 북동쪽에 있다.

카르백 탑의 입구는 식인나무들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도착하면 나무들과 전투가 시작되지만 물리쳐도 계속 다시 생기므로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세스를 발견, 구해낸 일행은 세스와 동료가 된다.

전투가 시작되지만 도망가는 게 좋다

카르백 탑의 입구인데 이상한 나무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세스를 구했다. 못말리는 아가씨다

에스퍼의 관으로

세스의 제안에 따라 에스퍼의 관에 가서 루츠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최고의 에스퍼라면 무언가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며 일행은 동남쪽 에스퍼의 관으로 향했다.

큰 건물이 보인다. 에스퍼의 관

에스퍼에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

에스퍼의 관 중심부에는 허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세스가 급한 상황이라며 부탁해도 문지기는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스레이가 지나가게 해달라며 한마디 하자 갑자기 문지기의 태도가 바뀐다. 스레이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그럴까?

에스퍼의 관 중심부에는 루츠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크

단호한 문지기

에스퍼의 관 중심부에 들어왔다. 루츠를 짝사랑하는 세스는 두근두근
"앗! 내 옷은 안 더러운가? 머리는?"

리스탈 볼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그리고 스레이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2,000년 전 인물인 루츠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믿은 세스에게 스레이는 진실을 말해준다. 루츠의 의식을 담은 크리스탈 볼에 의해 루츠의 의식은 계속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섯번째의 계승자가 스레이인 것이다.

루츠에의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던 세스는 실망….

카르백 탑의 입구를 막고 있는 식인나무들은 전설의 「이브리스 토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 불은 서쪽의 칸비아스 대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세스의 실망은 생각보다 큰 모양이다.

이 크리스탈 볼에 루츠의 의식이 담겨 있다

실망하는 세스. 표정이 재미있다

루디, 스레이, 세스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카르백 탑으로 가는 길

대성당과 마을

대성당 바로 옆에 보이는 마을은 여러가지 정보와 강력한 무기가 있으므로 먼저 가보자.

마을의 무기점 주인은 마을 서쪽에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그안에 대단한 무기가 있는것 같다고 한다. 또 어떤 주민은 대사원에 1000년 이상 살아온 대 승정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준다.

주민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서쪽에 건물이 보이지? 옛날에 세워진 건물인 것 같던데."

무기공장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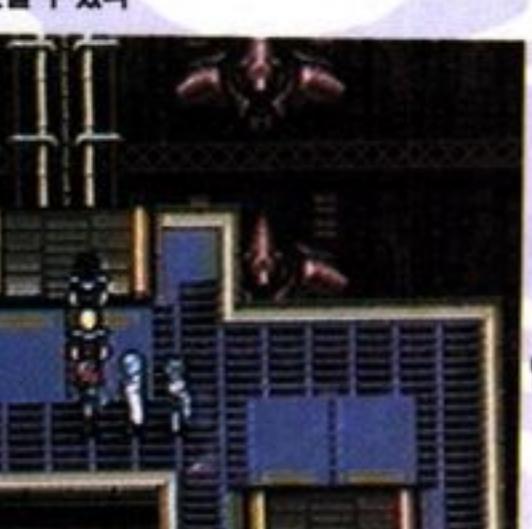
일단은 서쪽의 수상한 건물부터 가보자.

그곳은 예전에 마더브레인이 비밀리에 설치한 무기공장이다. 마더브레인은 지금 없지만 지금까지 작동을 계속하고 있다. 가게에서 살 수 없는 워렌의 장착품이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얻는게 좋다(앞으로 한참 동안은 새로운 무기가 없다).

여기가 문제의 무기공장

"천년전 마더 브레인이 비밀리에 세운 공장입니다"

워렌의 장착품 「버스트 록」을 찾았다

이곳에서 리페어키트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다

밑에 로봇들이 보인다

이브리스 토치를 도난

대사원에 가면 곧 이브리스 토치를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사정 이야기를 해도 빌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 컨트롤 센터에서 본 녀석들과 비슷하게 생긴 3인조가 나타나 이브리스 토치를 훔쳐 간다.

대성당 입구

아이템은 꼭 챙겨가자

이곳은 지나갈 수 없다. 뭘까…

이 상을 보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기분나쁜 녀석들

그리고 되찾고 싶으면 에어캐슬로 오라고 하는데… 에어캐슬이라면?

이브리스토치를 찾아 에어캐슬로!

에어캐슬

에어캐슬

들어가면 이곳이 던전이란 것을 곧 알아차릴 것이다. 이곳은 대단히 넓은 던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구로 들어가면 곧 토치를 훔쳐갔던 녀석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환영으로 길을 막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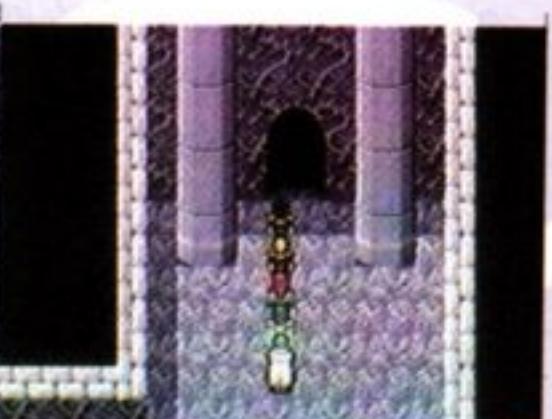
일단 길을 돌아 중심부로 나아가자. 한참을 돌아 중심부에 도착하면 이전의 그 녀석들이 있다. 3명과 싸우게 되는데 한 명부터 집중공격해 하나하나 물리쳐야 한다. 만약 전체공격을 시도하게 되면 적은 강력한 반격을 해 올 것이다. 꼭 한명씩만 공격해야 한다.

환영이 길을 막고 있다

전체공격은 절대 금물!

토치를 발견

녀석들을 물리치고 나면 환영이 없어지므로 길이 훨씬 짧아진다. 계속 길을 나아가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의 길은 멀고 다시 오는 길은 짧아지는데다 회복 포인트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세이브를 권한다.

끝까지 가면 이브리스 토치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가짜로 전투가 일어난다. 그리고 보스 라시크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다 온 것이다

이브리스토치는 가짜다

라시크가 등장했다

라시크를 물리치면 라시크는 이브리스 토치를 부수려고 던지지만 팔이 받아낸다.

라시크는 최후에 모든 이변을 완전히 끝내려면 녀석을 물리치라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몇번이라도 다시 암흑이 부활한다고 하며….

주의! : 라시크는 환타시스타 1에 등장한 중요 적캐릭터. 마지막 바로 전에 등장하는 비중있는 악역이다.

폭발하는 애어 캐슐을 뒤로하고 탈출하는 일행

토치를 받아내는 팔

카르백 탑

이브리스 토치가 있으면 식인나무들은 한방에(!) 사라진다. 그럼 탑으로 입장!

탑안은 건물같이 생긴 것이 없다. 이것이 탑안인지 의문일 정도다.

이 던전은 사진에 나온 스위치를 조작하면 길이 바뀌게 되어 있다. 갈 곳이 없이 막혔다고 생각되면 여러가지 벽이나 장애물을 잘 조사해 보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탑앞을 청소했다. 음~ 기분좋군

이것이 스위치다. 잘 찾아보자

끝까지 가면 다크파르스가 있다! 그란에서 물리친 다크파르스와는 모습이 약간 다르지만 다크파르스임에 틀림없다. 그럼 다크파르스는 하나가 아닌가?

다크파르스가 또 나타났다

전체공격이 역시 강력하다

대승정님의 출현과 어드바이스

탑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하늘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맑아진다. 이제 모든것이 끝났구나 하는 순간.

대성당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모험의 끝은 언제일까?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하늘이 맑아진다

대성당쪽에서 대폭발이. 다크파르스는 물리쳤는데…

대성당이 있던 자리에는 구멍만이 남아있다. 그곳에는 1000년을 살았다는 대승정님이 있었다. 대승정님은 아직 「영원한 암흑」이 건재하다며 「영원한 암흑」이 존재하는 이상 이변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 한다.

일행은 다시한번 우주 저편으로 가야한다. 모든 답이 있는 류크로스로.

"영원한 암흑의 건재지…"

류크로스로

일행은 류크로스로 가기 위해 모타비아로 왔다. 쿠르츠 마을 동쪽에 있는 신전에 가면 류크로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일행은 프래아에게서 물을 건널수 있는 프로무버를 받아 신전으로 향했다.

역시 메카닉을 소개할 때의 프래아는 들뜬 목소리

고고학자 시암이 동료로

신전으로 가려면 던전을 하나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외에도 신전에 갈 일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고고학자 시암. 몬스터가 무서워 동행은 많을 수록 좋다며 동료가 된다.

고고학자 시암

신전과 신전으로 통하는 던전입구

필요 이상의 친절을 보이는 시암. 이 녀석의 특기는 다크~~뭐뭐하는데… 전에 어디선가 본 이름 아닌가?

신전으로의 진입

던전을 빠져나가면 바로 신전이다.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를 하나 해두는 것이 좋다.
신전 안은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가운데 프리즘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프리즘을 얻고 밖으로 나오면…!

프리즘이 빛을 받아 류크로스로 가는 길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순간! 그 빛을 받은 시암이 비명을 지르며 변신을 시작한다. 바로 다크파르스로 말이다. 4인인 일행은 다크파르스와의 힘든 싸움에 이겨야만 한다.

프리즘을 얻었다

류크로스로의 길을 표시하는 빛

인간형의 다크파르스. 점점 진화한다

시암은 다크파르스였다

마지막 시련

일행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간다. 류크로스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진 적이 없는 미지의 별이다.

우주로 나가자!
류크로스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지도에도 없는 별이다

침묵의 신전에 도착한 일행은 한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다. 다짜고짜 그는 일행에게 시험을 내린다. 알골을 구할 인물들인지…

영문도 모르는 일행은 힘의 탑과 용기의 탑에 가 각각의 번인을 이겨야만 한다.

일행은 어디로 인도되는 것일까

힘의 탑

힘의 탑의 변인 구명

용기의 탑

이곳의 번인도 자객을 한방에 날려버린다

두명의 번인을 물리치고 알골 태양계를 상징하는 장비를 얻은 일행. 그러나 루디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왜 우리들이 이 싸움을 치루어야만 하는가. 위대한 빛과 영원한 암흑의 싸움에 왜 우리들이 개입되는가. 왜 우리는 암흑을 무찔러야만 하는가.

알골태양계의 다섯 별들은 각각 암흑을 봉인하는 징표였다

"나는 그런 것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야!"

"진실은 하나만은 아니야…"

스래이는 루디를 설득한다

자신이 지오같아진다며 확신하지 못하는 루디를 스래이는 에스퍼의 관으로 데리고 간다. 그곳에서 루디에게 성검 엘시디온을 소개한 것이다.

스래이는 루디에게 엘시디온을 만나고 오라고 한다

이것이 성검 엘시디온

알골 태양계를 위해 싸우던 영웅들의 넋과 공감하며

성검을 받아 든 루디.

루디는 결심을 굳힌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모든 동료들이 모였다

일행은 돌아왔다. 일행을 맞는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세스, 라져 모두들 힘이 되어 주려고 왔다고 한다.

단 한사람만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아쉽다

모타비아로 돌아온 일행은 또다시 재회를 한다. 프래나, 한, 파이크 모두들 함께 싸우기 위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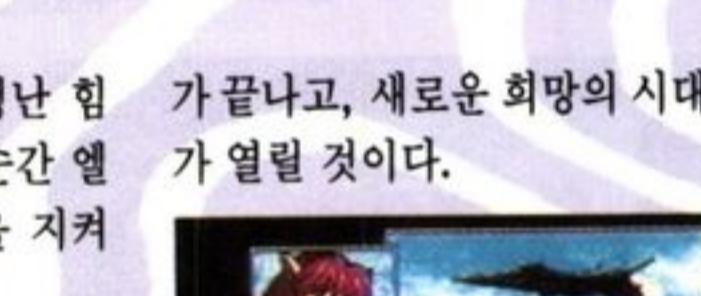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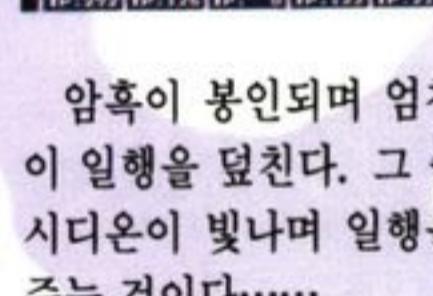
하지만 「검은 파동」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장비는 모두 5개. 단 한사람만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엔딩

피아타 북쪽에 생겼다는 이상한 구멍안에서 부터 검은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안 일행은 마지막으로 암흑을 봉인하기 위해 암흑의 중심부로 향한다. 지금까지 힘겨웠던 여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 구멍이 마지막 던전의 입구다

완전히 정신 없는 혼돈이다

마지막 보스. 여러번 모습을 바꾸며 일행을 괴롭힌다

암흑이 봉인되며 엄청난 힘이 일행을 덮친다. 그 순간 엘시디온이 빛나며 일행을 지켜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싸워던 동료들은 모두 떠나 간다… 그러나 이제 괴롭고 힘든 전란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챔프 게시판

1. 텔레파시 퀴즈 당첨자

3월호 당첨자

경인중학교1학년

슈퍼컴보이 1대

이동열/

제공 : 게임챔프 취재부

슈퍼컴보이 팩 각 1개

최석용/

권 철/

협찬 : 게임유통(716-6301)
포스트(715-3394)

2. 초음속 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시는 분 중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1명에게는 수퍼 알라딘보이 게임팩, 나머지 4명에게는 파격 챔프점수 500점을 드립니다.

문제 : 이번호 챔프에서 소개나가는 게임으로 용량이 24메가인 격투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터널 챔피언'으로서 '아랑전설', '스화'시리즈의 격투게임을 능가하는 액션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몇명일까요?

보낼곳 : 게임챔프 초음속퀴즈 담당자앞
마　감 : 1994년 2월 15일
발　표 : 게임챔프 94년 5월호

1월호 초음속 퀴즈 당첨자 발표
* 정답 : 리썰엔포서즈

수퍼 알라딘보이 롬팩

송상철/

협찬 : 보물섬(719-4564)

패밀리용 조이스틱

정현철/

협찬 : 조이컴(711-2598)

챔프점수 300점

김영길/
김성준/

안경호/

3. 보너스 퍼즐 퀴즈

문제 : 위기에 처한 만득이 아저씨를 도웁시다!! 정답자 발표

정답 : ①

당첨자 발표

정동화/

전승환/
이재우/
방용복/
전현선/
백기철/
김황용/
최은혜/
권혁균/
김명석/

이상 10명에게는 IBM-PC 게임 디스켓을 드리겠습니다.

4. 열성 애독자 엽서 작성자

애독자 엽서를 정성껏 작성해 보내주신분 중 선착순 100분중 5명을 추첨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김태훈/

박재형/
오지훈/
박종만/
김성대/

이상 5명은 IBM-PC게임을 드리겠습니다.

협찬 : 게임랜드(719-4044)

5. 애독자 엽서 공략평가 당첨자

애독자 엽서 공략평가를 성의껏 해주신분 5명을 추첨하여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근만/
배병욱/
이정오/
이광형/
백영법/

이상 5명은 IBM-PC게임을 드리겠습니다.

협찬 : 돌핀(719-9698)

6. 스포키 퀴즈 응모요령

700-7400 스포키 게임 환타지아에 있는 스포키 게임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우편 엽서에 적어서 게임챔프로 보내주세요.

스포키 게임 퀴즈 정답자 명단

강문식/
함진형/
이성근/

윤석우/
지문구/
진호진/

천기훈/
김기수/
조성우/
문영덕/

지면상 90명은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이상 100명에게는 챔프점수 각각 300점을 드리겠습니다.

7. 쥬라기 공원 어드벤처 게임북 사은당첨자 발표

* 정답 : TY 135, 합 139
* 정답자

네오지오 3명

백성기/
김승호/
이승백/

메가-CD 3명

강병윤/
윤한수/

송대현/

PC엔진 듀오

송태인/
노현래/

하덕일/

8. 이달의 협찬업체

게임궁전 (706-1800)
게임라인 (713-7033)
게임랜드 (719-4044)
게임뱅크 (706-5807)
게임왕자 (706-9097)
게임유통 (716-6301)
게임챔프 (712-8349)
게임천지 (702-3447)
게임타운 (706-5599)
게임파워 (706-9002)
나우게임 (702-1172)
돌핀 (719-9698)
보물섬 (719-4564)
불독소프트(703-0043)
삼일전자 (715-3131)
스테이지원(702-5087)
아랑 (715-5828)
조이랜드 (701-8371)
조이컴 (711-2598)

※ 게임관련 물품구입을 위 매장에 문의하시면 챔프 독자만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니비전

애니칼럼

국제망신－유령 만화 출판사

글 : 박병호
(만화컬럼니스트,
애니세대저자)

어느 유령회사의 'FSS'

○출판사라는 유령 출판사가 있다. 이 출판사가 유령업체라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잡지사로 받아놓고는 어디엔가 숨어가지고 단행본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가 경찰의 단속도 받지 않고 '떳떳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가 나가노 마모루의 인기만화 「파이브 스타 스토리」(이하 FSS)를 베껴다가 1, 2, 3권을 국내 서점가에 내놓았었는데, 원작도 수준이 높은데다 번역이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인기가 좋았다. 마땅한 일본어 번역가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제대로 된 번역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발군의 일어실력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 K씨가 컴퓨터 통신망에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베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나온 「FSS」의 번역이 엉망이었던 것은 이 K씨가 취업관계로 번역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어 학원 몇 달만 다녀도 그 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애독자가 된 독자들이 실망하면서도 그 번역판을 사갔다. 지난 12월 말에는 일본에서도 나오지 않은 「FSS」가, ○출판사에서 일본 잡지에 연재된 내용을 짜집기 편집 작업을 함으로써 만들어졌다. 나가노 마모루는 잡지에 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새로 그리거나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잡지 연재를 그대로 냈으니 충실한 책이 나왔을 리가 없다.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듯

「FSS」의 성공 이후 그들이 또 출판한 것은 「겨울이야기」와 「X」 등이었다. 「겨울이야기」는 하라 히데노리의 히트작이고, 「X」는 만화창작집단 CLAMP가 지금 일본 만화잡지에 연재중인 작품으로 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로도 만드는 등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작품이다.

「에어리어 88」을 베낀 「SS 에어리어」와 그림을 복사하여 말만 한글로 바꾼 「통키」, 「북두의 마신」등

○출판사가 잡지만 출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아놓고 만화책을 내놓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번역하는 만화들이 하나같이 불법적으로 베낀 것들이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그들은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직접 전화통화와 팩시밀리에 의한 서신교환을 한 결과, 오존이 내놓은 「FSS」는 물론, 「겨울이야기」와 「X」 모두 한국에 출판 허가를 한 적이 없다는 회답이 돌아왔다. 그 중 한 출판사의 사장은 피식 웃으며 "우리 회사의 만화가 대만과 태국, 홍콩 등에서 몇 만부나 불법복제되고 있는데 한국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라고 말했다. 또 어떤 곳은 이미 알고있었다며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제는 한국인끼리도 베껴…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만화계는 '일본 만화의 복사판과 베낌이 판치는 곳'이다. 최근 몇몇 작가들의 국제적 활동으로 그런 이미지가 없어져가는가 했는데 정부의 무관심을 틈타 불법적으로 출판 국제망신까지 시키는 출판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이런 불법 출판사만 우리 만화계를 더럽히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 이 지면을 통해 소개했던 「캡틴 츠바사」만 해도 오일룡이라는 작가가 베껴서 만화가게를 통해 인기를 얻는 등 만화가들이 일본 만화를 베끼는 사례가 많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유명작가 황미나 앞에서 일본인 만화가가 '당신은 (우리 일본 것을 베끼는 일 없이) 진짜 창작물을 내는 작가요?'라고 물었을까.

그런가하면 이현세나 황미나 등의 작품이나 등장인물을 베껴서 자기 만화에 써먹는 작가도 있다. 이현세가 조명훈이 내놓은 만화를 표절작이라고 고발하여 승소한 일도 있었다지만, 아직도 국내 인기작가의 그림체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작가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만화만 베껴그리는가 싶더니 만화 평론 분야의 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지난 여름에 어느 영화 잡지에 자칭 '만화 프리랜서'라는 사람이 「애니메이션 영화사」(백수사)라는 책을 그대로 베껴다가 기사로 실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일본 것을 베끼다 못해 같은 한국인이 쓴 것까지 베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감출 수 없다.

일본의 성인 만화도 요즘들어 많이 복제되고 있다. 사진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토쿄 러브 스토리」.

표지까지 그대로 베껴다 쓰고 있는 유령 만화책들

명작스테이션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2 (2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손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

대지 로케트탄에 의해 다리들이 하나하나 파괴되고 있었다

같은 때, 경시청의 회의실에서는 간부를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고토와 시노부도 출석해 있었다. 제 1소대 대장 시노부가 패트레이버대를 운용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이 회의는 특차 2과 지휘관의 징벌을 위한 회의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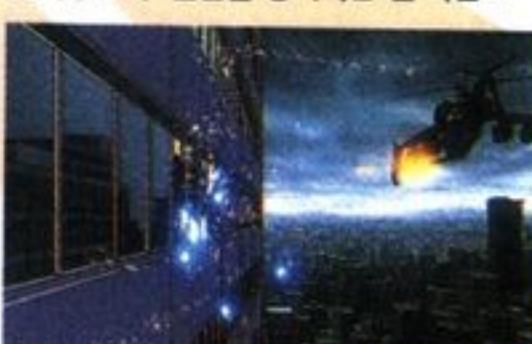
회의 도중 전화가 와서 잠시 자리를 뜨는 고토. 마츠이로부터 15분 전에 츠게의 비행선 3대가 떠올랐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곧이어 특차 2과로 전화를 거는 고토. 그러나 아무도 받지 않는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부서가 습격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회의실에서는 시노부와 카이보우의 언쟁이 한창이었다. 그것을 무시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고토. 그는 츠게의 행동과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지금 막 자위대 헬기의 공격에 의해 토쿄만 횡단교가 끊어졌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긴장에 휩싸였다. 분노한 고토가 벌떡 일어서 자신의 윗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손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

토쿄 내의 수많은 다리들이 헬 하운드의 공격을 받아 하나 하나 부서져나갔다. 중요한 다리들이 부서진 다음에는 각지의 통신시설이 습격당했다. 일본 전화국부터 작은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찾아내어 파괴하는 헬 하운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자위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다.

'쿠데타 부대'로 불리워진 츠게의 헬 하운드들이 교통망, 통신망을 파괴한 다음에 찾아낸 목표는 경시청 본부건물이었다. 마침 고토와 시노부가 연행되고 있는 데 헬 하운드의 기관총탄이 빌딩을 향해 날아들었다. 경시청이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타는 경시청 청사를 뒤로 하고 고토는 시노부의 손을 끌고 순찰차를 빼아타고서 도망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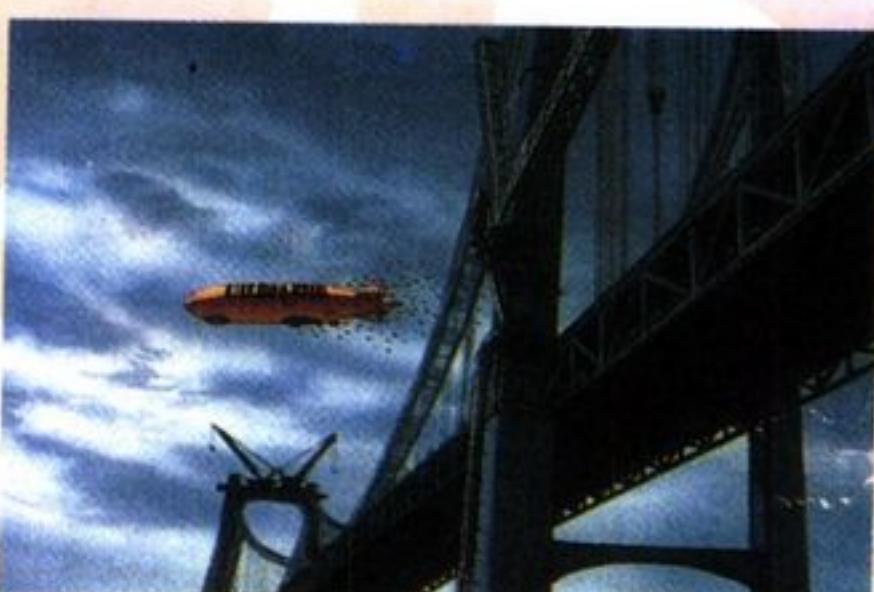
"시노부씨… 지금 내려서는 안돼요. 그 놈을 애시당초 멈출 수는 없었지만, 아직 승부는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경시청 본부 건물을 공격하는 헬 하운드

고토는 시노부와 함께 혼란을 틈타서 탈출한다

다리들을 다 부순 다음, 새로운 목표를 찾아 출발하는 헬 하운드

NHK 방송국도 습격당했다

특차 2과 제 2소대의 부활

전파 방해를 시작한 비행선

은빛 구름이 뒤덮인 하늘에 색깔도 선명한 노란 비행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비행선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채 조종되고 있었다. 비행선은 전파방해장치를 싣고서 도시 전체의 무선 통신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한 편, 고참 정비반원 '시게'는 옛날 제 2소대 대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옛 대원을 모아서 대처하라'는 고토대장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카키의 집에서 고토의 추리를 듣고 있는 시노부

사카키는 자신을 찾아온 정비반원들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한다

모이라는 전갈을 받고 출발하는 아스마와 노아

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반격에의 투지로 아직 무사한 기재들을 레이버 운반차량에 싣고서 출동하는 특차 2과 정비반원들.

한편, 지금은 정년퇴직한 옛 정비반장 사카키의 집에 시노부를 데리고 와서 피신해있는 고토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해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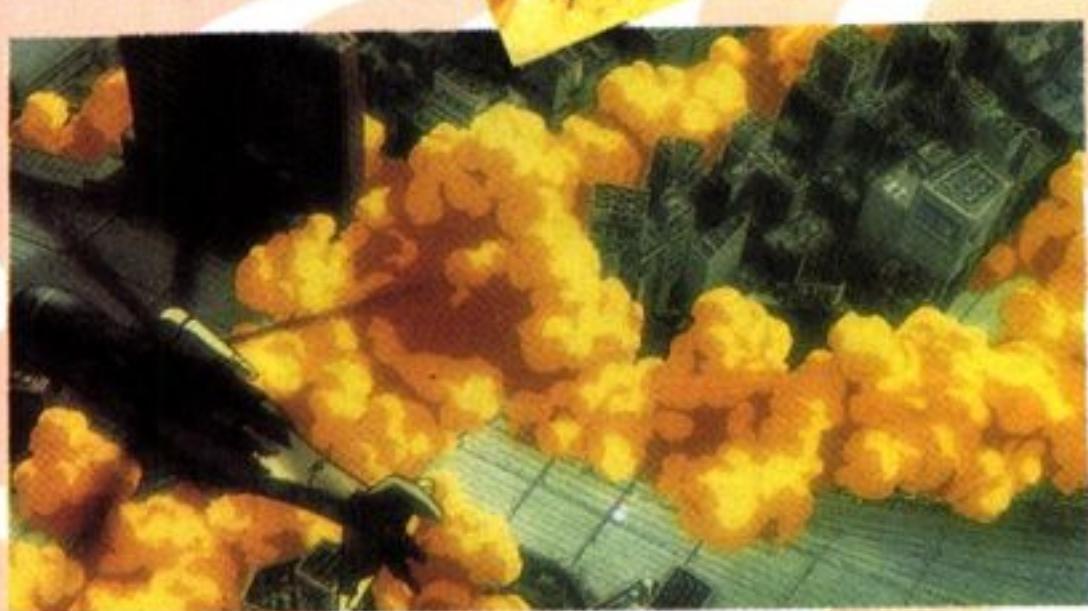
"이건 쿠데타를 위장한 테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도, 무언가 사상을 가지고 있는 확신범에 의한 범행입니다. 수도를 무대로 전쟁이라는 연극을 연출하는 것, 이것이 범인이 노리는 바예요."

고토가 말하는 동안 사카키의 집 앞에 사내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차 2과 정비반원들이었다. 사카키는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나가 외쳤다.

"2과는 궤멸되었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손으로 녀석들을 끝장내 버리자!"

이리하여 1호기 포워드(조종사) 노아와 지휘담당 아스마, 2호기 포워드 오타와 지휘담당 신지, 후방지원담당 야마자키 등에게도 연락이 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들었다.

전파방해장치가 부서지자 예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추락하는 비행선

가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건물을 부수는 자위대의 군인들

신주쿠 일대가 가스로 뒤덮였다. 상황은 혼란의 극에 달해있는 것이다

더해가는 혼란

경시청은 통신방해의 원인이 비행선에 있다는 걸 파악하고 저격수로 하여금 비행선의 전파방해장치를 쏘도록 했다. 총을 맞자 비행선이 갑자기 모양을 바꾸더니 땅을 향해 내려앉기 시작했다. 신주쿠의 고층빌딩들을 노리고 달려드는 비행선. 신주쿠는 토쿄 시청 등이 모여있는 토쿄의 중심가다.

땅에 추락한 비행선에서는 기분나쁜 누런 가스가 뿜어져나왔다.

반격을 위해 잉그람 1, 2, 3호기가 준비되고 있다

"기관포라든가 벌칸포라든가, 좀 대단한 무기 없어?" 변함없이 혈기 왕성한 2호기의 조종수 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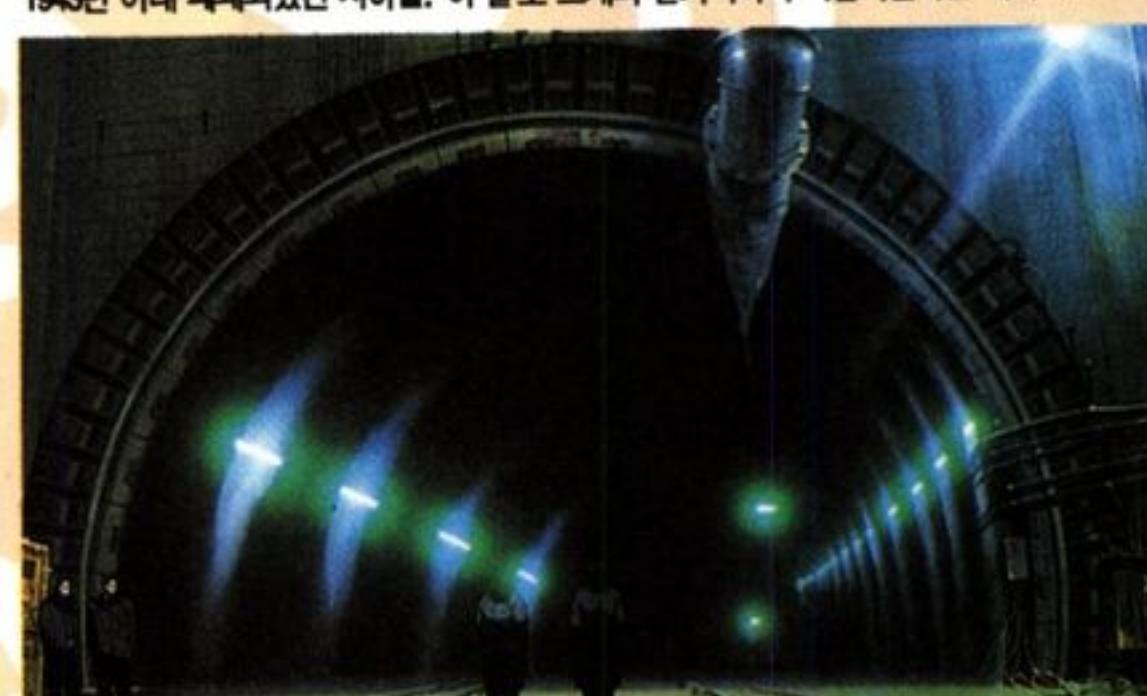
"상황… 가스!"

자위대원이 외친다. 사방으로 퍼지는 가스의 손길로부터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자위대원들. 가스마스크를 갖지 못한 대원들은 도망칠 곳을 찾아 빌딩 유리창을 부수고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 건물을 부수느라 사방에서 소총 사격음이 들려왔다. 지금의 토쿄는 혼란의 도시 그 자체다.

거기에 개 한마리가 짖고 있었다. 눈 앞의 흐릿한 가스 때문에 흥분하여 짖고 있었지만, 몸에는 이상이 없는 듯했다. "개스는 거의 무해하구나!"자위대 군인들은 금새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도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미 가스에 의한 혼란이 벌어진 한참 뒤였다.

도망치는 중인 고토는 아라카와와 비밀리에 만났다. 츠게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손에 들어온 것이다.

제 2소대와 레이버가 지하철로 이동하기 시작

1943년 이래 폐쇄되었던 지하철. 이 굴로 츠게의 본거지까지 쳐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차 2과 2소대 최후의 출격이다

아라카와를 체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고토

"토쿄만 바닷가의 매립지를 찍은 항공사진인가요?"

"18호 매립지요. 저기 있는 건 파괴된 헬기의 잔해고. 적의 본부인 것 같아요."

아라카와는 곧이어 말했다.

"내일 아침 7시 이후, 상황 타개의 활로가 뚫리지 않으면 미군이 직접개입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 때, 시노하라 중공업의 공장에서는 잉그람의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아의 1호기, 오타의 2호기, 그리고 예비용 3호기가 착착 정비되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

마츠이 형사가 비행선 회사에서 입수한 광자기 디스켓의 암호를 아스마와 신지가 해독했다. 그것은 영어로 씌어진 성서의 한 구절이었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다섯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세 사람이 두 사람을 반대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었다. 츠게는 암호문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로 반격 개시!

익스톨과 포화를 나누는 잉그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오타의 2호기

미육군의 최신형 전투 레이버 익스톨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오전 1시 26분, 전철이 끊어졌는데 전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제 2소대와 레이버가 전철을 통해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바시 전철역의 지하에 들어가는 제 2소대의 눈 앞에는 잊혀졌던 옛 신바시역이 펼쳐졌다. 1943년에 폐쇄되었던 지하철역이다.

아라카와와 고토가 미리 와 그 곳에서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각 대원들에게 옛날의 포지션을 맡기고 작전 개시를 지시하는 고토. 모두가 떠난 다음에 아라카와가 왜 함께 따라가지 않느냐고 묻자, 고토가 대답했다.

"도와줘서 고맙기는 했지만, 당신을 체포해야겠소."

그 때 마츠이 형사가 나타나 소리쳤다.

"아라카와 시게키. 파괴활동 방지법과 기타 용의로 너를 체포한다."

"무슨 이유로?"

"당신의 정보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소. 그야 당연하지. 당신 자신이 바로 츠게 조직의 일원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츠게와 같이 일을 하다가, 그에게 배신당해서…"

정확한 고토의 추리였다. "아라카와, 당신의 이야기는 재미있었소. 기만에 가득찬 평화와 진실로서의 전쟁. 그러나 당신 말대로 이 평화가 가짜라면, 그가 만든 전쟁도 역시 가짜에 불과해. 이 도시는 말이지, 진짜 전쟁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

"진짜 전쟁? 전쟁이란 언제나 비현실적인 거지. 전쟁이 현실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잖소."

3호기의 전파방해장치가 작동되었다

전파방해로 익스톨이 멈칫한 순간을 노려 리볼버 캐논을 쏘는 오타

화물 엘레베이터 속에는 3대째의 익스 톨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건 내가 경찰관이기 때문이지만, 댁은 왜 츠게의 옆에 가 있지 않았지?"

고토의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라카와는 연행되어갔다.

불꽃과 연기 속을 뚫고

"곤란한데, 저건 미육군이 개발한 전투 레이버, 익스톨이야. 유선조종되는 이동 포대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 악당놈을 그냥…!"

다혈질의 오타가 조종하는 2호기가 나서서 샷건을 쏘았다. 그러자 곧바로 2대의 익스톨이 기관총을 쏘아왔다. 제 2소대가 한 발 쏘면 수십배로 되쏘는 익스톨.

"나쿠모 대장님, 전파방해를 준비해주세요. 저 놈은 유선조종용 전선이 끊어지면 자동조종으로 들어가 식별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공격합니다."

익스톨을 조종하는 전선을 쏘아 끊어버리고 즉시 전파방해를 시작하는 제 2소대. 순간적인 상황변화에 머뭇거리는 익스톨은 오타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 그러나 익스톨이 부서지면서 터널의 천정을 부수는 바람

익스톨을 부수고 지상으로 나온 시노부

시노부는 굳은 표정으로 츠게를 체포한다

츠게가 암호로 쓴 성경구절을 전파로 내보내는 고토와 마츠이

수갑을 채운 후 서로 손을 붙잡는 두 사람. 시노부는 고토가 아니라 츠게를 선택한 것이다

에 물이 쏟아져들어왔다. 터널 위는 바다였던 것이다.

"나쿠모 대장님! 대장님만이라도 위로!"

물 속에서 대원들은 허우적거리면서도 나쿠모 시노부의 3호기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화물용 엘레베이터 안에 들어간 시노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3대째의 익스톨이었다. 이제까지 싸움에서 미적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 시노부의 분노가 폭발했다.

엘레베이터가 땅 위로 올라왔을 때 부서진 채로 뒤엉킨 익스톨과 잉그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노부는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 부서질 때까지 싸운 것이다. 머리가 풀린 시노부가 걸어나왔다. 그녀가 본 것은 수많은 바닷새에 둘러싸인 백발의 사나이였다. 시노부는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츠게 유키히토, 당신을 체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헤어져있던 끝에 비로소 츠게와 시노부의 두 손은 다시 맺어졌다. 수갑에 의해 연결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막힌 지 오래된 사랑이 이제서야 다시 새로운 움을 틔우기 시작했다.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같은 때, 고토와 마츠이는 입수한 암호를 전파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츠게가 지금까지 일으켰던 모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암호문이었다. 이제 비행선도 동작을 멈추고 헬하운드 전투 헬기도 지상에 내려앉을 것이다.

엘레베이터가 땅 위로 올라왔다. 엉망진창이 된 노아의 잉그람과 무사히 탈출한 제 2소대 대원들이었다.

"대장니임 — !"

제 2소대 대원들이 고토를 향해 달려온다. 고토는 그들을 쳐다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결국, 내게는 저 친구들 밖에 남지 않은 건가…"

남몰래 시노부를 사랑하고 있던 고토는 츠게와의 두뇌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사랑 싸움에서는 진 셈이 되었다.

츠게와 시노부, 마츠이를 태운 헬기가 토쿄 시내로 향하기 시작했다. 츠게의 옆에서, 시노부가 오히려 죄인같이 창백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한 가지 말해주지 않겠나, 이런 사건을 일으켜놓고 왜 자결하지 않았나?"

앞좌석의 형사가 던진 질문에 안경을 벗으며 츠게가 말했다.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고싶다니, 무엇을?"

"이 도시의 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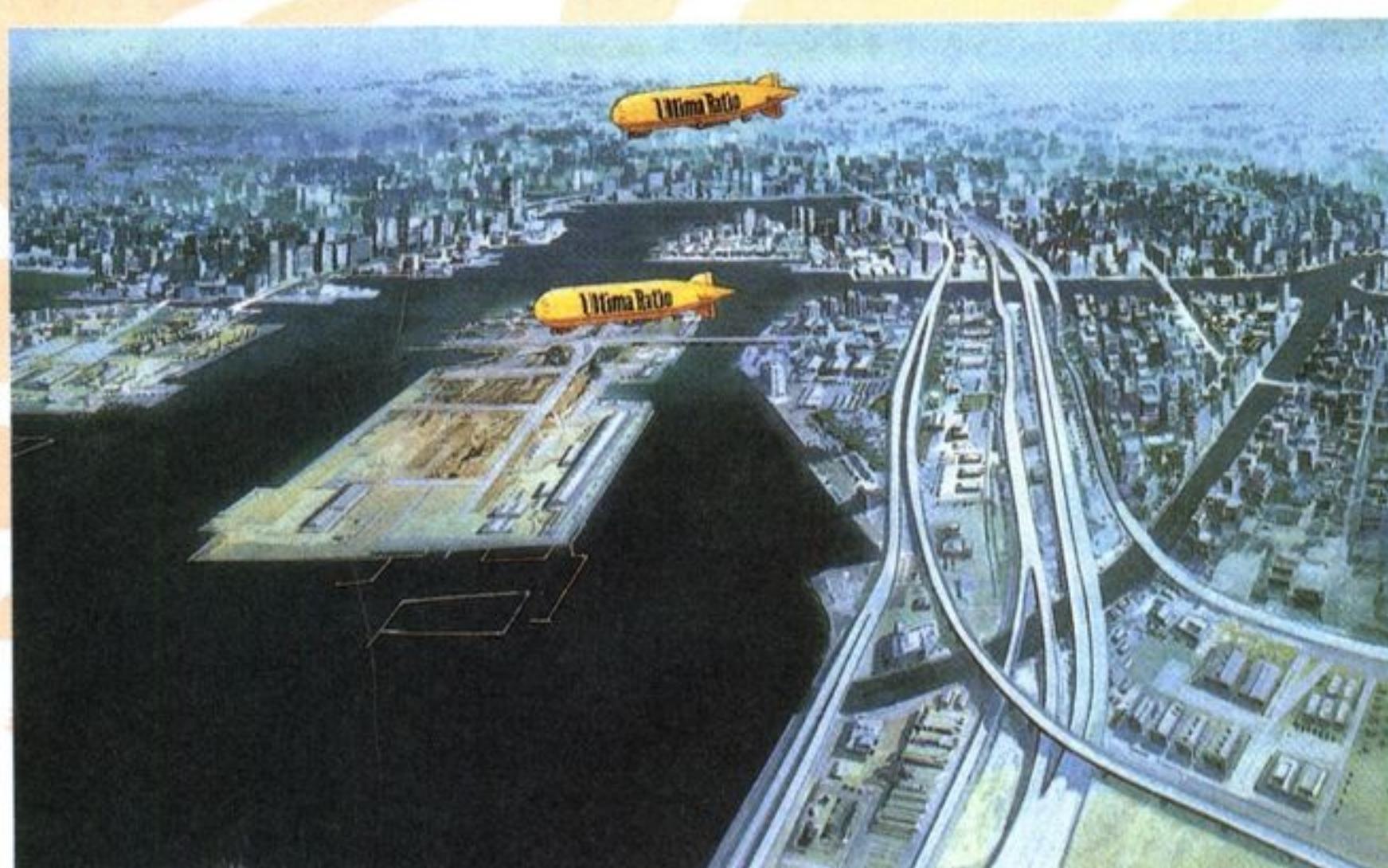
츠게는 하늘에서 토쿄 시가지를 안경 없이 맨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평화를 되찾은 토쿄의 전경이 그의 눈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엘레베이터로 올라온 제 2소대 대원들

"방해전파가 없어졌다!"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는 노아와 동료들

"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도시의 미래를"

츠게 옆의 시노부쪽이 오히려 죄인처럼 앉아있다

츠게의 눈 아래에 펼쳐진 토쿄의 시가지

국외 애니정보국

Battle Spirits 용호의 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용호의 권

「스트리트 화이터 2」의 애니메이션화에 이어, 이번에는 「용호의 권」이 애니메이션화되었다. 애니메이션 작품의 제목은 「배틀 스피릿츠 용호의 권인데, 네오지오 게임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 2탄이다 (제 1탄은 「아랑전설」). 이 작품은 지난 12월 23일, 일본 후지 TV에서 방송되었다.

사우스타운의 극한류공수도 실력자 류는 친구 로버트와 함께 악당조직과의 싸움에 말려들게 된다. 그들은 류의 동생 유리를 유괴한 조직 '미스터 빅'을 찾아가는데…

'멋진 하드보일드 액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류와 로버트의 시원한 액션과 활약을 즐겨주십시오'라고 프로듀서 야마자키는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 작품도 조만간 국내에 수입, 어린이 팬들에게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날아라 태극호」 부활하다

악당 3인조가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의 주요사건을 뒤집어놓으려고 하면 주인공은 그 시대로 쫓아가 악당들을 무찌르고 역사를 지킨다… 이것이 「타임보칸」(일본어로 '시간 모함'이라는 의미) 시리즈의 구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날아라 태극호」와 「이겨라 승리호」로 1탄과 2탄만이 방송되었으나, 일본에서는 그 후에도 몇 개의 시리즈를 더 만들어 장수 시리즈가 되었었다.

「타임보칸」 시리즈의 오래된 전통인 '3인승 자전거'를 타고 골에 들어오는 3인조 악당

「타임보칸 왕도부활」 2편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도 등장한다

TV 애니메이션이었던 타임보칸이 이번에 OVA(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로 나왔다. 이름하여 「타임보칸 왕도 부활」. 2부작인 「왕도 부활」은 1부에서 역대 악당 3인조들끼리 모여 '2부의 주인공자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내용이었는데, 2부에서는 악당들에게 맞서 독수리 오형제, 캐산, 포리마, 데카맨 등 다른 만화의 주인공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고 한다. 지금은 2, 30대가 된 만화팬들이 보면 요절복통할 작품.

주목할 만한 두 작품의 레이저디스크 발매

「톱을 노려라!」와 「기동전사 Z 건담」이 레이저 디스크로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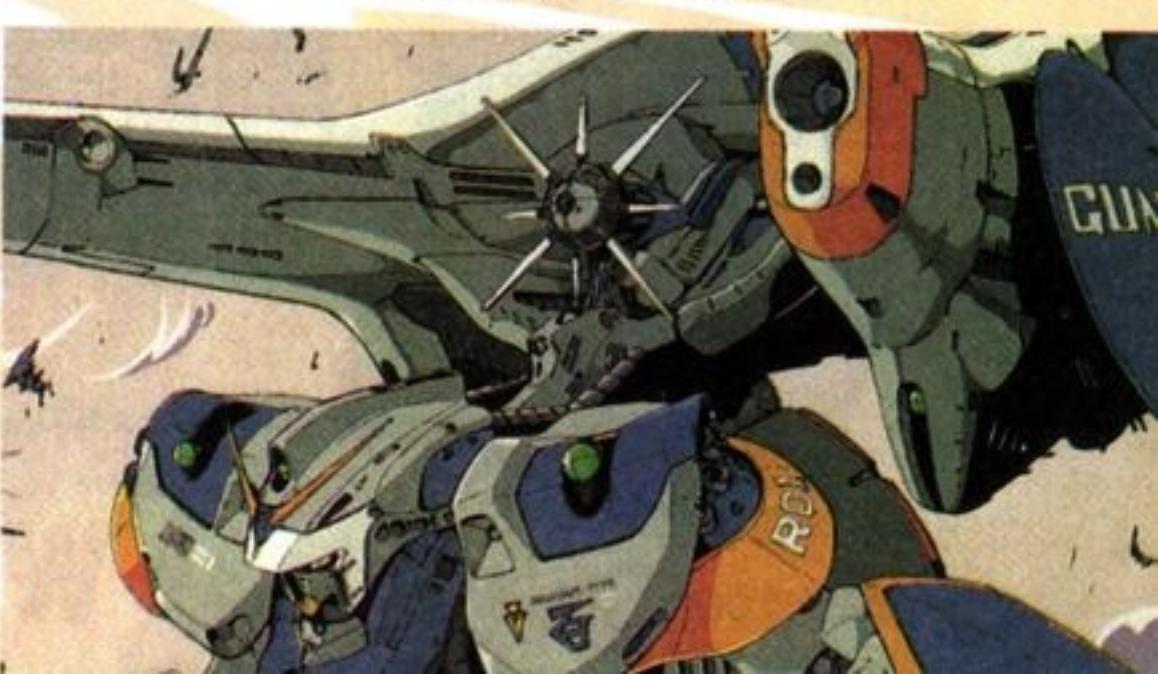
국내에서는 이름을 '제트 건담'으로 잘못 읽혀지고 있는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2개 파트로 나누어 그 중 파트 1은 2월 21일 발매예정. 7장의 레이저 디스크로 구성되며, 1회부터 26회까지가 담겨져 나오게 된다 (Z 건담은 총 50회). 당시 이 작품의 메카닉 디자이너 중 하나였고 지금은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로 유명한 나가노 마모루의 「제타 월드」가 함께 제공된다고 한다.

또, 「나디아」를 만든 창작집단 가이낙스의 초기 히트작 「톱을 노려라!」는 3월 22일 발매된다. SF물로서는 재미있는 설정과 가슴 찡한 감동을 최후에 남겨주는 이 작품을 찾을 이들이 많을 것 같다.

「톱을 노려라!」의 로보트 건버스터와 등장인물들

주인공 노리코

「기동전사 Z(제타) 건담」이 오렌시간이 지난 끝에 레이저 디스크로 제작

「파이브 스타 스토리」의 작가 나가노 마모루가 만든 「제타 월드」가 「Z 건담」의 레이저 디스크에 들어갈 예정

애니메이션화된 「紺碧(감벽)의 함대」

1943년, 미군기의 공격으로 격추되어 죽은 타카노 이소로쿠가 다른 세계의 일본에 다시 태어났다! 그는 정예집단 '감반회'를 결성, 전세의 경험을 살리면서 태평양 전쟁을 뒤바꿔놓는데…

당시 일본 해군의 가장 뛰어난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부활시킨 (이름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 소설 「감벽의 함대」가 일본에서 베스트 셀러가 된 지도 벌써 1년가량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

소설 제 1권의 내용(진주만 공격에서부터 파나마운하 폭격까지)을 2부작으로 나누어 90분가량에 걸쳐 그린다는데, 군국주의 성향을 자주 내비치는 일본 만화계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베스트 셀러 소설인 「감벽의 함대」가 애니메이션화되었다

「감벽의 함대」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죽은 해군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타카노 이소로쿠'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하와이에서 미해군을 섬멸하는 일본함대 (「감벽의 함대」에서)

「내 사랑 앨리스」 애니메이션화

국내에는 「내 사랑 앨리스」라는 제목으로 주간 만화잡지 「터치」에 연재중인 히와타리 사키의 인기만화 「나의 지구를 지켜주세요」가 6부작 예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87부터 연재하기 시작, 일본에서 '전생의 친구 찾기'붐까지 일으켰던 이 작품은 소녀 亞子('아리스'로 읽는다 – 작가는 Alice를 생각하고 일부러 일본에는 없는 이름을 지은 듯하다)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녀의 동생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12월 17일 제 1부 「각성」이 발매되었는데, 마땅한 순정만화의 애니메이션이 없어 고민하던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다.

「나의 지구를 지켜주세요」 (한국제목 「내 사랑 앨리스」)가 애니메이션화 된다

누나에게 차여 15층 베란다로부터 떨어지는 소년, 그러나…! (「나의 지구를 지켜 주세요」에서)

「나의 지구를 지켜주세요」의 히로인 아리스.

3개의 만화가 하나의 CD로 –「전뇌소녀가극단」

드라마 CD 「전뇌소녀가극단」의 자켓.

우리나라에서도 해적판으로 만화가 번역, 소개되어 어느 정도 알려진 마미야 아키의 작품 「사일렌트 메비우스」와 「컴파일러」, 그리고 아직 일본의 만화잡지에 연재중인 「다크 엔젤」의 인기 여성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는 드라마 CD 「전뇌소녀가극단」이 나왔다.

크리스마스 특별수요를 의식한 듯, 12월 22일에 발매된 이 CD는 일본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책과 비디오 뿐만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한 것 같은 드라마 CD 같은 특이한 형태의 매체도 탄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복고풍이 부는 SFX계

특수촬영(SFX)으로 탄생했던 브라운관의 영웅 고지라와 울트라맨이 새롭게 탄생했다.

미국 헐리웃에서 미국인 배우를 동원해가며 새로 만들어진 「울트라맨 파워드」는 7개의 비디오에 총 13회의 분량으로 선보일 예정. 한편, 3년 전 「고지라 대 킹기드라」의 흥행성공에 힘입어 「고지라 대 메카고지라」도 새로 만들어졌다.

'신선한 영웅' 없이 재탕 삼탕으로 이어지는 외국의 실정이 알만하다.

새로 만들어진 메카고지라 (「고지라 대메카고지라」에서)

고지라는 인류의 적이자 동시에 인류의 친구이기도 하다. (「고지라 대 메카고지라」에서)

자위대가 개발한 메카고지라가 고지라와 싸우고 있다.

나우시카, 3위까지 떨어지다

영원한 승자란 없는 것인가. 3위로 떨어진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히로인 나우시카

지난 1년간 여러차례 애니메이션 주인공 1위의 왕좌를 차지한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미즈노 아미.

해외의 애니메이션 전문지 Animage에서는 매달 만화주인공들의 인기순위를 지면에 소개하고 있는데, 몇 년인가를 줄기차게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우시카(「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주인공)가 3위로 밀려나고 1, 2위를 최근의 다른 작품의 여주인공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 주목을 받고 있다.

1위는 미즈노 아미.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국내 만화잡지 터치에 연재중)의 등장인물이다. 그리고 2위는 베르단디로 「아아 여신님」의 여주인공이다. 순진하면서도 강한 의지의 주인공 나우시카가 밀려나고 순종적인 이미지의 여성 캐릭터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잠시 동안의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 계속 지속될 것인지는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너무 만화책과 똑같은 「슬램덩크」

국내에서는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 독자들로부터도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농구만화 「슬램덩크」. 지금 일본에서는 「슬램덩크」의 애니메이션이 방영중인데, 의외로 만화책하고 틀린 구석이 거의 없어 실망한 팬도 있다고 한다.

원래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는 만화책의 내용을 이미 알고있는 시청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슬램덩크」의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대사 하나 틀린 곳이 없어 새로운 부분을 기대하던 팬들이 낙심했다는 것.

국내 애니정보국

KIST, 컴퓨터 그래픽 영화에 참여한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국산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한 영화제작에 참여한다. 지난 1월 7일 SFX(특수촬영)영화 「구미호」를 제작하는 영화사 신씨네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말까지 영화의 특수효과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KIST측이 「구미호」용으로 개발할 프로그램은 사람이 여우로 변신하는 장면 등 총 10커트 5분 분량인데, "KIST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 컴퓨터 크레이 2는 조지 루카스의 ILM이 보유한 컴퓨터보다 뛰어나므로 「터미네이터 2」를 능가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KIST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낸다는 보장도 없고 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크레이 2가 ILM의 워크스테이션 70보다 낫다는 것 또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국내 매스컴의 과장보도가 걱정된다.

만화 예술 아카데미 열리다

한국만화예술연구회는 만화도서관과 공동으로 만화예술아카데미를 개설, 첫 강좌를 1월 17일부터 2월 18일사이에 마련했다.

서울예술전문대학의 후원을 받아 이 대학 디자인 실기실에서 열게되는 이 강좌는 5주간 주 5일, 1일 4시간씩 수업 예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전반기에는 만화의 객관적 이해, 주재 및 소재설정 등 이론을, 후반기에는 현역만화가 11명이 전담학생을 개별지도하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

3차원 입체 애니메이션 국내 출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차원 입체 애니메이션이 2편 소개되었다.

하나는 계몽아트콤의 「빛돌이 우주 2만리」로 제작사인 세영 애니텔이 미국과 합작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현재 SBS TV를 통해서 방영중이며, 현재는 비디오로 6편만 만들어졌으나 현재 방영중인 내용도 계속 비디오로 제작될 예정이다.

또 하나는 (주)서진통상의 「공룡특공대 – 다이노서 레인저」로, 미국산 애니메이션이다. 자연을 해치려는 악당들과 맞서 공룡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자연보호와 공룡에 대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구와 공룡 쭈쭈

신작안내

스토리 라인

공부는 꼴찌, 말썽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개구쟁이 영구는 학교도 빼먹고 근처의 야산 동굴에서 놀던중 크고 이상한 모양의 알에서 부화한 공룡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친다.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온 영구는 선생님과 반아이들에게 본 공룡에 대하여 이야기하나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믿어주지 않는다.

한편, 아기 공룡이 마을에 나타나자 아이들은 못생겼다며 돌을 던지는 등 짖궂은 장난을 하는데 영구는 집으로 데려가 쭈쭈란 이름도 지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준다.

그러나 공룡이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된 악당들은 공룡 쭈쭈를 몰래 잡아다 외국에 팔아 넘길 생각으로 영구네 집에 몰래 숨어 들어온다. 한판 대결끝에 영구와 공룡 '쭈쭈'는 악당들에게 붙잡힌다. 이때 아기 공룡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공룡이 아기공룡을 구출하기 위해 소리를 쫓아 서울로 들어오고 거대한 공룡의 출현에 놀란 사람들 때문에 시내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만다.

파워, 테크닉이 모든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공룡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두사람의 컴비네이션 힘이다. 영구가 쭈쭈의 힘을 온몸으로 받아 가속을 붙여 필살 박치기로 거대 공룡을 무찌르는 것이다…

작품해설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히트제조기인 개그맨 심형래의 정식 감독 데뷔작이자 그의 영화사 「영구 아트 무비」의 창립 작품. 이전의 작품보다 더욱 익살스러운 웃음과 코끝 진한 감동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심형래를 비롯 양종철, 서원섭, 홍정숙 등 인기 개그맨이 총출동해서 제작초부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제작에 있어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공룡 제작만에도 5천 여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공룡이 서울에 들어올 때 이를 저지하는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 헬기 3대, 탱크 14대, 장갑차 5대 등 많은 군장비가 동원되는 등 사실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수작이다.

장르 : SF코미디
발매원 : 우일영상
문의 : 511-1302

요정 크리스타

스토리라인

아름답고 푸른 숲 펀걸리에는 요정들과 갖가지 동물들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꾸며 풍요롭고 재미있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호기심 많은 요정 크리스타가 마법사 매지의 당부를 어기고 펀걸리 밖의 숲까지 날아간다.

그곳에선 검은 연기를 내뿜는 기계를 동원한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신기한듯 두리번거리던 크리스타는 잭이란 소년과 부딪치게 되는데 그만 실수로 잭을 조그만 요정처럼 만들어 버린다.

펀걸리로 돌아온 잭과 크리스타는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한편, 벌목꾼들은 펀걸리 숲까지 다가와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한다. 게다가 공해와 쓰레기를 먹고 자란 헥서스까지 나타나 펀걸리는 삽시간에 지옥처럼 변하고 잭과 크리스타는 숲과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작품해설

요정 크리스타는 20세기 폭스사가 10년여의 기획끝에 완성한 방대한 스케일의 장편 만화영화로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으로 탄탄히 다져진 만화영화 중흥기를 대표하는 최대걸작.

다이애너 영의 원작 소설을 근거로 미녀와 야수 집콕스의 각본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된 바 있는 빌 크로이어가 감독을 맡아 기존의 만화영화와 달리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아있는 듯한 생생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선 극장개봉시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 선생님들로부터도 오락성과 작품성을 겸비했다해서 큰 호평을 받았었다. 또한, 1 992년 유엔총회 개막전 시사회를 가져 회원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아이들에겐 꿈을, 어른들에게는 잊혀진 동심을 일깨워주는 만화영화의 특성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들을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몰입시킬 뿐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감동과 설득력 있는 교훈으로 흥미를 더해준다.

장르 : 순정물
발매원 : 폭스비디오
문의 : 511-1305

제품문의 : 080-021-5656
(수신자부담 클로버서비스)

쪼~오~옥! 쪽! 이렇게 맛있을 수가…

뼈가 단단! 칼슘이 듬뿍!
몸을 튼튼하게 비타민 D까지♪

소리까지 맛있는 초코렛드링크-쵸키

쵸키를 보면 저는 흥분하고 말아요.
쪼~옥~쪽! 소리까지 맛있거든요.
칼슘과 비타민D까지 들어있는,
초코렛 드링크는 정말 처음이예요.

구 분	1일 권장량	쵸키 함유량
칼 슘	600mg	220mg
비타민 D	400IU	80IU

*성장기 어린이에게 꼭필요한 칼슘과 비타민D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자매품

커피의 낭만주의
전통 레귤라 커피－낭뜨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